

2012년 8월

박사학위 논문

현대 음다(飲茶) 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홍 정 숙

# 현대 음다(飲茶) 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way to vitalize Modern Drinking Tea Space

2012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홍 정 숙

# 현대 음다(飲茶) 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지도교수 金 河 林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홍 정 숙

# 洪貞淑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황병하 (인)

위    원    목포대학교 교수            조기정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염    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하림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vii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	3
<b>제2장 음다 공간의 정의와 구성 요소</b> .....	10
제1절 음다 공간의 정의 .....	10
제2절 음다 공간의 변천 및 구분 .....	14
제3절 음다 공간의 구성 요소 .....	30
<b>제3장 한·중·일 음다 공간의 특징</b> .....	55
제1절 한국의 음다 공간 .....	55
제2절 중국의 음다 공간 .....	86
제3절 일본의 음다 공간 .....	105
<b>제4장 한·중·일 음다 공간의 비교</b> .....	129
제1절 한·중·일 음다 공간의 공통점 .....	129
제2절 정원문화를 통해 본 음다 공간의 공통점 .....	148
제3절 한·중·일 음다 공간의 상이점 .....	150
<b>제5장 현대 음다 공간의 활성화 방안</b> .....	157
제1절 현대 음다 공간의 필요성 .....	157
제2절 전통적 음다 공간의 재조명 .....	160
제3절 현대 음다 공간의 활용 방안 .....	170

제6장 결론 .....	176
참고문헌 .....	179

## 표 목 차

<표1> 茶의 「사방도(四方圖)」 .....	161
<표2> 전통적·현대적·복합적 음다 공간 .....	171
<표3> 현대 음다 공간 .....	174

## 그림 목 차

<그림1> 「연지도(蓮芝圖 1. 2)」 .....	46
<그림2>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	48
<그림3> 「청공지도(淸供之圖)」 .....	48
<그림4>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	49
<그림5> 「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 .....	50
<그림6> 「세한도(歲寒圖)」 .....	51
<그림7> 「석천물로 차를 달이며(石泉煎茶)」 .....	52
<그림8> 「무용총-차상을 들고 가는 모습」 .....	60
<그림9> 「무용총-상위에 차잔이 있는 모습」 .....	61
<그림10> 「각저총-음다 모습」 .....	61
<그림11> 경주 안압지 임해전지(臨海殿址) .....	63
<그림12>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	65
<그림13> 「선동전다도(仙童煎茶圖)」 .....	66
<그림14> 「취후간화(醉後看花)」 .....	67
<그림15> 「전다한화(煎茶閒話)」 .....	67
<그림16> 「초원시명도(蕉園試茗圖)」 .....	68
<그림17> 「완당난화(阮堂蘭話)」 .....	68
<그림18> 「선유도(船遊圖)」 .....	70
<그림19> 「벽오사소집도(碧梧社小集圖)」 .....	71
<그림20> 「수계도권(修稷圖卷)」 .....	72
<그림21> 「궁락도(宮樂圖)」 .....	91
<그림22> 「연음부분(連飲部分)」 .....	91
<그림23> 「비차도(備茶圖)」 .....	91
<그림24> 「다도도(茶道圖)」 .....	92
<그림25> 「문회도(文會圖)」 부분 .....	91

<그림26> 「인물(人物)」 .....	93
<그림27> 중국 민화 .....	93
<그림28>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	94
<그림29> 「수도도(授徒圖)」 .....	96
<그림30> 「차 마시는 여인과 「과반화(果盤花)」 와 「병화(瓶花)」 .....	96
<그림31> 「청대병화(清代瓶花)」 .....	97
<그림32> 「청초청당공화(淸初廳堂供花)」 .....	97
<그림33> 「소나무숲 그림병풍(松林圖屏風)」 .....	107
<그림34> 「과묵산수도(破墨山水圖) .....	108
<그림35> 용안사(龍安寺)정원 .....	108
<그림36> 「煎じ物賣」 .....	109
<그림37> 「一服一錢」 .....	109
<그림38> 「기삼정사참에 만다라도(紀三井寺參詣曼荼羅圖)」 .....	110
<그림39> 「이월당회권1권내대불견물(二月堂繪卷1卷內大佛見物) .....	110
<그림40> 「다경세십경하곡(茶見世十景下谷)」 .....	111
<그림41> 「대정다실(袋井茶屋)」 .....	112
<그림42> 「차를 끓여마시는 장면(茶乃湯)」 .....	113
<그림43> 일본의 로지(露地)와 다실 .....	114
<그림44> 다실의 도쿄노마(床の間) .....	115
<그림45> 화소망(花所望) .....	117
<그림46> 「대나무 꽃통(竹一重切花生)」 .....	119
<그림47> 「다도 선반 장식(茶湯棚飾)」 .....	121
<그림48> 「황금다실」 .....	123
<그림49> 쉐 리큐의 공간 .....	124
<그림50> 니지리구찌 .....	124
<그림51> 「시나가와에서 파도 뒤로 보이는 후지산」 .....	126
<그림52> 「죽림칠현 영계기(竹林七賢 榮啓期)」 .....	134
<그림53> 소식(蘇軾)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136
<그림54> 이인문(李寅文)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136

<그림55> 김홍도(金弘道)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	137
<그림56> 설촌주계(雪村周繼) 「죽림칠현도」 .....	137
<그림57> 이용우(李用雨) 「죽림칠현도(竹林七賢圖)」 .....	138
<그림58> 「상산사호도(商山四皓圖)」 .....	139
<그림59> 이명기(李命基) 「죽림칠현도」 .....	144
<그림60> 「난정수회첩(蘭亭修會帖)」 .....	144
<그림61> 궁적정원 .....	146
<그림62> 경주포석정지 .....	147
<그림63> 소요암(逍遙巖)과 소요정(逍遙亭) .....	148

# ABSTRACT

## A Study on the way to vitalize Modern Drinking Tea Space

Hong, Jeong-Sook

Advisor : Prof. Kim Ha Rim,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ea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odern tea drinking gives a great meaning to enjoy having tea culturally and artistically according to a group or an individual taste because tea culture has been rapidly extended to the general public owing to the economic growth and cultural enjoyment and the space for drinking tea has been emerged as that of important communication in our life. In addition, the space for drinking tea is kept as a variable space lacking identity or is built with various forms having obscure nationality.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sirable form and direction of the space for drinking te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of tea culture as modern space for drinking tea can be used as the space for communication, cultural enjoyment and meditation of modern people when it is harmoniz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tea drinking space and modern human life.

Therefore, traditional space for drinking tea was used for training body

and mind based on the functions and spirit of tea, and writing poems, painting and watering flowers were used as a part of mental discipline. The Four Gracious Plants which are called the symbol of scholar were also chosen to make such an artificial space for drinking tea and express their mental world as the various performance arts with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and to enhance the meaning of drinking tea.

It seems that it was resulted from human mind to return to nature. The harmony of such acts and spirit made the space for drinking tea that of creating a novelty and have the feature of shaping the beauty. It might be the manifestation of spirit to give a priority to the intellectual's pursuit of self. The harmony of such acts and spirit made the space for drinking tea that of creating a novelty and have the feature of shaping the beauty.

Drinking tea was composed of three factors including tea, nature and human, but space was essential. With the above contents, this study examined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space for drinking tea, classified the features of space for drinking tea shown in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poetries and pictures which were the symbols of pleasure in the space for drinking tea, and compared common and different aspects of space for drinking tea among the three countries. Also it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for drinking tea with the Four Gracious Plants which were the spiritual foundation of high officials and examined their devotion to enhance it to the highest play culture. The renaissance in the space for drinking tea was the innovation of literature and creation based on literature and art. The best advantage of the space for drinking tea was its use for creation.

The present study defined the space for drinking tea as follows; First, it is the space of care to enhance the health of body and mind. Second, it is the space of self-discipline. Third, it is the space for



sociality and exchange. Fourth, it is that for art and culture to discuss poem, painting and writing. Fifth, it is for resting to refresh energy. Sixth, it is for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age of materialism. Therefore, how to succeed the features of past space for drinking tea should be considered.

The space for drinking tea in modern sense can be divided into three; traditional, modern and complex space for drinking tea. Middle-aged generation preferred noble, easy and traditional tea space and young generation wanted the modern space with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but future space to orient the popularization of tea culture beyond generation should be complex tea space. Therefore, the space for drinking tea has been extended to the area of culture and art and the 21st century is changing into the age of pursuing spirit, culture and art. Furthermore, the concept of space should be converted into that of creation, enjoyment and feeling convenience beyond that of stay, life and production. After all, the concept of space is not confined to a specific place but is the place of feeling pleasure and convenience within in.

The space for drinking tea should be complex space where is open one to be close with the public. allows self-direction, communication, networking, guarantees diversity, enjoys freedom and is accompanied by tea culture education. The space for drinking tea with the mixture of concepts of culture and art suitable to consumers' lifestyles is required.

It is to create the place where a third culture can be created with functionality and convenience as the space that tradition and modern correspond because the space for drinking tea can be the medication of mind modern times need. A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orients ubiquitous environment, a true cultural space for drinking tea should be created to be felt like a part of environment around u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현대의 음다(飲茶)는 단체나 개인의 취향과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접촉에 따라 문화·예술적 기호음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문화향유의 증대에 힘입어 차문화가 대중들에게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대사회 음료문화의 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음다 공간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음다 공간은 전통적 음다 공간의 정체성이 결여된 가변적 공간으로 유지되거나,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다국적 문화공간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현대 음다 공간의 다양한 변화는 음다 공간의 본래 기능과 전통적 고유성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현대의 음다 공간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전통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개인의 문화적 욕구와 취향에 따른 정신문화의 공간과 사회적 인적 교류의 공간으로서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음다 공간은 전통적 음다 공간의 특성과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가 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현대의 음다 공간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교류, 개인의 정신적 수행과 명상의 공간, 그리고 교육과 체험을 통한 정신문화 향상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음다에는 차(茶), 차도구(茶道具), 인간(人間)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차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인간은 차와 차도구라는 물리적 요인을 이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음다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요소는 소통과 교류의 음다 공간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의 음다 공간은 장소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차를 끓여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가변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사회 상층부의 주거공간이 확대되고 정원문화가 확산되면서 소수 지배계층의 사랑채나 별서가 음다 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의 음다 공간은 그 시대의 문화를 생산하는 근원지와 문화적 보고(寶庫)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음다 공간은 유교적 가치를 통해 인간정서를 순화시키는 정신적 훈련의 장소와 후학을 교육하는 장소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의 음다 공간은 소통과 정신수양, 교육 및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음다 공간을 살펴보면,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선술집보다 모양을 갖춘 조명시설, 서가와 거울장식, 금박 틀의 그림, 그리고 훌륭한 가구 등으로 공간을 채워 시각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당시 커피하우스의 발전과 확산은 내부 공간의 미적·예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 확대 그리고 정신적 성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커피 문화의 활성화는 커피하우스를 지식인들의 집합장소로 만들었으며, 사교와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공공장소로 발전시켰다.<sup>1)</sup>

한국의 음다 공간과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간은 내부 구조의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특징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음다 공간은 단순히 음다를 행하는 공간이라는 협의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교류, 개인과 집단의 교류, 그리고 인간 교류와 정보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생산적 공간의 역할이라는 광의적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음다가 널리 보급되면서 음다 공간도 새로운 개념과 이미지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 음다 공간의 역할과 다르게 상업적 목적의 음다 공간이 점차 변성하고 있어 음다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음다 공간의 구성에서도 조형적 측면에서 심리적·교육적 측면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내 음다 공간은 단순

---

1) 톰 스탠디지(Tom Standage), 차재호 옮김, 『역사 한 잔 하실까요?』, 세종서적(주), 2010, pp.197~199.

하게 음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 구성 요소가 집합된 공간<sup>2)</sup>으로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청각적·심리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 음다 공간의 모습과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황 및 조건 등을 고려한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음다 공간에 대한 광의적 해석은 색채 활용, 공간의 재구성, 시각적·청각적·공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훈련과 교육적 역할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의 음다 공간은 전통적 음다 공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의 음다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옛 선인들의 음다 공간 개념은 현대인들의 실용적 음다 공간 개념을 조합하여 물질과 정신세계가 융합되는 새로운 음다 공간의 이미지로 창출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음다 공간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심적 치유의 공간과 차문화의 대중화·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음다 공간의 변화추이에 따라 바람직한 현대 음다 공간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을 비교한 후, 차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전통적 음다 공간의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현대 음다 공간의 바람직한 모습과 형태를 제시하고 향후 대중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할 현대 음다 공간의 역할과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방법과 내용

### 1. 기존 연구 성과 및 검토

차문화 연구의 일환으로서 음다 공간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차문화의 주요 흐름은 차의 보급과 대중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음다 공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가 지나서야 그

---

2) 조은정, 『테이블 코디네이션』, 국제, 2010, p.10.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동안 발표된 음다 공간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이 기간 동안 연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음다 공간에 대해 선구자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선아는 「한국 차문화 공간의 감성적 색채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의 마음을 붙잡으려면 소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색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대변하는 색채를 활용하여, 차문화 공간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색채 사용으로 우리의 정서에 맞는 한국적인 공간미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이일희는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차문화 공간을 자연의 한 부분인 생태공간으로 이해하여 적절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단순하고 소박한 조형예술에 따라 체계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차문화 공간은 어떤 형태로 따로 규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과 같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가변적인 공간이자 생활철학을 담는 장소로 정신적 문화와 조화를 중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김건우는 「차문화 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구성 연구」에서 차문화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 공간 구성요소들을 체계화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화공간 기능을 제시하였다. 즉, 현대적 차문화 공간은 인간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건전한 여가의 공간, 예술과 융합하는 복합문화 공간, 자연과 인간의 감성을 보상하기 위한 친환경 생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곽수정은 「유휴(遊休)공간의 문화 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에서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예술가의 아틀리에를 문화교류지로 명소화 시켜 나가는 자발적 발생형, 치밀한 계획에

---

3) 이선아, 「한국차문화공간의 감성적 색채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p.116.

4) 이일희,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 박사학위논문, 2004,

p.198.

5) 김건우,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구성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5, p.85.

따른 폐기된 장소를 활용하는 현대적 전환형, 낙후지역을 활성화한 도시전체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 재생형 등으로 나누어 ‘시간성’과 ‘역사성’ 같은 무형자본을 유형화된 문화유산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시하였다.<sup>6)</sup>

홍정숙은 「차문화공간에 어울리는 다화(茶花) 연구」에서 차문화 공간은 종합예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한 국가의 역사를 배경으로 도덕과 종교와 예술등 정신적 문화의 조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찻자리의 한 요소인 다화는 선조들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즐거움의 표상이며, 그것은 식물의 자연스런 아름다움보다는 그 식물이 지닌 상징적인 가치를 더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어울리는 공간형태에 있어서 다화의 적절한 배치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는 다화 표현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데, 그것은 공간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하보숙은 「조선조 차문화의 미의식에 관한 고찰」에서 조선시대 차문화는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주로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삼고,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고 미적 쾌감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차문화공간이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비들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과 사상 등 고도의 인격수양과 절제된 유교적 미감이 표출되는 문화 복합체의 장이라고 하였다.<sup>8)</sup>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주로 외부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 정서적 요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음다 공간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음다 공간은 예술적, 문화적, 정신적 의미 등을 함축하고 있어 이를 표현한 음다 공간의 구성요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음다 공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적 요인들로 인해 그 특징과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 음다 공간은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심리와 요구에 부응하는

---

6) 곽수정, 「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7, p.228.

7) 홍정숙, 「차문화공간에 어울리는 다화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7, p.61.

8) 하보숙, 「조선조 차문화의 미의식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8, pp.73~

기능과 역할을 겸비한 실용의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 가. 연구 방법

한국 음다 공간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음다 공간을 구체적으로 활용했던 사대부들의 차문화와 차의 정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사대부들이 남긴 시와 그림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통해 음다 공간의 특징을 정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에 연관된 차문화의 배경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들 양국의 음다 공간에 대한 차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음다 공간에서 표현되고 행동화되었던 정신적·사상적 기반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사대부들의 시·서·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음다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시대에 따라 다사(茶事)나 다법은 달라졌어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차의 정신이었다.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서인 육우(陸羽, 733~804)의 『다경(茶經)』을 통해 차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삼국의 음다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 기본 자료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 사대부들의 차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미학의 역사』를 기초로 하여 음다 공간을 아우르는 모습과 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음다 공간을 형성하고 이끌어 왔던 지식층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철성의 『동아시아의 전통철학』을 기본 자료로 삼아야 한다. 신은경의 『풍류』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공통점을 찾고 그 토대위에서 파생된 미적 특징들을 수렴하여 삼국의 문화의 체계를 살펴보고 그 공통분모를 끌어내어 그 특징들을 규명하고 비교

해야 한다.

한국 음다 공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여 우리 선조들의 내면에 담겨있는 이상적인 세계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사대부들이 식물의 선정을 화격(花格)으로 승화시켜 표현한 사군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어령의 『국화』·『난초』·『매화』·『대나무』 등을 참고로 해야 한다.

중국의 음다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계성(計成)의 『원야(園冶)』를 통해 차경(借景)의 활용도, 육항(陸杭)의 『중국전통 예술도감(中國傳統藝術圖鑑)』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음다 공간 활용도와 음다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고, 장소선주(庄昭選注)의 『차시 삼백수(茶詩三百首)』 등을 통하여 음다 공간에서 표현한 차의 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정형화된 음다 공간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야나기 무넨요시(柳宗悅)의 『다도와 일본의 美』를 통해 사비(寂)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쓰지노부오(辻惟雄)의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박규태의 『일본정신의 풍경』에서 밀착된 미의식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의 『사상으로 보는 일본문화사』,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등에서는 선종과 함께 전래된 차의 역사와 축소지향의 정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의 음다 공간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그림들을 발췌하여 비교분석하는데 각종 문헌과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음다 공간 구성에 있어 계절별 찾자리의 상관성을 위해서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했던 매화·국화·연꽃·대나무·소나무를 중심으로 「차의 사방도」를 활용하여 계절별 찾자리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음다 공간의 미적 특성과 다수의 관련 문헌들을 통해 융통성 있게 연구 범위를 조절하였다.

## 나) 연구 내용

전통적 음다 공간이 자연의 성정을 통한 단순하고 소박한 정신을 강조한 음다 공간이었다면, 현대의 음다 공간은 소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문화



와 예술의 개념이 혼용된 음다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음다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통적 음다 공간의 특징과 한·중·일 음다 공간의 특징을 조합하여 현대적 음다 공간 문화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음다 및 음다 공간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 등을 먼저 살펴보고, 음다 공간의 정의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차 도구 및 시와 그림에 나타난 배경들을 통해 정신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제3장은 한·중·일 음다 공간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국가 간 문화적 특징이 어떻게 음다 공간을 차별화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와 그림을 통한 한·중·일 음다 공간의 특징과 음다 공간에 깃든 다도사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다 공간의 문화적·예술적·교육적 특징 등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의 문화흐름이 비슷한 맥락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삼국의 음다 공간에 나타난 정신과 삼국의 그림과 곡수연(曲水宴)을 통해 본 음다 공간의 공통점과 기후, 환경, 사상에 따라 달라지는 상이점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은 앞장에서 살펴본 전통 음다 공간의 기능들을 도출하여 현대 음다 공간의 활성화 방안으로 어떻게 전통 음다 공간을 재조명하여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 음다 공간의 활성화·대중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음다 공간을 사교적(소통과 교류), 교육적, 문화적, 예술 및 치유 등의 개념까지 포함된 공간으로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제6장 결론은 음다 공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음다 공간을 통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창출하고, 음다 공간을 교육 및 훈련의 장소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함께하는 음다 공간이 현대가 요구하는 음다 공간의 적절한 형태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음다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제2장 음다 공간의 정의와 구성 요소

### 제1절 음다 공간의 정의

차는 처음 단순한 약에서 출발하여 기호음료로, 사교를 위한 음료로, 문화적 표현의 도구로 발전하였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회화나 문장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자연스럽게 승화되었다. 차는 특히 동양사상을 대표하는 유가에서는 의례의 형식이 강조되어왔으며, 도가에서는 예술성을, 불가에서는 수행하는 명상의 일환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전통적인 음다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최범술은 『한국의 다도』에서 음다는 차를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자세, 차 살림을 하는 방도와 예의·범절 등을<sup>9)</sup>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명배는 『다도학』에서 음다는 찻잎 따기에서 차를 우려 마시기까지 다사로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덕을 쌓는 행위<sup>10)</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석용운은 『한국다예』에서 음다를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하고, 물질개념의 정의를 꿰인 물에 어떤 종류의 식물질을 적당히 첨가해서 우려 마시는 것이라 하였고, 정신개념으로는 차의 법도를 터득할 수 있는 것<sup>11)</sup>이라 보았다.

정영선은 『다도철학』에서 음다를 첫째는 차를 다루고 차를 끓이는 바른 방법이라는 현상적 의미로, 둘째는 바른 다법으로 얻어지는 진리 혹은 지경을 뜻하는 철학적 의미가<sup>12)</sup>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숙은 『다도학개론』에서 음다를 물질적·정신적·예술적으로 구분하여 물질적으로는 차의 어린잎을 따서 가공한 것을 끓이거나 우려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거나 거품을 내어 마시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마음을 맑게 정화하여 문화적 즐거움을 고양시키는 것이라 했으며, 예술적으로는 교제·문화·예술 등 정신문화를 강조했다.<sup>13)</sup>

---

9) 최범술, 『한국의 다도』, 보연각, 1975, p.57.

10) 김명배, 『다도학』, 학문사, 2002, p.115.

11) 석용운, 『한국다예』, 보림사, 1991, p.12.

12) 정영선, 『다도철학』, 도서출판너럭바위, 1996, p.264.

이처럼 음다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로 인해 확장되면서 실리적이고 보편적이며, 때론 예술과 문화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음다 공간과 차문화 공간이라는 두 용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하여 사용하는 것도 음다의 개념이 차문화의 광의적인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다 공간에 대해 오카쿠라 텐신은 『차의 책』에서 음다 공간을 순수한 어울림, 낭만성 등을 가르쳐 주는 곳,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견해를 윤리나 종교와 결합하여 표현하는 곳, 단순함과 편안함으로 참된 정신을 나타내는 곳<sup>14)</sup>이라고 했다.

정영선은 『다도철학』에서 음다 공간은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의 실천적 수양을 쌓아 유가의 이상적 군자가 될 수 있는 곳<sup>15)</sup>이라 설명하고 있다.

왕충런은 『중국의 차문화』에서 음다 공간은 갈등을 해소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화<sup>16)</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음다 공간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정신적 문화 공간으로 보았다.

명대(明代) 허차서(許次紓, 1549~1604)는 음다 공간에 대해서 『다소(茶疏)』 「차 마시기 좋을 때(飲時)」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음과 손이 한적할 때, 책 읽기와 시 읊기에 지쳤을 때, 기분이 어수선할 때, 가곡을 들을 때, 노래가 과하고 악곡이 끝났을 때, 문 닫고 바깥일에서 벗어날 때, 북 치고 거문고를 타며 그림을 볼 때, 밤 깊도록 함께 대화할 때, 밝은 창 옆 깨끗한 책상을 대할 때, 깊숙한 방이나 아름다운 누각에 있을 때, 손님과 주인이 정성스럽게 친할 때, 아름다운 손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벗을 방문하고 막 돌아왔을 때, 날씨가 맑고 바람이 온화할 때, 가볍게 흐리고 가랑비 내릴 때, 작은 다리 아래 그림배를 대었을 때, 무성한 숲과 긴 대숲을 바라볼 때, 꽃을 가꾸고 새를 보살필 때, 연못가 정자에서 더위를 피할 때, 작은 집에서 향을 사를 때, 술 잔치가 끝나고 손님이 갔을 때, 어린이들의 글방을 들여다볼 때, 맑고 조용한 절이나 도관을 찾았을 때, 명천피석에 다다를 때<sup>17)</sup>

13) 엄 숙, 『다도학개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pp.19~20

14) 오카쿠라 텐신, 정천구 옮김, 『차의 책』, 산지니, 2005, pp.15~16.

15) 정영선, 『다도철학』 위의 책, p.32.

16) 왕충런, 김하림·이상호 옮김, 『중국의 차 문화』, 에디터, 2004, p.151.

17) 김명배, 『중국의 다도』, 명문당, 2007, pp.91~92.

이는 음다 공간이 여유로움을 갖고자 하는 의미와 더불어 예술적, 사교적 기능을 포함한 시공을 초월한 또 다른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유·불·선에 통달했던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엄 선사(嚴禪師)를 찾다」 시에 보면, 선사는 여간해서는 술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규보에게 술을 대접하자 시를 지어 사양하였다는 내용이다.

내가 지금 산방을 찾아온 것은	我今訪山家
술을 마시려고 해서가 아닌데	飲酒本非意
올 때마다 술자리 베푸니	每來設飲筵
얼굴이 두꺼운들 어찌 땀이 안 나겠소	顏厚得無泚
스님의 격조 높은 것은	僧格所自高
오직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 때문	唯是茗飲耳
몽정의 새싹을 따서	好將蒙頂芽
혜산의 물로 달인 것이 제일 일세	煎却惠山水
차 한 잔 마시고 한 마디씩 나누어	一甌輒一話
점점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네	漸入玄玄旨
이 즐거움 참으로 청담하니	此樂信清淡
굳이 술에 취할 필요가 있겠나	何必昏昏醉 <sup>18)</sup>

가끔 산방을 방문하여 스님에게 차와 술을 대접받는 이규보의 자유분방한 생활에서 개방된 음다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산방이란 스님이 거처하고 있는 작은 암자를 이르는 말로 세속의 번뇌를 여윈 청정무구한 곳을 가리킨다. 즉 의도적인 의도가 배제된 지극히 멀진한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자연친화적인 곳이 음다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느낌은 그대로 선경에 든 경지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心手間適 披咏疲倦 意緒棼亂 聽歌拍曲 歌罷曲終 杜門避事 鼓琴看畫 夜深共語 明窗淨几 洞房阿閣 賓主款狎 佳客小姬 訪友初歸 風日晴和 輕陰微雨 小橋畫舫 茂林修竹 課花責鳥 荷亭避暑 小院焚香 酒闌人散 兒輩齋館 清幽寺觀 名泉怪石.”

18)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東國李相國後集」 제1권, 고율시(古律詩), 엄 선사(嚴禪師)를 찾다, 고전번역총서.

이규보의 시는 중국 사천성(四川省) 몽산(蒙山)의 정상(頂上)에서 생산되는 차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중국 강소성(江蘇省) 무석현(無錫縣) 혜산천(惠山泉)의 물맛을 빌어 차를 마시는 음다 공간에서 이규보의 차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심오한 경지로 승화하고 있다.

이규보의 차에 대한 표현은 허차서의 「차 마시기 좋을 때(飲時)」의 글처럼 “맑고 조용한 절이나 도관을 찾았을 때(清幽寺觀)” 차가 향기로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의미이다. 즉, 산방은 시공의 개념을 초월한 정신적 의미의 공간으로서 그 시대 차문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규보의 시에 나타난 음다 공간의 정신적 의미는 「영정중월(詠井中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산승이 달빛을 탐하여	山僧貪月光
병 속에 물과 함께 길어 담았네	瓶汲一壺中
절에 다다르면 바야흐로 깨달으리라	到寺方應覺
병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는 것을	瓶傾月亦空 <sup>19)</sup>

위 시는 샘 속의 달을 노래한다는 뜻을 가진 시이다. 이 시는 불교 논리인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정확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세계관을 가진 그에게 어느 공간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차를 마시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다. 이 시에서 음다 공간은 인간생활의 술자리요, 격조 있는 차자리요, 청담이 오고가는 소통의 장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차 마시는 공간 즉, 음다 공간은 대자연이 배경이 되거나 또는 생활공간이나 또는 비생활 공간이 음다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음다 공간은 첫째 몸과 마음을 양생하고 수양하는 공간이요, 둘째 사교와 교류를 위한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요, 셋째 예술창작을 구상하는 공간이요, 넷째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요, 다섯째 오늘날 물질지상주의에 의해 인간성 상실이 되어 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19)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東國李相國後集」 제1권, 고율시(古律詩), 영정중월(詠井中月), 한국문집총간.

인성교육 및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제2절 음다 공간의 변천 및 구분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음다 공간은 가변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추었다. 옛 시와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강, 산, 너럭바위, 루(樓), 정(亭), 대(臺), 현(軒), 당(堂), 옥(屋), 실(室), 암(庵), 초당(草堂)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사대부들이 이곳에서 차를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sup>20)</sup>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음다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1. 음다 공간의 변천

음다 공간의 변천과정을 살피기에 앞서 중국의 음다 변천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한국의 음다의 변천이 중국 음다 변천과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음다의 변천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전한(前漢)시대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에 ‘차를 끓이고 다구를 씻고 정리하며, 무양(武揚)에 가서 차를 사 온다(烹茶盡具 武揚買茶).’<sup>21)</sup> 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는 무양 일대에 음다가 성행했으며 전문적인 다기의 사용과 차가 생활화되면서, 음다 공간의 시원(始原)이 되어 문화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대(漢代, 기원 전 206~220)때 사대부가에서 별도의 차 마시는 공간과 차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진시대(西晉時代, 265~316)에 부함(傅咸, 239~294)의 『사예교(司隸教)』에 의하면

---

20) 이경희, 「주거공간의 차문화 활용에 관한 고찰」, 비교민속학, 제32집, 2006, pp.218~219.

21)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上』,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7, pp.27~28.

남방 촉(蜀)지방의 할머니가 낙양(洛陽)에서 차죽을 팔았다<sup>22)</sup>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다관(茶館)이 형성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 서진(西晉)의 시인이었던 좌사(左思, 250~305)는 하급 관리의 집에 태어나 여동생 분(芬)이 궁중에 여관(女官)으로 들어가자 도읍 뤼양[洛陽]으로 나와서 10년 동안 구상하여 『삼도부(三都賦)』<sup>23)</sup>를 지었다. 이것이 당시 문단의 영수였던 장화(張華, 232~300)에게 절찬 받게 되어 일약 유명해졌다. 뤼양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다투어 필사(筆寫)했으므로 ‘뤼양의 지가(紙價)를 올린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다. 그는 또 오언시(五言詩)에도 빼어나서 섬세화 되는 시풍 속에서도 기골 찬 작풍으로 특이한 존재가 되었고, 서진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아가씨의 응석을 농담조로 노래한 「교녀시(嬌女詩)」는 독특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그의 시를 살펴보면 환소(紈素)와 혜방(惠芳)이라는 아리따고 사랑스러운 두 소녀의 자태와 차를 끓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sup>24)</sup>하고 있다. 서진 시대에 가정에서도 차를 수시로 끓이고 즐겨 마시는 음다 공간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맹양(張孟陽, ?~?)의 「등성도루(登成都樓)」시에서 ‘향기로운 차는 육정(六情·六淸)<sup>25)</sup>에 으뜸이요, 맛은 천하에 퍼져나갔다 (芳茶冠六情 溢味播九區)<sup>26)</sup>는 시구를 통해 이미 남북조 시대에 중국전역에 음다 공간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겼다.

양진남북조 시대(420~581)에는 많은 사대부들에게 차는 사치풍조를 대항하는 도구가 되어 음다 공간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계기로 차문화의 형성 기요, 음다 공간이 더욱 발전하는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남북조 시대를 거쳐 수나라가 통일하기까지 중국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기였다. 이때 뜻있는 지식인들은 난세를 피하여 깊은 산속이나 죽림에서 때를 기다리며 은거생활을 하는 죽림칠현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다주시화(茶酒詩畫)로 시간을 소일하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음다 공간을 보여주었다.

22) 치우지평(裘紀平), 김봉건 옮김, 『茶經圖說』, 이른아침, 2005, p.240.

23) 중국 진(晉) 나라 때의 좌사(左思, ?~306)가 부(賦)의 형식으로 묘사한 위(魏)·촉(蜀)·오(吳) 세 나라 도읍의 변화 상을 그린 작품.

24) 치우지평(裘紀平), 위의 책, p.244.

25) 육정은 사람의 여섯 가지 감정. 희(喜), 노(怒), 애(哀), 낙(樂), 오(惡), 욕(慾)를 이른다. 육청은 물(水). 미음(漿) 단술(주), 약술(醴), 진한 술(醕), 간장(醬)으로 모든 식품의 으뜸으로 해석된다.

26) 치우지평(裘紀平), 위의 책, p.250.



수대(隋代, 581~618)에 들어와서 수 문제 양견(隋文帝 楊堅, 541~604)이 차를 먹고 두통이 치유되어 중국 전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 양제(煬帝, 569~618)의 대운하의 건설은 동서 문화의 교류가 남북 문화의 교류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음다 및 음다 공간 역시 동서 뿐만 아니라 남북을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당대(唐代, 618~907)에 들어 와서는 음다 풍속이 전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새로운 음다 및 음다 공간이 확대되어 나갔다. 이는 수·당을 거치면서 중국문화와 북방의 유목문화 및 남방의 소수민족들의 문화가 융합되는 시기였다. 이로써 음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다. 육우(陸羽, 733~804)의 『다경(茶經)』의 출현으로 음다 공간은 정신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가게 되었다.

『다경』 「사지기(四之器)」에서 다구 8류 24종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나무로 짠 ‘도람(都籃)에 모두 담아’<sup>27)</sup>라는 구절로 보아 실내 공간을 통해 이미 음다 공간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지략(九之略)」의 「사지기」는 다구 8류 24종을 간소화시킴으로 실내를 벗어난 자연 공간에서의 음다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표현해 주었다.

당대(唐代) 현종(玄宗, 685~762) 때 『봉씨문견기』에 산동에서 장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관이 개설되고 차를 끓여 팔았다<sup>28)</sup>는 것으로 보아 음다 공간이 개인적 공간에서 공동체적 공간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대(宋代, 960~1279)는 차문화의 번영기로 당시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다관업이 매우 번창하였음을 장택단((張擇端, 1085~1145)의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을 통해 알 수 있다.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의 다방(茶坊), 다사(茶肆)는 매우 장사가 잘되었다.<sup>29)</sup> 개문칠건사(開門七件事)<sup>30)</sup>에서 보여주듯 일반 서민까지 차가 쌀과 소금처럼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간주되었고 음다 공간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활화 되었다.

조길(趙佶, 1082~1135)의 『대관다론(大觀茶論)』,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

---

27) 치우지평, 위의 책, p.90.

28) 이영매(李永梅), 『茶道 下』, 天津古籍出版社, 2007, p.624.

29) 왕충런, 앞의 책, p.353.

30) 쌀, 찻, 소금, 기름, 창, 초, 차 등이다.

구도찬(茶具圖贊)』에서도 차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로 보아, 당대(唐代) 다구가 예스럽고 소박한 것이라면 송대(宋代) 다구는 화려하고 우아한 것<sup>31)</sup>으로 음다 공간이 점차로 사치스럽고 화려해짐을 알 수 있다.

원대(元代, 1279~1368)에 들어와 음다 공간은 다양성과 이동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졌다. 이는 동서문화의 교류와 함께 유목민이었던 몽고족들의 생활적 특징이기도 하였다.

명대(明代, 1368~1644)는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의 등장으로 단차(團茶)가 폐지되고 산차(散茶)의 등장으로 맛과 향기가 다양한 차의 생산으로 차문화의 중흥기를 맞이했다. 따라서 음다법이 포다법(泡茶法)으로 바뀌어지면서, 다호(茶壺)들의 크기가 다양해지고 차의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다기 사용과 발효차의 등장으로 자사호가 출현하게 됐다. 다서로는 장원(張源)의 『다록(茶錄)』과 허차서(許次紆, 1549~1604)의 『다소(茶疏)』와 「품다도(品茶圖)」등을 통해<sup>32)</sup> 명대의 변화된 음다 공간은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사대부적 성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清代, 1644~1911)는 다연(茶宴)의 풍속이 황실까지 전해지면서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닌 음식과 함께 준비되었는데, 서가(徐珂, 1869~1928)의 『청패류초(淸稗類鈔)』에 차를 이용한 요리들이 기록되어있다.<sup>33)</sup> 강희제(康熙帝, 165~1722), 건륭제(乾隆帝, 1711~1799), 옹정제(雍正帝, 1678~1735) 등 천자들이 차인으로 차의 시를 많이 남겼다. 강희제는 은잔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며 명천(名泉)에서 물의 우열을 가리는 품천(品泉)의 대가였고, 건륭제는 서호용정(西湖龍井) 18그루의 차를 어차(御茶)로 봉하였다.<sup>34)</sup> 이렇듯 차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장려되었으며, 이를 통해 음다 공간이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으며, 이는 천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차문화의 태동은 한나라 시대부터였고, 차 마시는 공간에 대한 개념들도 이때부터 형성되었으며, 중국의 차문화는 한국의 음다공간 형성에도 얼마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음다 공간은 개

---

31) 왕충린, 위의 책, p.302.

32) 염숙·엄영옥,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문화』,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pp.190~192.

33) 염숙·엄영옥, 위의 책, p.204.

34) 염숙·엄영옥, 위의 책, p.200.

방적인 공간(실외)과 폐쇄적 공간(실내)으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읍다 공간은 차문화를 즐겼던 계층들(왕실과 귀족 및 사대부, 승려 등) 사이에서 약간씩 상이점을 가지고 형성되어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 계층에 따라 읍다 공간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사용되는 도구들도 약간씩 다르게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읍다 공간의 구분

읍다 공간의 구분은 시대와 자연환경, 차를 향유하는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의 변화에 따른 읍다 공간은 가변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옛 시·서·화를 통해 살펴보면 강, 산, 너럭바위, 루(樓), 정(亭), 대(臺), 헌(軒), 당(堂), 옥(屋), 실(室), 암(庵), 초당(草堂) 등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사대부들이 이곳에서 차를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35)</sup>

시대별로 구분해보면, 고조선에는 규격화 된 읍다 공간이 아닌 자연그대로의 모습인 들, 뜰, 산, 나무 아래, 냇가 등이었다면, 신라시대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읍다 공간으로 한송정(寒松亭), 경포대(鏡浦臺)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세검정(洗劍亭), 고송정(古松亭), 항미정(杭眉亭), 식영정(息影亭) 등이 있고, 조선시대 읍다 공간은 인공 축조물로 전(殿), 원(院), 누(樓), 정(亭), 대(臺) 등이 있다.<sup>36)</sup>

한편으로는 사대부가의 별서나 사랑채 때로는 규방 안에서도 나름대로 읍다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읍다 공간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점차 인간의 생활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만의 독특한 읍다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의 순응과 동화에서 나온 차문화의 한 형태로 인간의 문화 속에서 그 모습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읍다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실외 읍다 공간과, 실내 읍다 공간으로

35) 이경희, 「주거공간의 차문화 활용에 관한 고찰」, 비교민속학, 제32집, 2006, pp.218~219.

36) 이일희,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 박사학위논문, 2004, p.107.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가. 실외 공간

실외적인 공간이란 차를 마시는데 있어서 자연과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옛 선인들은 자연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을 터득했고 고상한 인격과 몸을 연마했던 곳으로<sup>37)</sup> 속세를 초연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은 음다 공간이 되어 자아 성찰의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소통과 사교의 문화적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실외의 음다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 신라시대 화랑들이 자연과 함께 심신(心身)을 연마하였음을 강릉의 한송정(寒松亭)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고려시대의 노봉(老峯) 김극기(金克己, ?~1209)의 「한송정(寒松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가 사선(四仙)이 노닐던 곳	云是四仙縱賞地
지금까지 남은 자취 기이하구나	至今遺迹眞奇哉
술 마시던 자리 가을 풀 속에 묻혔고	酒臺欹傾沒碧草
차 달이던 아궁이는 이끼 낀 채 나뒹구네	茶竈今落荒蒼苔 <sup>38)</sup>

정자 옆에 찻물을 뜨는 다천(茶泉)과 석부(石釜), 석구(石臼)가 있어 모두 네 선선이 노닐던 곳이다.<sup>39)</sup> 이는 신라의 사선과 차 유적에 관해 기록한 글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동유기(東遊記)』 「묘련사 석지조기(妙蓮寺 石池竈記)」 등을 살펴보면 삼장순암법사(三藏順庵法師)가 천지의 조서를 받들어 풍악(楓岳) 절간에 불공드리고서 그 길로 한송정을 유람하였다. 그 위에 석지조가 있으므로 주민에게 물으니 “대개 옛날 사람들이 차 끓여 마시던 것인데 어느 시대에 만든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였다.<sup>40)</sup> 법사가

37) 왕충런, 앞의 책 p.177.

38) 송재호 외4명, 『한국의 차문화 천년 3』, 돌베개, 2011, p.55.

39) 홍만중(洪萬宗) 지음, 정유진 편역, 『우리 신선을 찾아서』, 돌베개, 2010, p.80.

신라 사선인 술랑(述郎), 남랑(南郎), 영랑(永郎), 안상(安詳)

혼자서 생각하기를 어릴 때에 일찍이 묘련사에서 두 돌그릇이 물속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형상됨을 생각하면 이 물건이 아니었던가 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문헌에 실외의 음다 공간을 활용했던 신라의 사선과 차유적에 관한 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강호(江湖)에 은거하며 청담(淸談)을 즐긴 칠현(七賢)들 중심으로 음다 공간은 늘 자연과 함께 했다. 특히 차문화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이규보가 설계한 이동식 정자를 통해 음다 공간이 자연 속에서 상황에 따라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 보면, ‘… …대체로 사륜정이라 한 것은 농서자(隴西子:이규보)<sup>41)</sup>가 설계하고 아직 짓지는 못한 것이다.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다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앉아서 술잔을 들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며 뜻에 맞는 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한다. 이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이다.’<sup>42)</sup>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권 제2, 奇異篇,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에 충담스님이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렸다는 구절이 있다. “저는 3월 삼진날과 9월 중앙절이면 차를 다려서 남산 삼화령의 미륵 세존께 드립니다. 오늘도 차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충담이 떼고 있는 앵통(櫻筒)을 살펴보니 다구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sup>43)</sup> 이는 이동식 차도구의 시원으로 실외에서 개방된 음다 공간이 연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는 경덕왕 24년 (765년)의 일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연행록(燕行錄)이나 부상록(扶桑錄)에서 보여 준 실외의

40) 이제현(李齊賢), 「익재난고(益齋亂藁)」, 「益齋亂稿卷第六」, 記, 妙蓮寺石池竈記, 한국 문집총간.

‘三藏順菴法師奉天子之詔 祝釐于楓岳之佛祠 因游寒松之亭 其上有石池竈焉 訊之士人 蓋昔人所以供茗飲者 而不知作於何代.’

41) 이규보가 자칭한 것인데, 중국의 이씨가 근본은 농서 사람이라 하여, 이규보도 자기 성이 이(李)라 하여 ‘농서자(隴西子)’라 하였다

42) ‘夫四輪亭者 隴西子畫其謀而未就者也 夏之日 與客席園中 或臥而睡 或坐而酌 圍棋彈琴 惟意所適 窮日而罷 是閑者之樂也.’

‘비록 취미라 하지만 여기에서는 차와 꽃이 소원(疏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수많은 다시(茶詩)와 꽃에 관한 시가 상당수 있다./허충순, 『한국의 다석화』, 시선, 2003, p.22.

43) 일연, 김원중 옮김, 『三國遺事』, (주)민음사, 2010, p.172.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음다 공간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의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 정월 11일, 「유리창(琉璃廠)에 가다」에서 ‘… …이 옥고 차를 권하는데 계화차(桂花茶)가 연이어 나오니 매우 향기로워 다른 차가 비치(備置) 못할 것이다.’<sup>44)</sup> 라는 기록으로 보아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용차까지 즐겨 마셨으며, 조선 후기의 서호수(徐浩修, 1736~1799)의 『연행기』에서도 ‘절에는 라마승 주지(喇嘛僧住持)가 있었다. …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다. 또 낙차(酪茶)와 소병(酥餅)과 진조(榛棗)와 포도 등을 준비하여 삼사(三使)를 대접하였다. 차와 떡은 향기롭고 달며 담박하고, 포도 또한 맑고 시원하였다’<sup>45)</sup>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를 다반사로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원직지(燕輶直指)』에 보면, ‘천복사(荐福寺)에서 100보 남짓 떨어진 곳은 바로 태액지(太液池) 서쪽 독이다. … …명나라 천순(天順) 연간에 태소전(太素殿) 뒤에 초정(草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나, 이것이 그 옛터라 한다. … …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정자에서 놀며 차를 끓이다가 불을 낸 일이 있는데, 그 뒤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요즘 다시 허락하였는데, 용택정 기둥 하나에는 아직도 그을린 흔적이 있다.’<sup>4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다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의 『부상록(扶桑錄)』에는, ‘명고옥(名古屋) 나고야에 닿았다. … …서쪽에 대교(大橋)가 있어 그 밑으로 배가 통한다. 남으로 10여 리의 거리에 다시 해문(海門)이 있는데, 염분(鹽盆)과 장사배가 곳곳에 벌여 있어 생선과 소금 생산의 이익이 가장 많다.’

작은 용단을 달이니

烹得小龍團<sup>47)</sup>

아침 연기가 길가에서 나네

朝煙生路畔

도덕 높은 중이 도의를 입고

高僧披道衣

44) 홍대용 지음, 장운식 옮김, 『을병연행록 1』, 도서출판 경진, 2012, p.376.

45) 서호수(徐浩修), 『연행기(燕行紀)』 「연행기제1권」, 진강성에서 열하까지[起鎭江城至 熱河], 경술년(1790, 정조 14) 7월(1일-15일), 고전번역총서.

46) 박사호(朴思浩), 『연원직지(燕輶直指)』 「연원직지제4권」, 「유관록(留館錄)」 중 계사년(1833, 순조 33) 1월(1일-13일), 오룡정기(五龍亭記). 고전번역총서

數十年前 我人遊此亭 煎茶失火 自此見阻 近復許入 而龍澤一楹尙有煤痕.

47) 송 나라 때에 지방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차(茶)에 용단다(龍團茶)라는 종류가 있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번창한 부둣가의 모습이 상상된다. 소금과 생선을 가득 실은 배들은 부(富)의 상징이다. 모든 물품들이 풍성한 항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손님들로 부산스럽다. 차를 파는 가게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光)시대로 다점(茶店)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끼고 있는 번창한 부둣가의 모습이 상상된다. 모든 물품들이 풍성한 항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손님들로 부산스럽다.

가는 곳마다 차 달이는 연기 길 옆에 자욱한데	隨處茶煙擁路傍
손으로 금사발 쥐고서 신선의 차를 올리네	手持金盃進瓊漿
촉도(巴蜀)에 사마상여(司馬相如) 영접한다 자랑 말라	休誇蜀道迎司馬
당년의 소갈증 치료하지 못했네	未慰當年渴病長 <sup>49)</sup>

전한(前漢)시대 부(賦)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 초사(楚辭)를 조술(祖述)한 초(楚)때의 송옥(宋玉, 기원 전 290~기원 전 222)·전한(前漢)때의 가의(賈誼, 기원 전 200~기원 전 168)·전한(前漢)때의 매승(枚乘, ?~기원 전 140) 등에 이어 ‘이소재변(離騷再變)의 부(賦)’라고도 일컬었던 사마상여(司馬相如, 기원 전 179~기원 전 117)의 시에서는 가는 곳마다 음다 공간이 있음과 차의 존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차를 파는 가게에서 차 달이는 연기가 자욱함은 손님들이 많은 음다 공간이다. 금잔에다 주는 융숭한 차 대접을 받으며 마시는 차는 신선의 차와 비교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준다.

차문화의 대중화로 인해 음다 공간이 정자나 개인의 주거형태를 벗어나 대중적인 공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외의 개방된 음다

48) 남용익(南龍翼), 『부상록(扶桑錄)』 「부상일록(扶桑日錄)」 9월 작음 19일(경자庚子), 국학원진.

49) 남용익(南龍翼), 『부상록(扶桑錄)』 「부상일록(扶桑日錄)」 9월 작음 19일(경자庚子), 국학원진.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소갈병(消渴病)이 있었으나 차대접은 받지 못하고 위엄만 과시했다. 촉에 갔던 사마상여보다 자신이 더 대접 받는다는 뜻이다.

공간에서 최고의 차를 접대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평양부(平壤府) 동월(董越, 1430~1502)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새벽 바람이 목란(木蘭)배로 불어오는데 돛대를 의지하여 술잔을 멈추고 푸른 강을 바라보네. 물가의 나무는 연기를 띠고 나무에 늘어섰고 어부(漁父)의 도롱이는 비를 맞으며 낚시터에서 있구나. 얼음 같은 소반에 회(膾)를 써니 은실이 가늘고 돌술에 차를 달이니 눈 같은 물결이 번득이네. 벌써 전구(前驅)에게 떠날 채비 분부했으나 술 한 병 더 마시고자 주인을 위해 머무르노라.<sup>50)</sup>

그는 해안의 이른 새벽의 풍정을 노래하고 있다. 새벽바람을 가르며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에 어부가 낚시로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회로 쳐서 한 잔의 술과 먹는 그 맛은 대단한 진미(珍味)일 것이다. 한쪽에는 돌술에서 달이는 차 연기가 바다의 은빛물결과 교차하여 눈같이 하얗게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해 갈 길이 아무리 바빠도 술 한 병을 더 주문하는 여유 있는 풍류객(風流客)의 마음을 풀어 놓은 글이다. 선상에서도 차 끓이는 돌술이 준비되어있을 정도로 차 마시는 것이 다반사화 되어있었다. 이처럼 실외의 개방된 공간이 음다 공간으로 술과 차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 「향림정(香林亭)」에 보면, ‘향림정은 조서전(詔書殿) 북쪽에 있다. 낙빈정 뒤에서부터 길이 나서 산으로 올라가, 관사에서 1백 보 가량 되는 산 중턱 위에 세워져 있다. 누운 소나무와 괴석에 여라(女蘿, 이끼)와 칙덩굴이 서로 어울리고, 바람이 불면 서늘하여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된다. 정사와 부사는 여유가 있는 날에는 언제나 상절의 관속들과 차를 끓이고 그 위에서 바둑을 두며 종일토록 담소하니,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고 무더위를 물리치는 방편’<sup>51)</sup>이라고 하여 향림정(香林亭)의 자연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향림정에서 여유가 있는 날, 상절의 관속들과 함께 마시는 차는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편이다. 여기에 나오는 향림정은 고려

---

50) 이행(李荇),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제51권」, 평안도(平安道) 평양부(平壤府), 고전번역총서.

51) 서궁(徐兢), 『고려도경(高麗圖經)』 「선화봉사고려도경」 제27권, 관사(館舍) 향림정(香林亭), 고전번역총서.



사대부들이 즐기는 차문화의 음다 공간으로서 더 없이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낙빈정 뒷산 중턱에 자리한 향림정의 개방된 음다 공간은 최고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고려시대 차문화의 한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조선 전기의 서거정(徐居正, 1420~1488)도 「달을 대하여 차를 마시다」에서 달빛 아래 차 마시는 운치를 읊었다.

앉아서 반 바퀴쯤 된 달을 마주해	坐對半輪月
조용히 석 잔의 차를 기울이노니	爲傾三椀茶
어떻게 하면 두 날개를 달고 가서	何由插兩翼
천상의 계수나무 꽃을 완상할꼬	去賞天桂花 <sup>52)</sup>

청명한 어느 날 우주의 대 기운을 느끼며, 밤하늘의 달빛아래서 홀로 마시는 차는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차요 최상의 음다 공간이다. 석잔 짜 차를 마시는 서거정에게서 노동(盧叟)의 「칠완다가」를 생각하게 한다. 삶의 구차함을 잠시 뒤로 하고 한 잔의 차가 주는 정신적 즐거움으로 한결 가벼워진 마음에 양쪽 겨드랑이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 달에 있는 계수나무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은일처사의 순수한 마음에서 차 맛의 극치가 느껴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한송정」, 「묘련사 석지조기」, 「사륜정기」, 『을병연행록』, 『연원직지』, 『부상록』,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도경』 「달을 대하여 차를 마시다」 등을 통해 본 실외의 개방된 음다 공간은 사교와 문화교류의 공간으로서의 몫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나. 실내 공간

차를 마시기 위한 실내 공간으로서 일본의 다실을 들 수 있다. 차를 마시

---

52)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사가시집」 제28권, 시류(詩類), 달을 대하여 차를 마시다, 고전번역총서.

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다실은 한국과 중국에는 별도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6세기이후에 등장한 다실의 형식은 무사들의 전국시대에 상호간의 냉혹한 관계 속에서 차라는 매개를 통해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도입되고 발전해 왔다. 이처럼 각국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화의 형성 과정 속에 녹아있는 역사적 배경 등을 알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실내 음다 공간은 음다 문화 계층들의 삶의 터전으로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었다. 왕실에서는 중죄인을 다스리기 위해 회의했던 회의장이거나 경연 장소 등이 되기도 하고 사대부가에서는 사랑방이나 글을 읽던 공간이나 스님들의 선방 장소 등이 되기도 하였다.

李奎報(이규보)의 「八月二日(팔월이일)」시에서 선방이 실내 음다 공간임을 표현하고 있다.

선방에서 밥을 먹고 잠깐 차를 마셨는데	食罷禪房暫啜茶
산 중턱의 붉은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네	半山紅日已西斜
앉아서 뜰 가에서 사람 길들이는 학을 부르고	坐呼階畔馴人鶴
누워서 문 앞의 도적을 경계하는 거위 소리를 듣는다	臥聽門前警盜鵝
수많은 버들 그림자 속으로 길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萬柳影中南北路
온 시내 물소리 나고 건너편엔 두세 집이 있구나	一溪聲外兩三家
문득 시구를 얻으면 벽에 쓰려니	卒然得句聊題壁
노승에게 말을 전해 거미줄 치지 못하게 해 주오	寄語闍梨莫暮紗 <sup>53)</sup>

당말(唐末)의 최각(崔珏, ?~?)의 「한잔 차를 아름다운 여인에게(美人嘗茶行)」라는 시를 통해서 여염집에서의 실내 음다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구름 같은 머릿결 베개에 떨구고 곤한 봄잠에 빠졌는데	雲鬢枕落困春泥
서방님은 멧돌에 고이 갈아 말차를 만드네	玉郎爲碾瑟瑟塵
한가로이 앵무 시켜 창을 쏘아 소리내게 하여	閑教鸚鵡啄窗響
아리따운 미인의 깊이 든 잠 깨웠네	和嬌扶起濃睡人
은병에 담은 샘물 한 그릇	銀瓶貯泉水一掬
송풍회우(松風檜雨)소리에 차거품 익네	松雨聲來乳花熟

53) 송재소의 4명, 『한국의 차문화 천년 3』 앞의 책, p.88.

앵두 같은 입술로 푸른 구름 마실 때	朱脣啜破綠雲時
목 안으로 향기들이키니 상쾌한 예쁜 얼굴	咽入香喉爽紅玉
밝은 눈망을 점차 열리니 가을물 어린 듯	明眸漸開橫秋水
거문고 뜯어보나 취한 마음 일어나	手撥絲篁醉心起
탁자 앞에 앉아 금쟁을 밀쳐 놓고	臺前却坐推金箏
말없이 생각에 잠기네 꿈 속 일을	不語思量夢中事 <sup>54)</sup>

어느 나른한 봄날 곤히 낮잠을 자고 있는 부인을 바라보며 부인을 위해 정성스런 마음으로 차를 달여 내는 광경이다. 잠에 취한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지난 젊은 날을 회상하는 남편의 애정 어린 마음은 ‘앵무새 시켜 창을 쪼아 소리내게 하여 아리따운 미인의 깊이 든 잠을 깨웠네’ 라는 시구에서 표현되고 있다. 부부의 일상적인 실내 공간이 이들의 음다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당자송점(唐煮茶點)이란 말이 있듯이 당대는 떡차로 차 술에 찻가루를 넣고 끓이는 자다법(煮茶法)과 송대는 연고차로 다완에 찻가루를 넣고 물을 붓고 차선으로 격불하여 거품을 일구는 점다법(點茶法)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당대의 자다법이다.

남송(南宋)의 육유(陸遊, 1125~1209) 「차를 마시며 아이들에게 말하다(啜茶示兒輩)」시에서 가정의 일상을 읊은 시다.

둥글게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조용히	圍坐團樂且勿嘩
식후에 차 한 잔씩 나누네	飯余共舉此甌茶
도의(道義)를 알아들으면 더 무얼 바라라	粗知道義死無憾
나 이제 늙어 삶의 끝자락에 섰구나	已迫老期生有涯
시골 마을엔 온통 꽃으로 가득하고	小圃花光還滿眼
높은 성엔 때를 알리는 밤 북소리 들리는구나	高城漏鼓不停撾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웃어 버리겠지만	閑人一笑眞當勉
차 마시기 힘든다면 가끔은 술 마신다 해도 상관없겠네	小榼何妨問酒家 <sup>55)</sup>

육유는 노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음다 시간을 마련하였다.

54) 조근대, 김길자 옮김, 『中國茶詩』, 현암사, 1999, 106~107.

55) 장소선주(庄昭選注), 『茶詩三百首』, 南方日報出版社, 2003, p.254.

이 자리에서 술을 좋아하는 자손들에게 정의와 애국에 대해 훈시하며 차 마시기를 더 힘쓴다면 가끔 술을 해도 누가 탓하겠나며 타이르고 있다. 이는 육유가 살던 송나라 때 가정의 일상생활에 까지 음다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과 이를 통해 각 가정이 실내 음다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동국이상국집)』 「고우가(苦雨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겨운 비 한 달 동안 강물을 쏟듯하여	愁霖一月如懸河
독 안의 좋은 술 향기 이미 변했으니	甕中美酒香已訛
어찌 마실 것이며 마신들 취하겠는가	詎可酣飲令人醺
상자 속의 좋은 차는 맛이 많이 변했으니	箱底芳茶實味多
끓여 먹은들 잠을 쫓지는 못하리라	不堪烹煮驅眠魔
나는 다행히 문 닫고 양병하고 있으니	我幸杜門聊養痾
갑자기 마음 내켜 고우가를 짓는다	率然忽作苦雨歌 <sup>56)</sup>

이규보는 우기(雨期)중에는 차의 성분이나 술맛이 변질되어 효능이 감소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이처럼 차와 술은 서로에게 좋은 공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루한 장마철에 방안에서 답답함을 달래며 소중하게 상자에 넣어 보관한 차와 술의 변질을 걱정하면서 지은 시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차와 술은 기호음료로 사랑을 받았다. 실내 음다 공간에서 직접 차를 끓이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교감이 많아 한 편의 시로 표현하고 있다.

고려 말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돌솥에 차를 다리며(石鼎煎茶)」시에서 차 끓는 소리를 즐기는 마음을 읊었다.

보국(報國)에 공이 없는 늙은 서생	報國無效老書生
차 마시기 버릇 되니 세정(世情)을 모르노라	喫茶成癖無世情
눈보라 휘날리는 밤 그윽한 서재에 홀로 누워	幽齋獨臥風雪夜
돌솥의 솔바람 소리 즐겨서 듣는다오	愛聽石鼎松風聲 <sup>57)</sup>

56)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전집제10권」, 고율시(古律詩) 고우가(苦雨歌).

57) 정몽주(鄭夢周), 『포은집(圃隱集)』 「圃隱先生文集」 卷之二, 詩, 돌 솥에 차를 다리며

나이 들어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차 마시는 일이 일과가 되어버린 정몽주의 어는 겨울밤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눈보라 휘날리는 깊은 겨울밤에 온기 가득한 방안에 홀로 누워, 돌솥에 차가 끓고 있는 소리를 듣는 즐거움은 당시의 사대부들의 운치 있는 취향 중에 하나였다. 이처럼 실내 음다 공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조선 전기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차를 끓이며(煮茶)」에서 답답한 심사를 차로 달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솔바람 가볍게 일어 차 끓이는 연기	松風輕拂煮茶煙
하늘하늘 간들거리며 시냇가에 나부끼네	裊裊斜橫落澗邊
동창에 달 달 떠도 아직 잠 못 이루고	月上東窓猶未睡
작은 병 들고 돌아가 차디찬 샘물 길네	挈瓶歸去汲寒泉
날 때부터 세상 싫어하는 천성, 스스로 괴이하지만	自怪生來厭俗塵
문에 들어가 봉(鳳)자 찾으니 이미 청춘을 다 보냈네	入門題鳳已經春
차 끓이는 누런 잎 그대는 아시는가?	煮茶黃葉君知否
시 쓰며 숨어사는 일 누가 알까 두렵네	却恐題詩洩隱淪 <sup>58)</sup>

어느 날 동창에 달이 밝게 비추자 잠 못 이루는 매월당은 이른 새벽 맑은 샘물을 길어오는 모습에서 사대부로서 수신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어디에도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은둔과 방랑생활로 평생을 보낸 흔적들이 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차 끓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벗이었을 것이다. 솔바람 가볍게 일어 차 끓이는 연기를 보면 하늘하늘 간들거리며 시냇가에 나부끼는 연기 자락에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매월당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실내 음다 공간이 느껴진다.

조선 후기의 형암(炯庵) 이덕무(李德懋, 1741~1793), 「관현(觀軒)에서 차를 마심」에서 보여주는 실내 음다 공간에서 한가로움을 표현하였다.

(石鼎煎茶), 한국문집총간.

58) 김시습(金時習), 『매월당집(梅月堂集)』 「梅月堂詩集」卷之五, 詩, 차를 끓이며(煮茶), 한국문집총간.

청옥 안에 그대와 마주앉아	倚君青玉案
차 마시며 이야기 길어지네	茗飲話俱長
여뀌 밭에는 못 벌레 소란하고	蓼刺繁蟲鬧
매미 소리 온 나무 숲 차지했네	蟬專一樹涼
가을 서재에는 노는 날이 제격이요	秋齋聊暇日
비 갠 주렴엔 새 별이 따스하다	晴箔暖新陽
갑자기 선경에 노니는 듯	忽若遊方外
속된 생각 절로 잊어지네	形骸澹自忘 <sup>59)</sup>

자연에서 들려오는 못 벌레들의 소란스러운 합창이 끝나고 갑자기 적막해지는 것이 정녕 가을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비 갠 후에 밭에 스미는 햇살이 유난히도 깨끗하다. 가을 서재에 벗과 마주앉아 차를 마시며 선경에 노니는 듯 청결하고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실내 음다 공간으로 잠시 직무를 벗어난 모처럼의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조선 후기의 해거재(海居齋) 홍현주(洪顯周, 1793~1865)의 「손자 홍승억의 시에 차운하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녹음방초 우거진 만백성의 집	綠陰芳樹萬人家
곳곳에서 생활소리 해 저물도록 들리네	幾處笙歌到日斜
낮잠에서 막 깨어나니 차가 반쯤 끓고	千夢初醒茶半熟
밭은 석양빛에 석류꽃처럼 아롱지네	午簾紅映石榴花 <sup>60)</sup>

한말(韓末)의 항일운동가 이남규(李南珪, 1856~1907)는 『수당집(修堂集)』 병소서(并小序)에서 답답한 심정을 차로 달래고 있다.

술 대신 차를 끓이고 나물로 안주를 삼아라	烹茶替酒菜爲肴
산 생활이 마치 대나무집 같다네	聞說山居似大茅
청려장을 휘저으며 찾아가고 싶지만	一杖青藜便欲往
나부끼는 백발을 어떻게 버리랴	數莖白髮那由拋

59)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청장관전서제9권」, 아정유고1(雅亭遺稿一),

시 1, 관헌(觀軒)에서 차를 마심, 고전번역총서

60) 송재소·유홍준·정해림 옮김,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돌베개, 2009, p.221.

문간을 지나는 자 유심경이라 비웃겠지  
 만남 손님 무구포라 하든 말든 관계 않네  
 도연명은 본래 아는 이가 적은데도  
 벼슬 버리고 돌아가 친구를 잊었다네

過門應笑有心磬  
 對客任稱無口匏<sup>61)</sup>  
 陶令本相知近隘  
 解官歸去息朋交<sup>62)</sup>

일본인의 눈을 피해 잠시 은신해 있는 상황에서 주변사람들도 멀리하고, 가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휘적휘적 나서고 싶지만, 그저 과묵하게 때를 기다리는 심사가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술 대신 차를 끓이고 나물로 안주를 삼는(烹茶替酒菜爲肴)”다는 시구(詩句)에서 어두웠던 시국에 궁핍한 살림에 한 잔의 차가 위안이 되어주었고 도연명의 삶을 빗대어 잠시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고우가(苦雨歌)」, 「돌 솥에 차를 다리며(石鼎煎茶)」, 「차를 끓이며(煮茶)」, 「관헌(觀軒)에서 차를 마심」, 「손자 흥승억의 시에 차운하다」, 『수당집(修堂集)』에서 나타났듯이 실내 음다 공간은 자신을 수신하는 공간이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때로는 은거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3절 음다 공간의 구성 요소

음다 공간의 구성요소는 실내구성에 있어 다구(茶具)와 그 외의 음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식 및 소품들이 있다. 음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음다 공간에서 음다와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구의 차 도구 또는 다구·다기(茶器)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다 공간에서 음다를 위한 간접적으로 필요한 장식물이나 소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음다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예로부터 중요시 되어

61) 아귀가 없는 호리병박. 송(宋) 나라의 어진 정승 이항(李沆)이 매우 과묵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구포’라 했다

62) 이남규(李南珪), 『수당집(修堂集)』 「수당집제1권」, 시(詩), 속정원록(續貞元錄), 병소서(并小序), 고진번역총서.

왔다. 이중 음다 공간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차도구(茶道具)·장식물(裝飾物)·다화(茶畵)·다시(茶詩)를 위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차도구(茶道具)

차도구(茶道具)는 광의적 의미로 차를 마시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을 일컫는다. 협의적으로는 다기(茶器)의 의미를 뜻한다. 차도구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들이 산천을 유람하며 수련을 위해 차를 마셨던 다구들과 충담사가 귀정문 누에서 경덕왕에게 진다했던 다구들은 모두 야외용 다구들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가정(稼亭) 이곡(李穀, 1298~1351)이 쓴 시 「한송정(寒松亭)에서 예천군(醴泉君)이 제한 시에 차운하다」를 보면, “선인이 떠난 뒤 철거된 한송정이요, 산이 숨겨 놓아 보존된 돌 아궁이라(仙去松亭廢 山藏石竈存)”<sup>63)</sup>라는 대목이 있다. 한송정(寒松亭)은 신라 때 술랑(述郎) 등 네 명의 선인이 노닐었다고 하는 곳인데, 유람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고을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오직 돌 아궁이(石竈)와 돌못(石池)과 두 개의 돌우물(石井) 등 사선(四仙)이 차를 달일 때 썼던 다구만 그 옆에 남아 있더라는 기록이 나온다.

신라시대에는 대표적인 묘련사 석지조(妙蓮寺 石池竈)가 있다. “사방을 말(斗)처럼 모나게 다듬고 가운데 확(臼)처럼 둥글게 팠으니 이는 샘물을 담으려고 한 것이요, 밑에다 口자(字)모양의 구멍을 냈으니 이는 찌꺼기를 씻어낸 다음 다시 막아 맑은 물을 담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두 개의 오목(凹)한 것인데 둥근 데는 물을 담는 것이요, 타원형인 데는 그릇을 씻는 곳이다. 둥글게 파인 곳에 바람이 통하여 이를 합하여 이름 하기를 석지조라 하였다.”<sup>64)</sup>라 한 것으로 보아 세월은 가도 다구의 흔적만 남아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

63)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가정집제19권」, 율시(律詩), 한송정(寒松亭)에서 예천군(醴泉君)이 제한 시에 차운하다, 고전번역총서.

64) 고세연, 『차의 미학』, 도서출판 초의, 1994, p.73.



다.

고려 말의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홍취를 풀다」에서도 돌솥에 차 끓는 소리에서 불현듯 묘연사가 생각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푸른 산은 참으로 권력을 부리는구나	靑山眞箇是招權
문만 열면 때때로 책상 앞에 서네그러	排闥時時立案前
모든 일이 앞에 당하면 의당 참아야 하리	萬事當頭須地忍
한 마음 스스로 만족함이 되레 천연이랴오	一心自足却天然
강가 누각의 달빛은 감로사가 생각나고	江樓月色思甘露
돌솥의 차 끓는 소리는 묘연사가 기억나네	石甕松聲憶妙蓮
역력한 옛 놀이터에 푸른 이끼만 끼었어라	歷歷舊遊蒼蘚合
노파(蘇軾)는 신선 끼고 노닐을 부러워했었네	老坡曾羨挾飛仙 <sup>65)</sup>

고려 시대에 시 속에 나타난 차 도구 특히 탕관을 보면 거의 돌솥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도경(高麗圖經)』 「기명(器皿)」편에 “고려 사람들은 다구를 잘 만드는데 금색 꽃무늬가 그려진 검은 잔인 금화오잔(金花烏盞), 비색의 작은 찻잔인 비색소구(翡色小甌), 은제 세발화로인 은로탕정(銀爐湯鼎) 등이 나오고, 숙소 안에 붉은 소반을 놓고, 그 위에 다구를 두루 진열한 다음 붉은 망사 보자기(紅紗巾)로 덮는다”<sup>66)</sup>는 내용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들의 화려한 다구는 재질이 금·은·도자기, 나무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색 꽃무늬가 그려진 검은 잔인 금화오잔과 비색의 작은 찻잔인 비색소구, 은제 세발화로인 은로탕정, 소반 등의 등장은 다양한 다구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탕관(湯罐)을 보면, 그들이 남긴 시구에서 석정(石鼎)으로 돌솥을 많이 써 왔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다시(茶詩)에 성정(省鼎)을 비롯해 철관(鐵罐)·소정(小鼎)·소관(小罐)<sup>67)</sup> 등이 시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분청청자에서 백자로 전환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러 도자기의 유물들

65)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8권, 시(詩). 홍취를 풀다, 고전번역총서.

66) 서궁(徐兢), 조동원 옮김,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p.384.

67) 고세연, 위의 책, p.81.

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규보 시에 ‘돌 솥에 차를 끓이니 향기로운 젓이 희고 벽돌 화로에 불을 붙이니 저녁놀같이 붉구나(石鼎煎茶香乳白 塶爐撥火晚霞紅),<sup>68)</sup> 고려 말의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의 시에 ‘돌솥에 차 끓인 게 삼절 중의 으뜸인데 아이가 대 사이의 샘물을 막 길어오누나(石鼎煎茶三絕最 小童新汲竹間泉),<sup>69)</sup> 조선 전기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시에 ‘차 끓는 소리는 작은 솥에 시끄럽고 등불 그림자는 남은 병을 비추누나(茶聲喧小鼎 燈影照殘缸)’<sup>70)</sup>라고 표현했듯이 석정(石鼎)을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신라 때는 어떤 꾸밈이나 형식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음다 공간의 다구였음을 추측할 수 있고, 고려 때는 차문화의 황금기로 다구들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차 마시는 계층의 폭이 넓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에 들어서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 다구의 디자인도 단순해지면서 실용성이 우선시 되어 갔다. 조선 중기 두 차례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침체되는 시기로 차도구 역시 다양하지 못하였다. 조선 후기 영조~정조시기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면서 문화가 다시 꽃 피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예술품들이 등장하게 되고 차도구 역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사랑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구의 변천을 통해 그 시대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었다. 최근의 다구사용은 어떤 규칙에 억매이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 2. 음다 공간의 장식물

---

68)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전집」 제17권, 고율시(古律詩), 잠시 감불사(感佛寺)에서 놀다가 주지(住持) 노비구(老比丘)에게 줌, 고전번역총서.

69)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8권, 시(詩), 회포를 서술하다, 고전번역총서.

70) 서거정(徐居正), 『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 제6권, 오언율시(五言律詩), 야영(夜詠), 고전번역총서.

사대부들은 실내 생활 속에서도 늘 대자연을 가까이 하려 하였다. 그들이 기거하는 공간에 자연의 일부를 들여 놓기를 원하였다. 꽃과 괴석, 때로는 그러한 자연물들을 화폭에 담아 방안에 걸어두며 완상하기를 즐겨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기거 공간 속 예술품으로 가구와 문방기물과 담백하고 원숙한 도자기, 사대부의 정신이 담긴 글과 그림 등이었다. 그들의 읍다 공간은 속세의 명리와 편안함을 멀리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몰아일체의 대상이었다.

읍다 공간의 장식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를 아름답게 치창(治粧)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가구의 선과 면의 배분은 방의 벽면의 여백과 조화되고 실내의 기물들과도 서로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한 목재의 재질, 나무의 결, 색깔 등 목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구를 제작하였다. 사대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방은 읍다 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 이 공간에는 서안(書案)·문갑·탁자·책장 등이며, 대체적으로 검소하고 소박한 장식성을 보이고 있다. 가구에 장식된 문양에서도 효제충신(孝悌忠信) 등의 「문자도(文字圖)」,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이 있으며, 사대부의 청빈한 사상을 의미하는 매·난·국·죽의 사군자는 군자의 상징으로 단순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특히 병풍은 실용성과 장식미를 겸비한 훌륭한 예술품으로서, 방풍(防風)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장식용 등의 여러 가지 기능과 특징이 있다. 병풍은 오랜 세월동안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왔으며 시대흐름과 역사에 따라 여러 발전 과정을 거쳐 종이 날개 형태의 접이식 병풍으로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종이로 날개 형태의 접이식 병풍을 창안함으로써 병풍문화 발전 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온돌방구조를 지닌 한국은 병풍의 쓰임이 다양했다. 바람막이로 바람을 다스리는데 사용했고, 작은 방안에서는 여인들의 어지러진 모습을 감춰주고, 아프고 병든 사람이나 옷을 갈아입을 때 외딴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그 구실은 쓸모가 많았다. 더욱이 궁중에서는 가리고 감싸는데 쓰였던 것으로 잘 알려진 바다.<sup>71)</sup>

71) 이블린 맥퀸(Evelyn B. McCune)지음, 김서영 옮김, 『한국의 병풍』, (주)보진제, 1997,

신라의 기록에는 신무왕 668년에 일본 나라(奈良)시에 있는 궁성에 비단병풍이 보내진 것을 적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는 가장 이름난 것으로 고려 때에 검은 칠을 한 것으로 양쪽 면에 부처님을 금으로 그렸으며, 1307년 노영(盧英)이 그린 것이다. 1488년에 조선에 온 명대(明代)의 사신이 동유에(董越) 그의 기행문 조선부(朝鮮賦)에서 조선이 풍속이 중국과 다르다고 말한 가운데 침상이 방장으로 가려지지 않고 8폭 병풍으로 둘러 쳐졌다고 보고하고 있다.<sup>72)</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국사기』에 신라시대의 신분제도를 나타낸 항목에 진골과 육두품은 병풍에 수(繡)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관청의 사면에 꽃을 수놓은 병풍을 쳐놓았다는 기록과 목화병풍을 하인에게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작품은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다.<sup>73)</sup> 그러므로 병풍의 역사는 고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357년 고구려 고분 중 안악고분3호의 벽화 그림 속 주인공이 앉아있는 좌상 주위에 아주 나지막한 병풍그림이 둘러 쳐져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병풍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차단하며 그림 감상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하나의 실용가구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꽃피운 사대부들의 정신세계가 담긴 문인화와 사군자(四君子)의 병풍과 민화 등으로 그려졌다.

사군자는 매화(梅花), 난초(蘭草), 국화(菊花), 대나무(竹)로 중국 명나라 진계유(陳繼儒, 1558~1639)가 「매난죽국보(梅蘭竹菊譜)」에서 사군자라 부른 데서 유래된 말이다. 유교 문화권에서 군자에 비유되어 왔으며, 동양화의 소재가 되어 왔다. 각각 봄의 매화, 여름의 난초, 가을의 국화, 겨울의 대나무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성행, 조선에 계승되어 사대부의 유교 교양의 일부로 널리 퍼졌고, 남종화파(南宗畫派) 중 문인화가들이 즐겨 그렸다. 조선 중기의 화가 설곡(雪谷) 어몽룡(魚夢龍, 1564~?)은 묵매도로, 탄은(灘

---

p.6.

72) 이블린 맥퀸(Evelyn B. McCune)지음, 김서영 옮김, 『한국의 병풍』, (주)보진제, 1997,

p.9.

7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병풍」 조

隱) 이정(李霆, 1541~1622)은 묵죽도(墨竹圖)로 이름을 떨쳤다.

사대부들의 서재에 필수품이었던 문방사우(文房四友)는 문방사보(文房四寶)·문방사후(文房四侯)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옛 부터 문인의 서재를 문방이라 하고 수업의 장으로 존중해왔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문방사우의 애완 풍조가 더욱 고조되고, 문방구의 종류도 연적(硯滴)·필세(筆洗)·도장 등 45종에 이른다. 문방사우가 지닌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종이[紙, 한지]는 붓, 먹, 벼루의 멋이 깃든 문방문화의 그릇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나 그림뿐만 아니라 편지를 썼던 화전지(花箋紙)는 문양을 찍어 장식하기도 했는데 먹의 농담(濃淡)에 따라 각각의 그림을 그려 소소한 일상의 멋을 자아내기도 했다.

전통 붓[필, 筆]의 속성은 선비의 미덕을 의미한다. 겉은 부드럽되 속은 강한 외유내강의 성질은 옛 선비들이 붓을 통해 은근하면서도 강렬한 전통문화를 이어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문방사우 중에 고색창연한 색과 그윽한 향을 지닌 먹[墨]은 자신의 몸을 갈면서 글씨와 그림으로 새롭게 세상에 빛과 향기를 내놓기에 많은 문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왔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는 문방사우 가운데 먹을 가장 으뜸으로 여겼다.

문방사우 가운데 유일하게 소모품이 아닌 벼루[硯, 갈다는 의미]는 조선시대로 접어들어 형태, 조각장식, 문양 등이 화려하고 다양해 졌으며, 차츰 글씨와 그림을 그릴 때만이 아닌 선비들이 오랜 시간동안 곁에 두고 완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소장의 가치를 발휘하는 예술품이었다.

이처럼 음다 공간은 한국적인 독특한 비례감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다양한 문양과 기능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식물을 첨가함으로써 한국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 3. 시와 그림

#### 가. 음다공간과 시

### (1) 시의 시대적 배경

시의 역사는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농경지 시절부터라고 추측한다. 생사흥멸(生死興滅) 등에 대한 생각과 상상력은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 형식의 신화와 몸짓 등 가무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문자가 생겨나면서 신화는 소설과 산문으로, 가무는 시와 희곡으로 전환되었다. 중국 역사상 문자로 이루어진 최초의 문학 작품은 『시경(詩經)』으로 문학적, 사상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는 시에 대해 “『시경』에 나오는 시들을 한마디로 평가하여 샅됨이 없다”<sup>74)</sup>고 하였다. 샅됨이 없다는 뜻에 대해 『단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단종이 박팽년에게 경연관이 석강을 진강하는데, 사무사(思無邪)라는 말에 이르러 노산군이 묻기를, “사무사란 무슨 뜻인가?” 하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생각하는 바에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니, 마음이 바름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바르면 즉 모든 사물에서 모두 바름을 얻을 것입니다.”<sup>75)</sup>하였다. 사무사란 곧 마음이 바름을 뜻한다.

사대부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감회를 시로 표현하였다. 시는 인간의 깊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말의 의미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준다. 또한 의사소통에서도 깊고 고상한 단계를 열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선비들은 흥취가 일어나면 서로 화답하거나 운을 따라 시를 지어 즐기는 시회(詩會) 갖는 것을 즐겼다. 율곡은 정신과 격조, 단아한 품격으로 고매하고 단아한 예술 지평을 바로 세워 나갔다. 시는 한나라에 들어와 「시경」을 모방하면서 전아(典雅)함을 추구하였으나性情(性情)은 결여되었다. 동진(東晉)대에 문인시(文人詩)가 등장하게 된다. 당대(唐代)에 들어와 서정시의 새로운 발전과 함께 다양한 발전으로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특히 시(詩)와 그림[畫]과 선(禪)이 융합되어 시상으로 나타난다.

74) 남희근, 송찬문 옮김, 『논어강의 上』,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2, p.94. “子曰, 詩三百에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75) 『단종실록(端宗實錄)』 권 제3, 15장 앞쪽, 즉위. 윤9. 병인(7), “經筵官進夕講 至思無邪 魯山問曰 思無邪何也 朴彭年對曰 所思無邪也 謂心正也 心既正 則於事事物物 皆得其正”

대표적으로 왕유(王維, 699~759)의 「사슴이 노는 골짜기(鹿柴)」의 작품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사슴이 노는 골짜기(鹿柴)」

텅 빈 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空山不見人
여디선가 들려오는 도란도란 사람소리	但聞人語響
석양빛이 숲속 깊숙이 들어와	返景入深林
다시금 푸른 이끼 위에 비치네.	復照青苔上 <sup>76)</sup>

녹채(鹿柴)는 『망천집(輞川集)』 20수 중 넷째 수로 왕유의 시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에게 회자(膾炙)되는 대표적인 시이다. 이 시에서 ‘텅 빈 산(空山)’과 ‘석양별(返景)’ 그리고 ‘푸른 이끼(靑苔)’의 시어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의 내용은 공(空)이다. 공(空) 사상은 대승불교의 기본이 되는 핵심사상이다.<sup>77)</sup>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 자기를 형성하는 고유한 실체가 없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연따라 화합하여 일시적으로 모습을 이루고 있을 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존재의 실상(實像)을 밝힌 진리이다. 우리의 마음도 실체가 없다. 자성(自性)이 없다. 무자성(無自性) 즉, 공이다. 이 도리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참선 수행을 통해 깨달으려는 경계가 공의 세계이다. 이는 왕유가 신봉하는 불교의 선종과 같이 글자를 드러내지 않아도 품격이 드러나고 있다. 청대(清代) 황배방(黃培芳, )은 왕유의 시를 평하기를 “한 가로운 정경은 속세의 먼지와 소음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오직 평정한 마음에서만 경물의 묘사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청대(清代) 시인으로 신운설(神韻說)이란 시론으로 청나라 문단은 물론 우리나라 실학 북학파(北學派: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박지원)의 시에도 큰 영향을 준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은 왕유의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송(宋)의 엄우(嚴羽, ?~?)는 시선일치(詩禪一致)를 주장하였으나 왕유

76) 김원중, 『唐詩』, (주)민음사, 2008, pp.266.

77) 김원중, 위의 책, p.267.

와 배적의 망천(漚川) 절구(絶句)에는 글자마다 선(禪)에 들어가 있다”

왕사정의 신운설은 시의 풍격에 있어서 함축과 자연, 충담(冲澹), 묘오(妙悟)를 신운(神韻: 신비롭고 고상한 운치)으로 삼고 있는데, 왕유의 시를 으뜸으로 삼았다. 이른바 언어의 표현은 다했어도 그 뜻은 다함이 없고 여정(餘情)이 무궁한 맛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언외지미(言外之味)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몰아일치의 경지이다.<sup>78)</sup>

왕유(王維)는 당(唐)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번성했던 시기에 고위 관직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화가, 음악가로서 다방면에 모두 이름을 떨쳤다. 시인으로서 그는 시선(詩仙)이라고 불리는 이백(李白, 701~762), 시성(詩聖)이라고 불리는 두보(杜甫, 712~770)와 함께 중국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3대 시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의 시에는 불교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있어 ‘시불(詩佛)’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그림에도 뛰어나 남종 문인화(南宗文人畫)의 개조(開祖)로 여겨지고 있다. 왕유(王維)의 시는 전기와 후기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기의 시들이 도회지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비해 후기의 시들은 전원생활과 자연의 정취들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 자연의 청아한 정취를 소재로 한 후기의 작품들이 특히 높은 예술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만년(晩年)에 남전(藍田)의 망천장(漚川莊)에 은거하면서 지은 작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시들이 왕유의 최고 뛰어난 가작시(佳作詩)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정건(鄭虔, 685~764), 오도자(吳道子, 700?~760?) 등과 함께 중국 남종화(南宗畫)의 개조(開祖)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라 시인이거나 문인들이 그리는 문인화(文人畫)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인물이나 꽃, 대나무, 산수(山水)의 정경 등 다양한 소재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특히 수묵(水墨) 산수화(山水畫)로 이름을 떨쳤다.

송대(宋代)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소동파가 쓴 발문: 왕마힐의 남전연우도에 적다(東坡題跋: 書摩詰藍田烟雨圖)」에서 왕유가 만년에 남전별장 즉, 망천장에서 지은 시에 대하여 평하기를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고 하였다. 시론(詩論)에서 최고의 품격으로 삼는 시화일치론

78)빙심 외, 김태만 외 옮김, 『그림으로 읽는 중국문학 오천년』, 예담, 2000, pp.122~123.



(詩畫一致論)이 여기서 비롯하였다. 이러한 왕유의 시와 그림과 선의 융합은 음다 공간에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음다 공간의 시(詩)

음다 공간에 있어서 시는 차를 마시는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글로 표현하여 차 마시는 동안의 운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사회의 지식층으로서 개인의 정서를 시로 표현하여, 사권의 매개역할을 하였고, 학문의 교류나 풍류의 멋을 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표현수단이였다. 특히 음다 공간에 있어서 시는 차를 마시는 분위기를 더욱 고아하고 정감 있게 전달하고, 다사의 격을 높여주는 승화된 내적 표현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표현되었다. 고려 말의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의 시 「느낌이 있어 음다(有感)」를 보자.

우물물 길어다 새 차를 강한 불에 달여서	汲井新茶活火煎
창 앞에서 한잔 마시니 기분이 날 것 같네	晴窓一啜意翛然
경쾌히 날아 밝은 달을 안기는 어려우나	飄飄難得抱明月
탁 트인 기분은 마치 선경을 오른 듯하네	蕩蕩却如凌紫煙
한가히 읊는 건 사물을 감축함에 따르지만	閑裏吟哦由觸境
병든 뒤의 출처는 모두 천명에 맡긴다오	病餘行止摠關天
붓 빼들은 다만 흥취를 서술하기 위함인데	抽毫只管紓情興
봄빛이 한창 무르녹은 또 한 해이로세	春色方濃又一年 <sup>79)</sup>

차를 끓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 다루기(烹茶旨要 火候爲先)이다.<sup>80)</sup> 손수 물을 길러 차를 끓인 후 밝은 달을 칭하여 차를 마시고 있다. 한가하고

79)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16권, 시(詩), 느낌이 있어 음다, 고전번역총서.

80) 초의선사, 강우석 옮김, 『다신전(茶神傳)』, 사회교육연구원, 2003, p.69. “차를 끓일 때는 文火(은근한 불)와 武火(성급한 불)로 조화롭게 끓여야 한다고 한다.”

고요하여 더 나을 바가 없음을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선경에 오른 듯하다고 읊고 있다. 더 나아가 시흥이 져고자 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는 읊다 공간이다.

차를 즐겨 마셨던 조선 중기의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제공들의 기자운을 차운하다(次諸公期韻)」는 읊다 공간의 운치를 잘 표현하였다.

호숫가에 홀로 와 좋은 기약 기다리니	獨來湖上佇佳期
의자 끌고 소요하며 날마다 일이 있었네	掃榻逍遙日有爲
바람은 버들가지 비벼 막 늘어지고	風撚柳條纔欲彈
눈은 매화에 소복하여 흩날리지 않네	茶烟縷縷當簷散
달그림자 으슬으슬 창문에 들어오네	月影微微入戶隨
차 연기 울울이 처마에 닿아 흩어지고	茶烟縷縷當簷散
높은 베개에 물시계 소리 들으면서	高枕細聽寒漏永
아침 해 발에 오르도록 꿈을 꾸었네	夢回晴旭上簾時 <sup>81)</sup>

깊어가는 겨울밤 읊다 공간의 한가로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바람도 버들가지와 깊은 잠에 빠지고, 눈 속에 덮인 매화의 암향(暗香)에 꽃 핀 줄 알아, 차 끓이는 운치는 차 연기와 밤을 채운다. 늦은 아침잠에 빠져 따듯한 아랫목에 누워 듣는 물시계 소리가 꿈속에서 찾잔에 차 따르는 소리인양 행복을 배가시키는 소리로 들린다. 높은 베개를 사용할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대부의 일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생활의 한 단면을 시로 표현하는 사대부들의 취미와 함께 읊다 공간이라는 충전 장소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기대승의 「유거잡영(幽居雜詠)」시의 부분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상사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사뭇 부럽다.

작은 집 깨끗하고 시원한데	小堂清且爽
꽃과 대나무 성긴 발에 비치네	花竹映疎簾
취한 뒤에 시정이 발동하니	醉後詩情發

81)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高峯先生文集」 제1권, 시(詩) 제공들의 기 자 운을 차운하다(次諸公期韻), 고전번역총서.

미친 듯이 읊기에 붓끝이 닳네	狂吟筆退尖
바람은 구름길을 따라 사라지고	風從雲徑息
달은 대나무 가지에 내려앉네	月向竹枝添
학을 길들이는 사이 세월이 흐르고	調鶴光陰換
차를 달이며 시냇물을 더하네	烹茶澗水添 <sup>82)</sup>

어느 한적한 여름 날 오후, 시원한 땃바람소리를 들으며 작은 집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은일처사의 음다 공간을 통해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한 부분이다. 마당 한편의 꽃과 대나무가 성긴 발을 통해 일렁이는 그림자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 시정(詩情)이 일어 붓 가는대로 써 내리니 어느 사이 어둠이 내려 달이 대나무 가지 위에 내려앉았다. 돌솥에 덩이차를 넣고 달이는 동안 음다 공간은 차향으로 가득해진다.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써가니, 대숲에 놀던 학은 줄기를 더하고, 꿇고 있는 찻물이 어느 새 줄어 물 붓기를 재촉하는 즐거움이 술술 일어나는 한여름의 음다 공간의 정취이다. 이와 같이 사대부들은 직접적인 풍경보다는 간접적인 운치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연못의 달은 그림자 기이하여라(池月影初奇)’<sup>83)</sup> 등의 표현에서 음다 공간의 멋을 한층 높여주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옥담(玉潭) 이응희(李應禧, 1579~1651)의 「산촌의 저물녘 눈(山村暮雪)」에서 추운 어느 겨울날 차를 끓이면서 차의 훈기를 통해 겨울나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이다.

북풍은 초가지붕을 뒤집고	北風捲蔀屋
흰 눈은 황혼녘까지 내린다	白雪到黃昏
산객은 솥에 찻물을 끓이고	山客燃茶鼎
행인은 석문을 두드리누나	行人扣石門
솔숲에는 흰 학이 서 있고	松林停素鶴
바위굴엔 검은 원숭이 숨었다	巖竇伏玄猿
몇 집 따뜻한 온돌방에서	幾處烟床暖
거문고 뜬으며 술을 마시고	古琴對綠樽 <sup>84)</sup>

82)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高峯先生文集」 제1권, 시(詩) 유거잡영(幽居雜詠), 고전번역총서.

83)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高峯先生文集」 제1권, 시(詩), 또(又), 한국문집총간.

북풍이 불고 눈은 종일내리는 인적도 드문 겨울 어느 날이다. 이럴 때는 돌솥에 차를 듬뿍 넣고 온종일 차를 끓이니 지나던 행인도 차향에 반해 스스럼없이 문을 두드리며 차 마시기를 청한다. 차의 훈훈함이 느껴지는 음다 공간이다. 그 당시에 사대부들은 애완동물로 학과 원숭이를 키우는 것이 고상한 취미의 한 가지였다. 흰 눈 속에 서있는 흰 학의 모습은 진정 신선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어느 집에서는 거문고를 타면서 바람에 흔들리어 내는 소나무의 맑은 소리(松韻)와 합주를 즐기고 있다. 여유 있는 사대부의 한가로운 겨울나기의 어느 날 이다. 잠시 추위도 비껴가는 시간이다.

조선 후기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유배지에서 느낀 쓸쓸한 일상을 노래한 「다산팔경 노래(茶山八景詞)」이다.

죽죽 뻗은 칩덩굴 부드러운 햇살 아래	山葛萋萋日色妍
화로에는 차 달이던 연기마저 끊겼는데	小爐纖斷煮茶煙
어디선가 각각대는 세 마디 쾩소리가	何來角角三聲雉
구름 속 들창 아래 잠시 든 잠 깨워대네	徑破雲牕數刻眠 <sup>85)</sup>

다산은 정약용이 차를 즐겨 하면서 붙인 초당을 이른다. 쓸쓸한 유배의 심경을 다산초당에 팔경(八景)을 붙여 노래하는 자탄의 위로는 차 한 잔의 맛이 상심한 마음에 녹아든다. 우리나라 차 성지의 최고라 할 수 있는 다산을 배경으로 한 정약용의 음다 공간은 오늘날에도 그 역사적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칩덩굴이 자생하는 한적한 유배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심신의 답답증을 풀어주던 몇 조각 차마저도 떨어진 군색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졸음에 겨우 잠을 청했는데 그마저도 쾩의 각각대는 울음에 심란함을 더한다는 내용이다. 차를 마시면 위안이 될까 하는 마음에 뜨거운 물을 빈 찻잔에 부어 배인 차향이나마 음미하고자 했을 궁핍한 음다 공간이 느껴진다. 더구나 다산이 팔경(八景)을 노래하며 ‘온 집이 차갑도록 천풍이 불어오네(天風吹作滿堂寒)’<sup>86)</sup>

84) 이응희(李應禧), 『옥담시집(玉潭詩集)』 『옥담유고』, 우수고전번역서.

85)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다산시문집제5권』, 시(詩), 고전번역총서.

86) 정약용(丁若鏞)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 第五卷, 詩, 茶山八景詞.

라고 하였듯이 가을의 스산한 바람소리를 소나무 물결 등으로 표현하며 달관한 다산의 유배 생활에 한 잔의 차는 위안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 나. 음다 공간과 그림

### (1)그림의 시대적 배경

인류 최고(最古)의 회화라 일컬어지는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 등과 고분벽화 등을 통해 회화의 역사를 찾아 볼 수 있다. 청동기 사용과 농경 발달은 사유 재산 축적과 계급 사회가 형성되면서 예술이 함께 발전하였다. 이 시대 그림으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암각화(岩刻畵)이다.

이후 유교, 불교, 도교는 회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초기 인물화 중심의 회화가 지배적이었으나, 9세기에는 회화는 인물화 중심에서 산수화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인물화 자체의 한계와 함께 자연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인한다. 산수(山水)는 작가에 의해 무한히 자유롭게 발견되고 해석될 수 있었으며, 유한에서 무한의 영역으로 통하여 정신이 자연의 도와 상통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와 해방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회화기법에서도 수묵산수화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직업 화가들과 달리 사대부들은 쉽고도 간단한 표현방법이 필요하였고 세밀한 기교보다는 정신의 수양 경지를 중요시한 수묵화는 크게 환영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문인화풍과 문인화론이 대두하면서 형사(形似)를 경시하고, 전신(傳神)이나 육법(六法)<sup>87)</sup>에서 특히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도학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리학으로 완결되는 송대의 학문체계와 문예예술이 흥성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

한국문집총간

87) 동양화에서 그 작풍(作風)과 감상의 규범이 되는 6가지 요목. 그 내용은 ① 기운생동(氣韻生動) ② 골법용필(骨法用筆) ③ 응물상형(應物象形) ④ 수류부채(隨類賦彩) ⑤ 경영위치(經營位置) ⑥ 전이모사(傳移模寫) 이 중에서도 기운·골법·응물이 중요시되며 특히 기운은 회화의 이상(理想) 또는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문인화는 시각적인 회화에서 관념적인 회화를 추구했던, 단지 사물의 외양에 집착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사의 중시(寫意 重視), 형사 역제의 경향을 지닌 회화라 할 수 있다.<sup>88)</sup> 따라서 문인화는 보통 대상의 사실적·구체적 묘사보다는 가슴에 품고 있는 탈속한 기상을 나타내는 데 주안점을 두는 지식인의 정신주의 그림이었다. 복잡한 기법이나 기교를 피하는 대신에 어려서부터 글씨를 수련하여 익숙하게 다루어 온 먹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표현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사대부들의 고아한 취미생활은 직업 화가들과는 다른 지식인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문인화를 정통회화의 주류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서·화 일체라는 독특한 형태의 예술미가 강조되었고, 그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가 중시되었다. 송대 이후 작가의 인격과 정신적 경지, 교양의 수준 등 문인화가들에 의해 절대적 가치로 평가되었다. 중국 문인화의 정신은 송대 유학 전통과 함께 고려시대에 받아들여졌다.<sup>89)</sup> 당시 왕공사대부들이 여가로 그린 그림에 대한 문헌기록과 많은 작품에 대한 제화시(題畫詩)가 그 실상을 알려 주고 있다.

서예의 필획 자체가 쓴 사람의 인품을 반영한다고 하듯이 글과 그림에는 지은이의 정신이 들어 있다. 남종문인화풍이 부상하면서 동시에 요구된 것이 그림 속에 문인다운 기운(氣韻)이었다. 사기(士氣)란 말 그대로 선비의 기운이다. 서권기(書卷氣)란 글과 책의 기운이니 학식과 인격을 반영한 기운이다.<sup>90)</sup> 따라서 정신과 인품이 담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노력이 오늘날 문인화(文人畫)의 소재로 발달하였다.

문인화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 명나라 사백(思白)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이 화풍을 남종화와 북종화로 나눈 뒤부터 문인화는 남종화로 불리게 되었다. 그림이란 일차적으로 사물을 묘사한 것이지만, 문인화는 사물의 묘사보다는 작가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을 시처럼 생각한 것이다. 시가 글자를 통해 자신의 심사를 표현했다면 그림은 붓 터치를 통해 자신의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시가 청각이라면 그림은 시각으로

88) 나중면, 『18세기 조선시대의 예술론』, 한국학술정보(주), 2009, p.226.

89) 황지원, 『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pp.171~223.

90) 고연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 (주)아트북스, 2011, pp.260~262.

표현수단의 차이는 있으나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은 작가적 인품과 학식, 감성과 사상이 드러나야 한다.<sup>91)</sup>

한국회화사에서 18세기는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과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의 시대였다. 이 시기 회화는 진경산수(眞景山水)와 속화(俗畵), 그리고 문인화풍의 한국적 정착이 실현되었다. 이 시기에 글씨는 왕희지(王羲之, 307~365) 서체의 한국적 토착화가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사회의 18세기는 그림과 글씨가 모두 민족적 경향이 우위를 점한 시기였다.<sup>92)</sup>

조선 후기의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에 따르면, 두 번에 걸친 여행을 통해 청조의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만남에는 언제나 그림이 있고 시가 따랐다고 한다. 그림은 이미 사대부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음을 홍양호는 말하고 있다. 청나라 지식인들과의 교류에 서화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sup>93)</sup>

## (2) 음다 공간과 그림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현동자(玄洞字) 안견(安堅, 1418~1452)의 산수화풍을 계승하였던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의 두 폭 「연지도(蓮芝圖)」 속에 나타난 음다 공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91) 박철상, 『세한도』, (주)문학동네, 2010, pp.101~102.

92) 부국문화재단, 『완당과 완당바람』, 동산방, 2002, p.119.

93) 박철상, 앞의 책, pp.106~107.

<그림1> 양팽손(梁彭孫), 「연지도(蓮芝圖 1)」, 「연지도(蓮芝圖 2)」

16세기 전반, 絹本水墨, 23.7cm × 36.5cm, 양성훈 소장.

학포(學圃)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의 두 폭 「연지도(蓮芝圖)」를 보면, 「연지도 1」은 지초가 왼쪽에 있는 분(盆)에 심어져 있고 하단에는 중국풍의 다기를 배치하여 화제(畫題)를 분과 다기에 써 넣었다. 오른쪽에는 잘 익어 씨가 밖으로 터져 나온 석류 열매와 난초 꽃으로 공간미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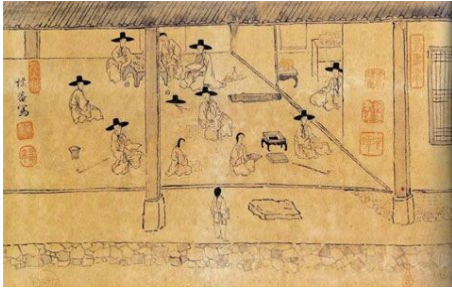
「연지도 2」는 연잎을 꽃병에 꽂아 주제로 삼고 왼쪽에 연씨와 연근, 그리고 글씨가 있는 다기를 배치하고 오른쪽에 연잎과 연꽃을 가로로 하단에 배치하여 반쯤 보이는 연씨의 구성이 일품이다. 또한 학포의 자(字)인 대춘(大春)과 호를 학수(學叟)로 표기한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찍혀있다. 호의 학수가 늙은이 수자(叟字)로 보아 말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의 다기에 쓰인 화제의 글은 다음과 같다.

흥이 나면 방호(신선이 사는 곳)에 와서 흰 사슴을 타	興來方壺乘白鹿
다시 함곡관(函谷關)에 이르러 시름을 없앨 수 있다	旋到函聊可消愁
오직 옥(구슬같은 물거품)의 뜬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有玉浮心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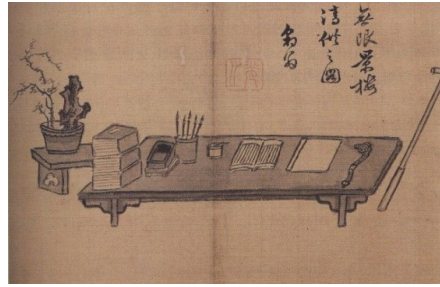
「연지도 1, 2」는 양팽손의 직계 후손 지강(芝江) 양한묵(梁漢默, 1862~1919)이 한양의 추사 김정희의 종가집에서 발견하고 13대 손인 회암이 회철을 보내 사운 후 종가인 화순군 월곡리 사당에 보존해 오고 있다.<sup>94)</sup> 이 그림과 화제를 통해서 학포의 음다 공간은 자성(資性)을 찾아나서는 자유로움을 연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차를 통해서 마음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보고자 애를 쓴 공간이었다. 또한, 학포는 초의(草衣) 의순(意恂, 1786~1866)보다 약 300년 전의 인물로, 당시 사대부들의 음다 공간은 다사를 직접 행하며 심신을 다스리는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94) 박종석, 『부러진 대나무』, 도서출판 개미사, 2003, pp.135~138.





<그림2>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1747년, 34.9cm × 50cm,  
지본수묵, 개인 소장.



<그림3> 「청공지도(淸供之圖)」  
비단에 수묵, 23.3cm × 39.5cm,  
선문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이 1747년에 그린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는 사랑방을 배경으로 바둑과 거문고, 문방제구가 등장한 여러 명의 사대부들 모임을 담고 있다. 또한 「청공지도(淸供之圖)」의 청공(淸供)이란 맑고 깨끗한 용기란 의미로 사대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연하며 조출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용기를 지칭한 것으로 「청공문방(淸供文房)」이라고도 불린다.<sup>95)</sup>

이와 같이 음다 공간은 사랑방이자 정갈하고 차분한 삶의 공간으로 다주시화(茶酒詩畫)로 심신을 연마하고 잠깐 쉬는 파한(破閑)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읊조리는 작업실이며 창작의 산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95) 이원복, 『홀로 나귀를 타고 미술 숲을 거닐다』, 이가서, 2008, p.253~269.



<그림4> 이경윤(李慶胤),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  
 견본 수목, 31.2cm × 24.9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 중기의 화가 낙촌(駱村) 이경윤(李慶胤, 1545~1611)의 「월하탄금도(月下彈琴圖)」는 교교(皎皎)히 흐르는 달빛 아래 줄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대부의 뒷모습에서 거문고의 장중한 음률이 화폭 가득히 채워지고 있는 듯하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의 몸짓은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가 서려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듯하다. 다동은 뒤편에서 줄 없는 거문고를 타는 주인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지 결눈질로 훑쳐보면서 부지런히 차를 끓이고 있다. 차향과 달빛과 거문고의 음률이 화합하는 순간이다. 경이로운 음다 공간으로 최고의 멋과 운치가 서려있는 전경에서는 이곡(李穀)은 다음의 시를 읊었다.

나는 꽃 마주하여 이 노래를 부를 테니	我欲對花歌此曲
달빛 아래 거문고 소리 귀 씻고 들어야 할까 보오	洗耳須憑月下琴 <sup>96)</sup>
스님은 줄 없는 거문고나 한번 타시오	請師一撫沒絃琴 <sup>97)</sup>

96)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가정집」 제16권, 율시(律詩), 연성사(延聖寺)의 옥잠화(玉簪花)시에 차운하다, 고전번역총서.

97)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가정집」 제20권, 율시(律詩), 탄(坦)스님에게 증정하다, 고전번역총서.



<그림5> 겸재(謙齋) 정선(鄭敼), 「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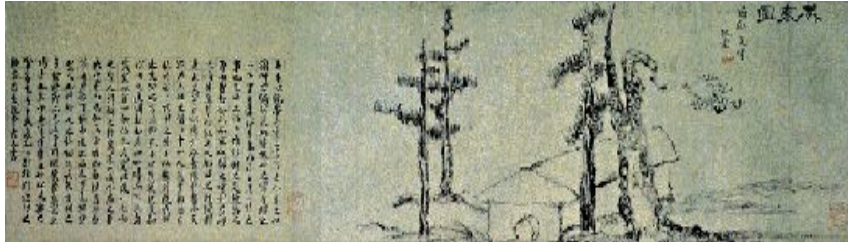
종이에 담채, 27.4cm × 27.4cm, 간송미술관 소장.

또 사대부들이 어떤 장소를 추구했는지는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의 「인곡유거도(仁谷幽居圖)」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다. 「인곡유거도」는 인왕산 아래 옥인동 부근으로 정선의 집이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는 성하(盛夏)임을 알려주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창밖을 바라보는 겸재를 만날 수 있다. 그의 서재이자 창작의 공간은 음다 공간으로써 충분하였다.

위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음다 공간은 삶의 생기를 회복하고, 맑은 마음을 고취시켜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었다. 음다 공간의 주축이 되는 설정은 시와 그림으로 사대부들의 정신적인 요소를 충분하게 채워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 조선의 산수화는 직접적인 문자의 형상미를 보여주려 하였다. 고풍스런 예서(隸書)나 달통한 분위기의 초서(草書)는 그대로 살리고 힘과 속도와 절제를 요하는 붓질로 화면을 메워 나간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서화와 관련된 서적을 탐독하며 직접 창작하기에 이른다. 추사에게 그림은 하나의 학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희의 문자향과 문자기(文字氣)가 화면에 구체화된다.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를 살펴보자.



<그림6>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세한도(歲寒圖)」

종이에 수묵, 1844년, 20cm × 69.2cm, 개인소장, 국보 제180호.

「세한도(歲寒圖)」는 김정희가 제자 이상적에게 자신을 대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려 보낸 작품이다. 창문 하나만 있는 허름한 집과 나무 네 그루, 이상적에게 준다는 내용의 글씨로 이루어진 간단한 그림이다.<sup>98)</sup> 최대한 절제된 그림에서 추사의 극한 상황의 생활과 이상적의 의리에 감동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한 폭의 그림과 화제(畫題)로 작가의 정신세계를 묘사해 내는 문인화의 표본이다.

세한도를 그려야겠다는 발상이 나오기까지는 음다 공간의 생활이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추사는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로 「명선(茗禪)」, 「선담다인(禪榻茶烟)」, 「묘용시수류화개(妙用時水流花開)」라는 서체를 보더라도 차를 얼마나 즐겼는지 알 수 있다. 제주의 유배생활 동안 초의(草衣) 의순(意恂, 1786~1866),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4~1865), 소치(小痴) 허련(許鍊, 1809~1892)이 차와 책을 종종 보내주었고 차를 마시는 동안은 마음의 울분을 삭힐 수 있었을 것이다. 추사의 음다 공간은 절실함이 배어 있는 곳으로 괴로움 속에서의 즐거움이 있는, 빛을 들어 지식인의 고뇌를 표출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추사의 시 「유초의선(留草衣禪)」을 보면 추사와 초의의 깊은 우정을 짐작할 수 있다.

눈앞의 조주차를 공짜로 마시고  
손에는 범지의 꽃을 굳게 잡았구나  
계(僞)들은 뒤, 컷문이 져어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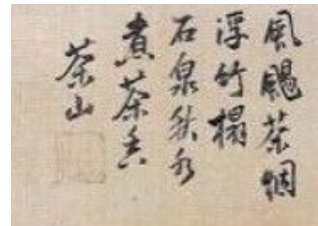
眼前白喫趙州<sup>99)</sup>茶  
手裏牢拈梵志華  
喝後耳門飲箇漸

98) 박철상, 위의 책, p.134

99) 당나라 조주(曹州) 사람으로 조주화상(趙州和尚)인데 본성(本姓)은 학(郝)씨임.

추사와 초의가 모처럼 만나 차를 마시며 염화미소로 회포를 나누고, 봄바람 같은 훈훈함이 승가의 계송(偈頌)을 듣는 것처럼 음다 공간에서도 진정한 선(禪)을 만날 수 있어 잠시나마 추사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도 그림 「석천물로 차를 달이며(石泉煎茶)」에서 음다 공간의 필요성을 제화시(畫題詩)를 통해 전하고 있다.



<그림7>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석천물로 차를 달이며(石泉煎茶)」, 견본에 수묵담채, 개인소장.

다산은 강진 유배생활 동안 답답한 마음을 달래는 일환으로 먹을 갈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림으로써 비감한 심정을 초연함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바람이 일어나니 차 끓이는 연기는 죽담(竹榻)에 피어오르고 석천 가을 물로 향기로운 차를 달인다.’에서 나타나듯 유배지에서 차와 그림은 다산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벗이었다. 다산이 사랑한 다산사경(茶山四景)은 병풍바위에 직접 새긴 정석(丁石), 직접 수맥을 찾아 약수로 끓이던 약천(藥泉), 차를 끓이던 반석의 다조(茶竈), 연못 가운데 쌓아놓은 연지 석가산(蓮池 石假山) 등이다.<sup>101)</sup>

100) 김정희, 『추사 김정희 詩 전집』, 도서출판 풀빛, 1999, p.468.

101) 김창배, 『茶목화첩』, 인사동문화, 2006, p.225.

이 그림은 산수화이지만 다산은 그림의 제목을 「석천물로 차를 달이며」라고 했다. 이는 깊은 산 생활에서 얻어 낸 지혜로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로 끓인 차 맛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로운 유배지에 가을의 을씨년스러움 속에서 ‘석천 가을 물로 향기로운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애잔한 심정을 제화시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시는 ‘소리 있는 그림(有聲之畫)’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無聲之詩)’<sup>102)</sup>라는 소동파의 말도 있듯이 시와 그림은 서로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시는 마치 화가가 화폭 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과 같이 ‘뜻을 묘사하고 정신을 전달(寫意傳神)’해야 한다.<sup>103)</sup> 다산은 음다 공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소리 없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애절한 심사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와 그림은 인간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주며, 변함없는 친근한 벼으로 위안을 주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차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스리며 선비의 덕목을 충실히 지킨 차문화의 대표적 인물인 다산과 추사는 유배지에서 음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인물이었다.

살펴 본대로 음다 공간은 다사를 통해 분별과 조화로 차의 정신을 고취시켜 음다 개념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켰다. 실제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여 사교나 교류의 의미로 발전하는 음다 공간의 시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다 공간의 구성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체적 역할을 하는 차도구·음다 공간의 장식물·시·그림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을 교합시킨 새로운 창조를 낳았다. 차도구에서는 차의 기능성을 살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차도구 선택에 신중하였고 차를 끓이는 과정을 즐기는 경향이 시를 통해서 가끔씩 보였다. 음다 공간을 장식했던 물품들에서는 정신적인 성정을 중시하여 격에 맞는 멋을 찾고자 하였다. 시에서는 인품과 정신이 드러났으며, 그림에서는 마음을 묘사하여 감성과 사상이 교류하는 그림도 하나의 학식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이 바라는 최고의 품미는 음다 공간에서 차도구·음다 공간의 장식물·

---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완상하면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마힐은 왕유(王維)의 자로, 시화(詩畫)로 유명하였다.

103) 정민, 『한시 미학 산책』,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p.37.

시·그림을 통해 문화적 즐거움을 고양시키는 매개체로 삼았다는 점이다. 결국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이 자연과 연결시키는 역할로 귀거래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대부들의 덕목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으로 정신의 위안이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제3장 한·중·일 음다 공간의 특징

### 제1절 한국의 음다 공간

한국에서의 음다 공간의 개념은 신라 시대 차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차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미 문화 음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유교와 불교의 전래로 왕실과 사대부가와 승가 및 화랑도들 사이에서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유행을 이끌었던 계층들 사이에서 음다 공간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갔다. 7세기 원효(元曉, 617~686)와 사포(蛇包)의 이야기가 있다. 원효를 모시는 사포는 낭떠러지의 동굴 속 암자인 원효방에서 수행하였는데, 바위틈에서 젓갈이 단 샘플이 나와 늘 차를 달여 마셨다는 내용<sup>104)</sup>으로 보아 음다 공간은 동굴 속의 암자 원효방에서 수행과 함께 이루어진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화랑도(花郎徒)들은 명산과 대천(大川)을 찾아 멀리까지 돌아다니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차생활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였다. 이처럼 신라 시대의 음다 공간은 실내뿐만 아니라 명산과 대천 등지도 음다 공간이었다. 충담사(忠談師)가 귀정문((歸正門) 누(樓)에서 경덕왕에게 차를 올린 진다의식<sup>105)</sup>을 통해 음다 공간은 ‘누’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번성으로 차문화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기도 하였다. 음다의 공간은 자연 속에서, 왕실 안에서, 사찰 안에서, 사대부들의 저택에서, 때로는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히 다방(茶房)이라는 관청을 통해 차 마시는 공간은 매우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팔관회나 연등회 등 조정의 의식 때와 정월 초하루나 추석 등의 주요 명절 행사 및 종묘제사뿐만 아니라 사신을 맞을 때, 왕의 행차 시에 음다 공간은 가변적 공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궁중 밖에서 왕족들에게

---

104)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p.145.

105) 일연, 앞의 책, p.172.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들을 나르던 다군사(茶軍士)제도에서 음다 공간은 야외였다. 사헌부(司憲府)의 다시(茶時)제도나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와 원회의(元會儀)와 연회(宴會) 같은 행사의 음다 공간은 왕실 내 사헌부 또는 대관전(大觀殿)과 같은 관련된 부서의 장소였다. 다원(茶院)이나 다점(茶店)을 통해 음다 공간은 상업성을 지닌 영업적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등회(煙燈會)나 공덕재(功德齋) 같은 불교 행사인 경우 음다 공간은 사찰이나 사찰 주변의 경관이 좋은 장소를 택하였다.

이처럼 고려는 전반에 걸쳐 각 계층들 사이에서 차문화를 꽃피웠다. 그 가운데 특히 초기에는 주로 귀족중심의 차문화였으나, 무신 난 이후부터 사대부들 중심의 차문화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숲 속이나 물가보다는 풍광이 수려하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한 정자나 재실(齋室) 및 초당이 그들의 음다 공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음다 공간을 마련하여 서로 초대하여 시와 글을 짓고 때론 모임을 만들어 소요자적(逍遙自適)하였다. 이는 이규보가 칙명(勅命)을 받들어 지은 글 속에서 책사(冊使)를 음다 공간에 초대하여 읊은 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규보의 「월수좌가 시랑 조충에게 보낸 운을 잇다(次韻月首座贈趙侍郎冲)」에서 찾자리에서 만나절을 보내면서 찾자리를 읊은 시다.

설날 어찌 손수 비둘기 놓아 주기를 바라리	正日何須手放鳩
그대의 가문 일찍이 대대로 음덕 쌓았네	君家陰德世曾修
높은 재주와 귀하신 몸 겸하여 얻었고	才高地貴身兼得
젊은 나이로 벼슬이 높고 명망이 가장 도탑네	年少官尊望最優
손님 접대하는 풍류는 조승을 능가하고	愛客風流傾趙勝 <sup>106)</sup>
중을 심방하는 운치는 배휴를 압도하네	尋僧情況倒裴休 <sup>107)</sup>
금문(金門)에서 밤마다 숙직함이 괴로워	金門頗厭連宵直
다석(茶席)에서 때로는 만나절을 소견(消遣)하네	茗席時容半日留
공은 내가 공자(孔子) 배움을 좋아하였고	喜我早攀尼父翼

106) 전국 시대(戰國時代) 조 혜문왕(趙惠文王)의 아우로서 평원군(平原君)이라 부르는데, 천하의 인재를 받아들여食客(食客)이 항상 수천 명에 이르렀다. 『史記 卷76 趙勝傳』

107) 자(字)는 공미(公美)이니, 당(唐) 나라 때 명신(名臣). 불교(佛敎)를 숭상하여 평일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불교의 교리(敎理)를 연구하여 수만언(數萬言)을 연역(演繹)하였다. 『唐書 卷182 裴休傳』

나는 공을 추대하여 문장의 으뜸을 삼았네  
 평생에 다행히 한 형주의 얼굴을 알았으니  
 인간의 만호후가 어이 부러울쏜가

推公長作華韻頭  
 此生幸識荊州<sup>108)</sup>面  
 何羨人間萬戶侯<sup>109)</sup>

이규보는 벼슬에 임명될 때마다 그 감상을 읊은 즉흥시를 쓰며 시·거문고·술 그리고 차를 좋아했다. 그의 생애 전반기에는 관운이 그리 신통치 않았으나 최씨 무인 정권에 협조하여 권신의 압객(狎客), 기회주의자이란 말도 들었으나 기개가 있고 성격이 강직해서 조정에서는 인중룡(人中龍)이란 평가도 받았다. 관계에 들어선 후부터는 벼슬이 차차 올라가, 비교적 순탄한 생애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아 찻자리(음다 공간)에 들어가 만나절을 보내면서 자신을 위로하며 공직자로서 자신에 대해 읊은 시이다. 이처럼 차문화가 발전되면서 음다 공간도 자신을 위로하는 공간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갔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고려시대 사대부들의 차문화를 계승하였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소박한 차문화를 즐기며,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음료로 승화시켜 나갔다. 고려시대의 다방(茶房)처럼 조선시대에서도 조정이나 왕실의 다례를 주관하였고 태평관(太平館) 등의 사정전(思政殿), 인정전(仁政殿), 명륜당(明倫堂) 등에서 사신들에게 차를 베풀었다. 음다 공간은 왕실이나 태평관의 실내 공간이 되었고, 관청<sup>110)</sup>은 다시(茶時)를 행하는 음다 공간이 되었다.

『세종실록』에는 “더운 여름에는 회강(會講)을 없앨 것인가, 회강을 하더라도 다례(茶禮)만 행할 것인가”를 신하들과 의논한 것을 볼 수 있다.<sup>111)</sup> 이를 통해 볼 때 회강의 공간은 세자의 교육이 이루어진 경연의 공간으로 음다공간이 다례(茶禮)를 통해 형성되는 소통과 교육 및 문화적 시공간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보산림경제』, 『잡동산이』등에는 관혼상제 때

108) 당(唐) 나라 때 명신(名臣) 한조종(韓朝宗)을 말한다. 그가 형주 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에 이백(李白)이 글을 올려 이르기를 “살아서 만호후 봉함이 필요치 않고, 다만 한 형주를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다.” 하였다. 『古文眞寶 卷2 與韓荊州書』

109) 김명배,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1999, p.277.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전집」 제13권, 고율시(古律詩),

110) 16세기에는 혜민서에서도 다시를 행하였으며, 사헌부 다시는 고종 때 까지 매우 중요시 되었다.

111) 정영선, 『한국의 차문화』, 도서출판 너럭바위, 2007, p.181.

차가 사용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음다 공간이 어느 한 곳에 국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음다 공간에 대한 특징의 하나는 초월적 공간이다. 조선 전기의 한재(寒齋) 이목(李穆, 1471~1498)은 『다부(茶賦)』에서 「차의 오공육덕(五功六德)」<sup>112)</sup>과 「일곱 주발의 차노래」를 통해 차를 기호음료의 차원이 아닌 수신을 목적으로 마셨다는 것을 밝혔다.<sup>113)</sup>

한 잔을 마시니 창자(枯腸)를 물로 깨끗이 씻어낸 듯하고  
두 잔을 마시니 정신이 상쾌하여 신선이 된듯하고  
세 잔을 마시니 병골(病骨)에서 깨어나 두풍(頭風)이 없어지네.  
내 마음은 공자(魯叟)께서 세상을 뜬구름처럼 여긴 뜻과  
맹자(鄒老)께서 호연지기를 기른 뜻의 경지에 이르네.  
네 잔째는 웅장 호방함이 일어나 근심과 분노가 없어지니  
내 기세는 공자께서 태산(泰山)을 올랐을 때 천하가 작게 보여  
그 눈길을 다 받을 수 없었던 경지가 되네.  
그 다섯째 잔을 마시니 색마(色魔)도 도망가고  
찬시(餐尸) 같던 식욕도 사라지네.  
내 몸은 구름치마에 깃옷(羽衣) 입고  
흰 난새(白鸞)를 타고 달에 오른 듯 하도다.  
여섯째 잔을 마시니 해와 달이 내 마음속에 있고  
모든 사물을 버섯거리는 거적떼기(簾蓆)에 불과하네.  
내 정신은 소부(巢父)와 허유(許由)를 말구종으로 삼고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중복으로 하여 하늘에 상제께 읍하노라.  
어이하여 일곱째 잔은 반도 안 마셔 울금향(鬱金香)같은  
맑은 차 향기 옷깃에 일고 하늘 문 바라보이며  
바로 곁에는 소삼(蕭森)한 봉래산이로구나.

조선 초기 사대부들에게 차는 맛이나 멋을 부리는 음료가 아닌 정신음료로 확고하게 각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다 역시 아무런 구애(拘礙)없이 초

112) 차의 육덕(六德)에서는, 使人壽修, 使人病已, 使人氣清, 使人心逸, 使人仙, 使人禮./이 목, 김길자 역주, 『이목의 차노래』, 두레미디어, 2001, pp.96~102.

113) 이목, 『이목의 차노래』 위의 책, 2001, pp.76~83.

류건집, 『다부(茶賦) 주해(註解)』,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9, pp.161~162.

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다 공간도 시공간을 초월한 정신세계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중요시하는 도학자(道學者)로서 음다 공간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음다 공간에 대한 특징으로 개인의 다옥(茶屋)이 등장한다. 다옥은 벗짚이나 띠, 억새 등으로 이은 작고 소박한 초당(草堂)으로 차를 마시는 음다 공간이요, 책을 보는 좁은 방이었다. 영조 시대 청백리(淸白吏)였던 조선 후기의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병와 가곡집』에 실린 「누실(陋室)」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내 집이 초려삼간(草廬 三間) 세상일이라곤 전혀 없네  
차 달이는 돌 탕관과 고기 잡는 낚시대 하나  
뒷산에 절로 난 고사리 그것이 분수인가 하노라<sup>114)</sup>

이처럼 조선시대 선비의 음다 공간은 산림에 묻혀 차를 마시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공간이었다. 때론 이들은 여럿이 모여 공통된 뜻을 확인하고 결속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 창작의 산실이요, 친목을 돈독히 하는 공간이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이공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21권 「최근해주지옥(崔近海州之獄)」에는 ‘1616년에는 대북당(大北黨)과 소북당(小北黨)이 한때 한 자리에 모여 화해를 도모하였는데, 매화향기 속에서 선차(仙茶)를 마시며 모임의 의의를 새긴 것을 볼 수 있다.’<sup>115)</sup> 이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끼리 화해를 도모하여 함께 차를 마시는 화해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선승들에게 음다 공간 역시 초월적 공간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공간이요, 포교를 위한 공간이요, 교유하는 공간 등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정조(正祖, 1752~1800)때 새로운 학풍이 진작되어 철학적 이론보다 실제 생활과 직결된 일반 백성들의 생활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개혁운동을 추진했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조선의 사대부들과 선승들은 음다 공간을 통해서 몸과 정신

114) 김명배, 『한국의 다시감상』 앞의 책, p.298.

115) 정영신, 『한국茶文化』, 도서출판 너럭바위, 2007, pp.187~188.

을 맑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도장이요, 화해와 친목을 위한 교유의 장이요, 창작의 산실이요,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켰던 곳이었다. 이처럼 음다 공간에서의 생활은 사유의 공간을 넓혀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어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정신적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했던 곳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도덕적인 지조와 미적 특징을 키워 나갔다.

## 1. 그림에 나타난 음다 공간의 특징

### 가. 삼국시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음다 공간에 관한 그림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음다 공간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조선시대에 남아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 시대의 미술의 특징은 귀족 중심으로 고분과 불교 미술이 발달하였다. 이 기운데 음다 공간에 관한 그림은 고구려의 무용총과 각저총을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일찍부터 한나라와 육조 및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역의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그들 특유의 예술 세계로 발전시켰다.

무용총 무용도에는 춤과 음악이 있는 연회가 벌어지는 장면으로 한쪽 뜰에서는 남녀 혼성의 춤사위가 벌어지고 있다. 고구려인들의 멋스런 풍류를 알 수 있는 그림으로 남녀 의상과 가무를 즐기고 있는 모습과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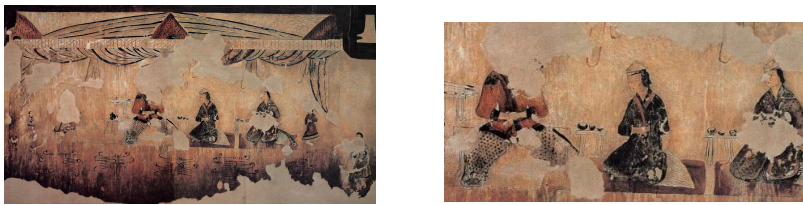
<그림8> 「무용총 - 찻상을 들고 가는 모습」

오른쪽 무희들은 춤을 추고 잔치상에 올리려고 찻상을 들고 가는 모습이다.



<그림9> 「무용총 - 상위에 찻잔이 있는 모습」

상위에는 과일과 다과를 담은 큰 그릇이 있고 또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그릇이 찻잔으로 추측된다.



<그림10> 「각저총 - 음다 모습」

장막이 드리워진 실내에서 의자에 주인이 무릎을 꿇고 앉은 두 명의 부인과 차를 마시는 모습이다.

이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가무를 즐기며 연회를 베푸는 놀이 문화 뿐 만 아니라 인품을 갖춘 사람을 모셔 차를 마시며 설법 등을 듣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음다 공간 안에서의 상황들을 엿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 고구려인들의 남성적이며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을 알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와 중국 남조 중 특히 양나라와의 교류가 빈번하였다. 백제인들이 남긴 예술적 특색은 부드러움과 유연미를 지녔던 백제인들의 음다 공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음다 공간과 관련된 작품은 남아있지 않다.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소박함과 조화로운 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당나라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으로 화려한 특징을 지녔다.

『삼국사기』 문무왕 14년 2월조에 의하면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sup>116)</sup>고 하여 삼국통일을 전후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문무왕(文武王, 626~681) 14년(674년) 2월에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 효소왕(孝昭王, ?~702) 6년(697년) 9월 “임해전에서 군신(群臣)에게 연회를 베풀었다.”<sup>117)</sup>고 하였다. 안압지를 끼고 있는 임해전은 나라에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나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군신들의 연회 및 귀빈의 접대장소로 이용되었다.

혜공왕(惠恭王, 758~780) 5년(769년) 3월 이곳에서 왕이 베풀 연회가 있었고,<sup>118)</sup> 헌안왕(憲安王, ?~861) 4년(860년) 3월에는 경문왕(景文王, 응림, ?~875)이 화랑으로 활동할 때 헌안왕이 이곳에서 베풀 잔치에 참석했다가 사위로 택해지기도 하였다.<sup>119)</sup> 헌강왕(憲康王, ?~886) 7년(881년) 3월에는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향연을 베풀고서 흥에 겨워 직접 거문고를 탔고, 신하들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sup>120)</sup> 신라가 망하기 직전인 경순왕(敬順王, ?~978) 5년(931년) 2월에는 경주를 방문한 고려 태조를 이곳에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sup>121)</sup> 한편, 임해전은 경문왕(景文王, ?~875) 7년(867년) 1월에 중수되었다.<sup>122)</sup>

이곳에서 음다가 행해졌음은 안압지에서 회색토기인 ‘언(言)’ ‘정(貞)’ ‘영(榮)’ 그리고 작은 글씨로 ‘다(茶)’는 ‘정(貞)’ ‘영(榮)’사이에 글자가 새겨진 차그릇이 출토되었다. 즉, 「언정다영(言貞茶榮)」이라는 뜻은 차를 마심으로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23)</sup> 그러나 안압지라는 명칭이 기록에 나타나기는 노사신(盧思愼, 1427~1498)·강희맹(姜希孟, 1424~1483)·서거정(徐居正, 1420~1488) 등이 엮은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1669년(현종 10) 경주부윤으로 민주면(閔周冕,

116) 김부식,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1, p.201.

117) 김부식, 위의 책, p.215. 九月 宴群臣於臨海殿.

118) 김부식, 위의 책, p.242.

119) 김부식, 위의 책, p.275.

120) 김부식, 위의 책, p.281.

121) 김부식, 위의 책, p.297.

122) 김부식, 위의 책, p.277.

123) 정영선, 『한국차문화』 앞의 책, p.89.

1629~1670)이 향중(鄉中) 인사인 이채(李埰, 1745~1820)·김건준(金建準, 1627~1688) 등과 함께 편찬, 간행한 경주부 읍지(邑誌)인 『동경잡기(東京雜記)』 등에서부터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차문화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있었다. 문헌에 의하면 이미 통일신라시대에 다연원(茶淵院)이라 하여 차 마시는 장소가 있었다. 이는 경주 창림사(昌林寺)라는 절터에서 다연원이라 쓰여진 기와조각이 출토됨으로<sup>124)</sup> 별도의 음다 공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음다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안압지 임해전지에서는 국가적 행사뿐만 아니라 다회와 연회 등을 베풀었던 공간이며, 경문왕이 자신의 왕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반란을 진압한 뒤,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한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다연원은 임금이나 귀족, 승려, 화랑, 관원들이 먼 길을 떠났을 때 묵었던 국영여관으로 음다 공간이기도 하였다.<sup>125)</sup>

이러한 공간은 연못으로 둘러싸인 환경이거나 연못이 보이는 운치 있는 곳으로 고려시대에서도 계속 유지 되었다.



<그림11 > 경주 안압지 임해전지(臨海殿址)<sup>126)</sup>

고려시대는 한국 불교 미술의 황금시기로 통일신라의 계승하여 고려는 불교와 귀족 사회의 흥성과 함께 차문화도 발전을 이룬 시기이다. 이는 귀족적 취향이 많이 반영되었고 불교 미술이 꽃을 피웠다. 하지만 아쉽게도 차와 관

124) 정영선, 『한국차문화』 위의 책, p.83.

125) 정영선, 『한국차문화』 위의 책, p.83.

12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련된 그림은 거의 보존되고 있지 않다.

## 나.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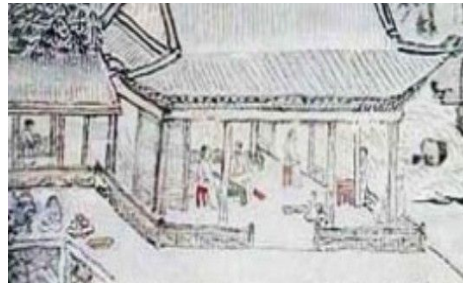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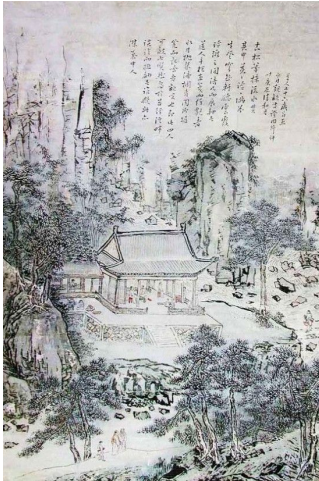
유교적 관료 체제로 새로 출발한 조선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새로운 왕조인 명대의 문화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조선 초기 도화서(圖畫署)를 중심으로 직업 화가들이 배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왕실과 종실, 사대부가들 사이에서 여가를 즐기며 명작(名作)을 남기기도 하였다.

음다 공간이 그림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로 볼 수 있다. 조선중기는 산수와 인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화풍을 이루었다. 조선 중기가 되면서 극소수 진보적인 화가에 의해 남종화가 소극적으로 수용되다가, 조선 후기부터 예술의 새로운 양식은 진보한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한다.

학포 양팽손은 조선 중종(中宗, 재위1506~1544) 때 문장(文章)과 서화(書畫)로 명성을 얻은 문신이다. 그는 조선 후기의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 말기의 허련(許鍊, 1809~1892)과 함께 호남의 대표적인 문인화가로 손꼽히는데, 특히 양팽손은 호남 화단의 선구자로 지칭된다. 그는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비롯한 많은 선비들과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1519년 고향 화순으로 낙향하였다. 도학사상과 개혁 정치의 꿈은 무산되고 조광조가 사사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던 고통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그의 「절죽도(折竹圖)」에서 표현된 것처럼 왕족의 중간부분이 꺾인 대나무 그림은 당시 참담한 선비들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성품을 지닌 양팽손은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에 속한 「연지도(蓮芝圖)」는 중국다호(茶壺)로 보이는 다기와 함께 각기 연꽃과 연지(連枝)가 주된 소재가 된 2폭의 그림으로 음다 공간과 음다 공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구들을 엿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다화(茶畵)들을 살펴 그림 속의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서 음다

공간의 경관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차에 관련된 그림들의 특징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대부분 실명으로 그림의 량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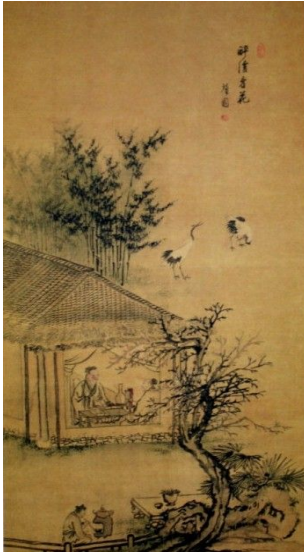
<그림12>유춘(有春) 이인문(李寅文),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18세기중엽, 족자 종이에 수묵담채(水墨淡彩), 86.3cm × 57.7cm, 국립박물관소장.

도화서 화원 이었던 유춘(有春)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의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에 나타난 음다 공간의 경관을 살펴보면 산수 수려한 누각에서 시회(詩會)를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사현청유도(四賢淸遊圖)」라고도 한다. 4현(四賢)은 그의 말년인 76세 때에 그의 벗들을 말한다. 이들은 죽림칠현에 자신들을 비유하여 좌측에 의자를 앉고 측면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인문(李寅文)이다. 그와 마주보고 있는 인물은 수월당(水月堂) 임희지(林熙之, 1765~?)이며, 우측의 기둥에 걸터앉아 있는 이는 단계(丹溪) 김영면(金永冕, ?~?)으로 「사현청유도」의 제발(題跋)을 쓴 사람이다. 좌측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창밖을 보고 시를 읊조리는 사람은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7)이다. 특히 신위는 차에 관한 시를 많이 남긴 인물로 차문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김영면의 발제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평가로 자신들을 칠현(七賢)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기암절벽과 절벽 전후로 보이는 소나무, 가운데에 누각(樓閣)을 배치하고 우측으로 시냇물을 그려 넣어 공간적인 배치나 조경학적 측면에서 볼 때 훌륭한 음다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13> 이인문 「선동전다도(仙童煎茶圖)」, 지본채색(紙本彩色),  
41cm × 30.8cm,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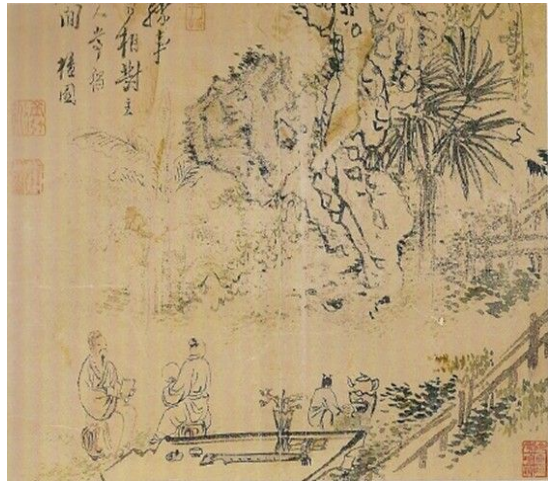
이인문의 「선동전다도(仙童煎茶圖)」는 초인적인 붓칠로 강한 기운을 지닌 폭포수 앞에 노송(老松)의 휘어진 가지는 초월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아래 세상사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열심히 부채로 불을 지펴가며 차를 끓이는 다동의 모습은 선동(仙童) 그 자체이다. 선동 옆에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커다란 뿔을 지닌 숫 사슴도 선동과 하나 되어 선계(仙界)의 멋과 여유를 흠뻑 취해 있다. 세상사 일체의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고 초탈한 자연의 세계에서 노닐면서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이라는 것을 「선동전다도」를 통해 은유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처럼 음다 공간은 선의 세계로 동일시 여겼다.



<그림14>

<그림14>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 「취후간화(醉後看花)」

지본수묵담채(紙本水墨淡彩), 78.2cm × 43.3cm, 국립박물관 소장.



<그림15>

<그림15> 단원 김홍도, 「전다한화(煎茶閒話)」

지본담채(紙本淡彩), 26.0cm × 21.8cm, 간송미술관 소장.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던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의 「취후간화(醉後看花)」는 두 선비가 매화에 취해 차를 마시는 풍경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림의 배경을 살펴보면 북송의 매화시인이었던 임포(林逋, 967~1028)의 고사가 담겨있다. 임포는 불편한 몸으로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며, 매화를 부인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으며(梅妻鶴子) 독신으로 생애를 마쳤던 인물이다.

괴석 앞에 오랜 세월을 지내 온 매화나무의 멋스러운 꽃가지형태가 운치를 풍기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총각머리를 하고 있는 다동은 노련한 솜씨로 차를 끓이고 있다. 뒤편 대나무의 푸름과 함께 한 쌍의 학의 모습에서는 신선세계가 그려진다. 한가로운 흥취 속에서 사대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고고한 정신을 대나무와 학과 매화, 괴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음다 공간의 그림이다.

김홍도의 「전다한화(煎茶閒話)」는 여름철 야외의 음다 공간을 표현한 그림이다. 무성한 나무들이 우거진 산속에서 두 선비가 의자에 앉아 부채로 더위를 식히며 한가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총각머리를 한 다동은 차 주전자를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부채로 불을 지피며 차 끓이고 있다. 탁자 위에는 책·거문고·지필묵, 그리고 제법 큼직한 화병에는 꽃이 꽂혀있다. 야외풍경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따로 찾자리에 꽃을 준비한 걸로 보아 문방사우와 함께 꽃을 중요시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실내 음다 공간의 정취를 그대로 옮겨 온 듯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연 속에 펼쳐진 음다 공간은 더위로 인한 방심한 마음을 다스리고자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공간적 요소를 갖춘 음다 공간이라 생각된다.



<그림16>

<그림16> 김홍도 「초원시명도(蕉園試茗圖)」

지본담채(紙本淡彩), 37.8cm × 28cm,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17>

<그림17> 소치(小痴) 허련(許鍊), 「완당난화(阮堂蘭話)」

지본묵서(紙本墨書), 26.5cm × 12.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초원시명도(蕉園試茗圖)」에서는 선계(仙界) 입구에 가까운 질박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초가 질푸른 은사(隱士)

의 마당에서 동자가 길화로에 무쇠다관을 올려놓고 쭈그려 앉은 채 부채질을 하며 숯불을 피워 차를 끓이고 있다. 파초 아래에는 마당의 돌맹이 위에 거친 나무판을 올려서 만든 질박한 서탁(書卓) 위에 책 두 권에 작은 원형 벼루와 몽당 떡, 불품없는 죽자 세 개, 줄 없는 거문고, 투박한 찻잔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은사의 조출한 살림이다. 은사는 시상(詩想)이 떠올라 행음(行吟) 중인지 보이지 않고, 서탁 옆에 사슴이 앉아있는 것은 긴 시간 인적이 끊긴 심산유곡을 말해준다.

소치(小痴) 허련(許鍊)의 「완당난화」에서 그려진 인물은 소치의 스승인 추사 김정희이다. 추사의 말년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의 유행과 매석(梅石)에호 경향, 화로의 주전자, 채색 잔이 알려주는 차문화, 청나라의 경학과 금석고증학의 새로운 성과를 담고 있는 채색 포갑(包匣)의 중국서적과 수선화, 중국식 탁자, 화문석 등 추사의 문화성향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소치에 대한 추사의 사랑과 스승에 대한 소치의 존경심이 가득하다.<sup>127)</sup>

방 한쪽의 탁자 위에 핀 매화가 봄날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화로 위에서는 주전자에 찻물이 끓고 있다.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찻잔은 가끔 찾아오는 다우(茶友)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추사의 생활의 한 단면으로 차를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마시는 음다 공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의관을 정제하고 글을 쓰는 추사 김정희의 모습에서 올곧은 사대부의 풍모가 보인다. 그 당시의 수선화는 귀한 식물이었다. 「수선화부(水仙花賦)」를 쓴 추사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활짝 핀 꽃향기가 방안에 차향과 어울려 운치를 더한다. 다사를 직접 행하는 사대부의 고상한 일상의 어느 날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서재는 음다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27) 국립광주박물관,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의 200년』, 비에이디자인, 2008, p.60.





<그림18>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선유도(船遊圖)」

1764년, 종이에 수묵담채(水墨淡彩), 27.3cm × 40cm, 개인소장.

조선 후기의 화가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은 겸재(謙齋) 정선(鄭敼)과 더불어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이다. 이 작품은 몇 안 되는 기년작 중의 하나로 오른쪽에 보이는 ‘갑신신추사(甲申新秋寫)’ 라는 간기의 갑신(甲申)은 1764년에 해당하므로 그의 57세 때 그림으로 비교적 만년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선유도」의 내용을 보면, 쪽배 위에는 성근 대밭로 지은 집이 있다. 살림살이는 네모난 좌식 탁자 위에 책 몇 권, 붉은 매화 가지가 있는 화병 하나, 대접과 찻잔이 하나씩 놓여있을 뿐이다. 그에게 배 위는 멋진 음다 공간이다. 배위에 이러한 기물들을 그려 넣은 화가의 독특한 발상이 제법 운치를 더하고 있다.

바다에는 폭풍이 이는 듯 험한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하늘에는 세찬 반향(反響)하듯 굽이치는 먹구름이 덮여 있는데 이 작은 배는 이상할 만큼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왼쪽 위에는 두 선비가 조금의 동요도 나타내지 않은 채 파도를 감상하며 뱃전에 기대어 있고 그 반대편 끝에서 노 젓는 사공이 대단히 힘에 겨운 듯 몸을 기울려 힘쓰고 있다. 천년을 산다는 학 한 마리가 늙은 나무 등걸 위에 앉아 있다.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여럿 가운데 뛰어나서 그 인품이 고고한 사대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음이 통하는 벗과 더불어 배에 타고 있는 사대부는 이미 신선인 것이다. 실로 운치 있는 음다 공간을 선유(船遊)에 담은 풍류(風流)를 볼 수 있다.



<그림19> 혜산(蕙山) 유숙(劉淑), 「벽오사소집도(碧梧社小集圖)」  
1861년, 지본담채(紙本淡彩), 14.9cm × 21.3cm, 서울대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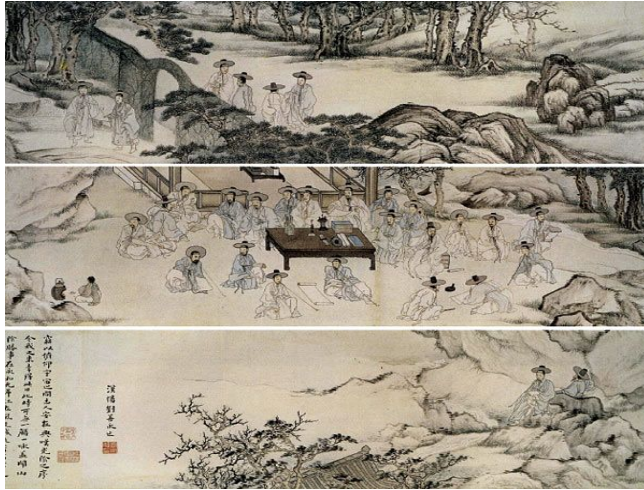
혜산(蕙山) 유숙(劉淑, 1827~1873)의 「벽오사소집도(碧梧社小集圖)」는 벽오사에 모인 것을 기념하여 유숙이 그린 소집도이다. 유숙은 조선말기 중인들의 문회(文會)인 벽오사(碧梧社)로 유취진(柳最鎭, 1791~1869)과 현종의 어의(御醫)였던 이기복(李基福, 1783~1863)과 함께 벽호사의 중심인물로 어의로 활동한 중인이다. 대부분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였고, 당대의 여항문인들은 사대부와 넓은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다. 벽호사란 이름은 유취진의 집안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늙은 벽오동이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다.<sup>128)</sup> 우봉(又峯)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을 비롯한 여섯 친구들<sup>129)</sup>이 유취진의 벽호당에 모여 시와 그림을 즐기고 있는 모습<sup>130)</sup>이고 아래쪽에는 차를 끓이는 다동이 그려져 있다. 호숫가 대나무 숲 근처에서 이루어진 모임의 모습에서 당시 음다 공간을 엿볼 수 있다.

128)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p.414.

129) 유취진(柳最鎭, 1791~1869), 이기복(李基福, 1783~1863), 김익용(金益鏞), 조희룡(趙熙龍, 1780~1866), 이팔원(李八元, 1798~?), 유취진의 아들 유학영.

130) 조희룡, 『매화 삼매경』, 태학사, 2009, p.133~134.





<그림20> 유숙(劉淑), 「수계도권(修契圖卷)」

1853년, 지본담채(紙本淡彩), 28.3cm × 255.5cm, 개인소장.

유숙의 「수계도권(修契圖卷)」그림에서는 사대부들이 약속 된 산장에 모여 자유롭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을 세세하게 표현한 기록화이다. 탁자 위에는 문방사우·서책·그림 그린 두루마리·향로들이 펼쳐 있다. 그림 하단에는 다동이 차를 끓이고 있다. 사대부들이 모이는 곳에는 대부분 다동들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음다 공간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특정인을 기념하기 위한 아회도(雅會圖)이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을 자세하게 처리하였다. 긴 수권(手卷)에 참석자의 글을 실었다. 이는 특정일을 기념하고 자축함과 동시에 모임의 성대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sup>131)</sup>

위의 그림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연추구의 정신과 차를 무척 애호하고 있었으며, 차 마시는 계층이 사대부를 비롯해 여향인(閭巷人)들도 차생활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여향인들은 주로 기술 잡직이나 미관말직에 종사하는 인물들로 가치관과 취향은 사대부의 의식세계를 따랐다. 또한 이들은 문인들의 일상생활이었던 시·서·화(詩書畵)를 답습하며 신분상승을 꾀

131) 송희경, 「19세기 碧梧社의 雅會;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五老會帖』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 2003, p.84.

하고 자아성취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은 차를 귀하게 여겼으며, 차의 물질적·정신적인 효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차를 마셨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차가 귀하고, 차 끓이는 일이 수고스럽고, 얼마간의 지식이 있어야 차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기에 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차 끓이는 일을 담당하는 다동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누각아집도」, 「선동전다도」, 「취후간화」, 「전다한화」, 「완당난화」, 「선유도」, 「벽오사소집도」, 「수계도권」 등의 그림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 음다 공간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음다 공간의 멋은 당시의 문화와 정서, 운치 등이 사대부들의 취향과 자연성 및 장소성 등과 같은 경관요소를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차와 관련된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장면들을 분석하여 한국 전통사회에서 음다 공간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도 알 수 있었다.

첫째,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좋아하는 음다 공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호수, 연못과 폭포, 바다, 강 등과 기암괴석과 같은 자연물들과 관련된 경관을 음다 공간과 함께 연출하고 있었다. 셋째, 학과 사슴, 매화, 소나무, 파초, 대나무 등의 동식물들을 음다 공간에 등장시켜 완상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재하고 있는 상징적 요소를 자신의 정신세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음다 공간 속에 나타난 다사(茶事)

한국의 음다 공간에 대한 특징을 알기 위하여 그림에 나타난 음다 공간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음다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사(茶事)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사의 정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사란 광의적 해석은 차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련(一連)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며 협의적 해석은 차를 마시기 위해 다뤄지는 여러 가지 일을 뜻한다. 이제까지 살펴본바 다사는 주로 음다 공간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은 다사를 공부로 여기며, 중요시 하였다. 그들은 좋은 물을 손수 길러와 손수 차를 끓여 마셨다. 그리고 사대부뿐만 아니라 차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게 차는 군자

의 성품을 지닌 음료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의선사가 산천(山泉) 김명희(金命喜, 1788~?)에게 보낸 「봉화산천도인사차지작(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이란 시에서도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차를 좋아했네. 차는 군자와 같아서 성품에 삿됨이 없다오(古來聖賢俱愛茶 茶如君子性無茶).’<sup>132)</sup>라고 했다.

이는 차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삿되지 않게 하여 군자의 덕을 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를 담아 마시는 찻잔 또한 삿됨이 없음은 차의 본성이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 말의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조선 전기의 이우량(李友諒, 1532~?)이 보낸 편지와 찻종 한 쌍을 선물 받고 쓴 시의 한 부분에 “평안하다는 소식 더욱 기쁘고 찻종 대하니 아담하여 삿됨이 없네(得閱平安喜已多 茶鐘昭目便無邪)”<sup>133)</sup>라고 읊고 있다. 이는 차의 성품 또한 무사(無邪)였기에 사대부들에게는 다사를 통해 군자로서 덕을 쌓을 수 있는 행동원리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사대부들에게 다사는 군자가 수양을 실천하는 일로 여겼다.

이색의 「차후소영(茶後小詠)」이란 시를 살펴보면, 다사를 통해 『대학(大學)』의 「팔조목(八條目)」을 실천하는 군자의 모습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조그마한 병에 샘물을 길어다가	小瓶汲泉水
깨진 솥에 노아차를 끓이노라니	破鑪烹露芽
귓속은 갑자기 맑아지고	耳根頓淸淨
코끝엔 붉은 놀이 통하여라	鼻觀通紫霞
잠깐 새에 눈의 흐림이 사라져서	俄然眼翳消
외경에 조그만 티도 보이질 않네	外境無纖瑕
혀로 맛 분변하여 목으로 삼키니	舌辨喉下之
기골은 정히 평온해지고	肌骨正不頗
방촌의 밝은 마음 깨끗하여	靈臺方寸地
생각에 조금의 사도 없으라	皎皎思無邪
어느 겨를에 천하를 언급하라	何暇及天下
군자는 의당 집부터 바꾸어야지	君子當正家 <sup>134)</sup>

132) 천병식, 『역사 속의 우리 다인』, 도서출판 이문아침, 2004, p.27.

133)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1996, p.74.

이는 올바른 차생활을 통해 다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먼저 사물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는 격물(格物)로 차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치지(致知)는 차에 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며, 성의(誠意)는 다사에 있어 매사 정성스러움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다사를 통해 바른 마음을 갖고(正心) 자신의 몸을 닦고(修身), 집안[사회] 일을 잘 다스리며(齊家), 더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자신의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는 평천하(平天下)를 이루려 하였다. 이는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대학(大學)』의 「팔조목(八條目)」이다. 이처럼 선비들은 대학의 팔조목을 생활하고자 음다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수양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음다 공간으로 삼았다.

불가에서도 수행을 위해 좌선과 명상을 할 때 차를 가까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음다 공간은 수행의 장소요, 명상과 좌선을 위한 장소였다.

고려시대의 승려인 대각의천(大覺義天, 1055~1101)의 「화릉서운(和隴西韻)」에 보면, 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매체로 불가에서도 다사를 생활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하고 술 난간 돌며 괴로운 맘 읊다가도  
다원에서 차 덥는 향기에 가슴 시원하여라.

講廻松檻吟魂苦  
焙了茶園渴肺凍<sup>135)</sup>

소나무가 울창한 난간을 돌면서 암송하기를 반복하지만, 정신이 산만하여 마음만 초초하던 차에 바람결에 실려 오는 다원에서 차 덥는 향기로 괴로운 마음 다스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고요한 절간에서 찾아내는 다사의 일거일동은 바로 수행이며 자성을 찾는 길이다.

김교각(金喬覺, 697~794)의 「송동자하산(送童子下山)」이란 시를 통해 절집이 음다 공간으로 다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4)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6권, 시(詩), 차를 마시고 나서 작게 읊다(茶後小詠), 고전번역총서

135)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上』 앞의 책, p.182.

절간이 적막해서인지 넌 집을 그리워하더니	空門寂寞汝思家
승방에서 이별 인사하고 구화산을 내려가네	禮別雲房下九華
대나무 난간에서 죽마타기 좋아하고	愛向竹欄騎竹馬
절집에서 공부하는 데는 게을렀지	懶於金地聚金沙
시냇물 병에 담다 달을 부르는 것을 그만 두고	添瓶澗底休招月
차 솥에 차 끓일 때 탕화(湯花)놀이마저도 그만 두겠지	烹茗甌中罷弄花
잘 가고 자주 눈물 흘려서는 아니 되리니	好去不須頻下淚
노승에겐 서로 벗할 안개와 노을이 있느니라	老僧相伴有煙霞 <sup>136)</sup>

신라의 고승인 김교각은 왕자 출신으로 중국에 건너가 각지를 돌며 구도생활을 하다가 구화산(九華山)에 화성사(化城寺)를 짓고 불법을 설교하였다. 그의 법력이 세상에 자자하여 어느 날 한 노인이 불치병에 시달리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교각을 찾아가다 호랑이에게 물어뜯기고 아이는 교각이 구했다. 이때 아이 나이 5세였다. 6년이 지난 후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 와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교각은 동자에게 구화산을 내려가도록 했다. 이때 그는 세상에 형태가 있는 것은 모두 인연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 본질은 본래 허무한 존재임을 어린 동자의 다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다사에 관한 글들을 보면, 손수 불꽃을 다루며, 차를 잘 끓이는 법을 공부하고 노력하며 터득하였다.

고려 말의 목은 이색의 차물 끓는 소리를 표현한 예를 보면, “돌솥에 차 끓는 소리 시보다 맑구나(茶鳴石鼎清詩律)”,<sup>137)</sup> “물 끓이는 소리를 듣다(聞煎水聲)”,<sup>138)</sup> “소나무 가지 끝에 드날리는 비를 보네(松梢看飛雨)”,<sup>139)</sup>

조선전기의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문무활화(文武活火)’에 손수 차를 달이면서 그 소리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로 들었다는 것이다. 「즉사(卽事)」시에 보면 ‘물통을 이어 대어 냇물 끌어오는 것은 파초 길러 비 오는 소리 듣기 위해서네(連筒引却前溪水 養得芭蕉聽雨聲)’<sup>140)</sup>라고 했다.

136) 한치윤(韓致胤), 『해동역사(海東繹史)』 「해동역사제47권」, 예문지(藝文志) 6, 우리나라 시(詩), 고전번역총서.

137)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13권, 시(詩), 눈, 고전번역총서.

138) 이색(李穡), 『목은고(牧隱藁)』 「牧隱詩藁」 卷之二十七, 詩, 聞煎水聲, 한국문집총간.

139)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3권, 시(詩), 영천(靈泉), 고전번역총서.

140) 서거정, 『해동역사(海東繹史)』 「해동역사제48권」, 예문지(藝文志) 7, 우리나라 시(詩)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느껴보자는 심사이다. 파초에 떨어지는 빛 소리를 즐기면서 차 한 잔의 묘미를 배가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조선 전기의 만보당(晩保堂) 김수동(金壽童, 1457~1512)은 「저울눈 보듯 불 길을 다투며 차를 끓인다」<sup>141)</sup>에서도 보면, 이처럼 물을 끓이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요, 때론 절제하는 것으로 여기며 정성을 다하였다.

조선 중기의 간이(簡易) 최립(崔崧, 1539~1612)의 “오직 솔바람 좋아해서 풀 베어 집을 지었으니(誅茅摠爲愛松風)”<sup>142)</sup> 등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자하 신위도 차의 기미(氣味)를 잘 내는 명인이었다. 직접 차를 끓이며 끓는 소리를 ‘송풍소리’, ‘행랑채 비오는 소리’에 비유하였다. 신위는 이색·최립·서거정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차를 끓여 마셔 몸과 정신을 맑게 했으며, 자신을 다스리면서 위로하는 음다생활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143)</sup> 그들은 자신들만의 음다 공간에서 조용히 자연의 소리와 접함으로써 머리를 쉬며 긴장과 중압감 등을 덜기도 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육우의 『다경』 「오지자(五之煮)」에서 물을 평하기를, “차를 달이는데 사용하는 물은 산의 물이 상품이요, 강물이 중품이요, 우물의 물이하품이다(其水, 用山水上, 江水中, 井水下).”<sup>144)</sup>라고 하였고, 당대(唐代) 소이(蘇廙)도 『탕품(湯品)』에 이르기를 끓인 물이란 차의 목숨을 맡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이름난 차라도 물을 함부로 한다면 평범한 찻가루와 다를 바가 없다<sup>145)</sup>라고

---

2 본조(本朝) 상(上), 즉사(卽事), 고전번역총서.

141) 정영선, 『한국차문화』 앞의 책, p.272.

142) 최립(崔崧), 『간이집(簡易集)』 「간이집제6권」, 초미록(焦尾錄), 송풍정(松風亭)에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 고전번역총서. /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을 가리킨다. “그가 특히 솔바람 소리를 좋아한 나머지 정원에 온통 소나무만 심어 놓고는 그 음향을 들을 때마다 흥연히 즐거워하였다(特愛松風 庭院皆植松 每聞其響 欣然爲樂)”는 기록이 있다. 『南史 卷76 陶弘景傳』.

143)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pp.49~50.

144) 치우지평(裘紀平), 앞의 책 p.174.

“여산 강왕곡의 수렴제가 제1이요, 무석현 해산사의 돌샘물이 제2이요, 기주 난계의 돌말물이 제3이요, 협주의 선지산 밑의 돌물이 제4이요, 소구 호구사의 돌샘물이 제5이요, 여산 초현사 하방교의 못물의 제6이요, 양자강 남령수가 제7이요, 홍주 서산 서동의 폭포수가 제 8이요, … …귀주의 옥허동 밑의 향계수가 제14요.”/ 김명배, 『중국의 다도』, 명문당, 2007, p.80~81.

한 걸로 보아 차끓이는 과정도 즐겼지만 차물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다인 영수합 서씨(令壽閣徐氏, 1753~1823)는 「고요한 밤 차를 끓이며(靜夜烹茶)」라는 시의 부분에서 “여러 해 동안 차를 끓였으니 신공(神功)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은근한 불과 작은 차로에 차를 끓였으니	幾年文火小茶爐
신기하고 영모한 공덕 조금은 있을 테요	一點神功定有無
봄날 차반의 푸른 잔에 옥로차를 올리오니	春盤碧碗添玉露
낡은 벽은 연기 서려 그림이 되었다오	古壁煙籠作粉圖 <sup>146)</sup>

이 시는 화창한 봄날 저녁에 영수합 서씨가 작은 화로에 은근한 불로 차를 끓여 마시는 장면이다. 차를 끓일 때는 문화(文火, 은근한 불)와 무화(武火, 성급한 불)로 조화롭게 끓여야 한다고 한다. 『다신전(茶神傳)』에 의하면 차를 끓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 다루기<sup>147)</sup>인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차를 끓인 영수합 서씨는 스스로를 낮추어 말하고 있었다.<sup>148)</sup> 다사를 통해서 그녀는 차의 정신을 깨닫고 있다. 이에 영수합서씨의 「가족 시」를 살펴보면 다사를 통한 가족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개인 후 달 밝으니(족수당)

성긴 밭에 구름 그림자 어리고(영수합)

멀리서 온 사람 흥에 겨워(영수합)

밝은 달빛 좋기도 하네(석주)

허공이 밝아지니 하늘도 넓고(석주)

이슬은 내려 꽃 적시네(길주)

누각은 허공 에 솟았고(길주)

---

145) 김명배, 『중국의 다도』, 명문당, 2007, p.95.

146) 박희준, 『차 한 잔』, (주)계문사, 2003, p.157.

147) 초의선사, 강우석 옮김, 『다신전(茶神傳)』 위의 책, p.69. ‘烹茶旨要 火候爲先.’

148) 박희준, 위의 책, p.157.

달은 산봉우리에 걸려 있네(원주)  
구름 걷힌 하늘은 고요가 서렸는데(원주)

나무 사이엔 별이 돋았구나(현주)  
걸어 논 등잔에 밤은 깊어지고(현주)

바람소리 피리처럼 뚜렷이 들리는데(족수당)  
서로 만나 기뻐서 마음껏 웃고(족수당)

둘러앉아 술 마시며 즐거워하네(영수합)  
붓을 들어 좋은 시 짓고(영수합)

이루지 못하면 별주를 마셔야 하네(석주)  
계단 둘레엔 아름다운 나무 둘렀고(석주)

갖추어진 반찬들은 옛 맛 그대로네(길주)  
차가 익으며 시심(詩心)이 일고(길주)

거문고소리 타는 이의 손처럼 맑구나(원주)  
가족들의 이 즐거움은(원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젖어드는데(현주)  
하늘 쳐다보니 은하수는 기우는데(현주)

이 기쁨 영원하길 달보고 빈다네(족수당)<sup>149)</sup>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이 달빛 아래 모여 앉아 어머니(영수합)이 정성들여 만든 안주와 술을 마시며 취기와 시흥이 도도해지자 장유(長幼)의 서열에 따라 시 한 구 두 구를 읊으며, 때로 시사(詩思)가 막히며 별주를 내려 흥을 돋운다. 이때 석간수(石間水)로 차를 끓이는 과정 동안 막혔던 시심이 일고, 청아한 거문고 가락은 마음은 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읊다 공간은 가족들의

---

149)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下』 앞의 책, pp.313~317.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는 공간이며, 화목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동다송(東茶頌)』 「제22절」에서 ‘또 아홉 가지 어려움<sup>150)</sup>과 네 가지 향<sup>151)</sup>이 있으니 현묘하게 다뤄야 한다(又有九難四香玄妙用).’고 했다. 차에는 아홉 가지 어려움과 네 가지 좋은 향기가 있어 차를 다루는 사람은 모두가 이 현묘함을 터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아홉 가지 기준은 차를 다루는 데 있어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52)</sup> 초의는 다사 가운데 제다와 음다 과정에서 만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올바른 다사로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초의는 『동다송』에서 차의 정신적인 면을 깊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음다 공간에 깃든 다도(茶道)사상

다도(茶道)란 다사(茶事)를 올바르게 터득한 이치나 경지를 말한다. 다도라는 명칭은 당대(唐代) 시인 교연(皎然, ?~?)의 시 「음다가초최석사군(飲茶歌 誚崔石使君)」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음을 이 시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잔을 마셔 혼미함 씻겨지니	一飲溌昏寐
마음이 하늘 끝까지 상쾌해지고	情思爽朗滿天地
또 한 잔을 마셔 영혼이 맑아지니	再飲淸我神
비 뿌려 먼지를 씻어낸 듯하네	忽如飛雨洒輕塵
석 잔을 마시자 도의 경지에 이르니	三飲便得道
번뇌가 저절로 물러가네	何須苦心破煩惱
다도만이 온전한 진리임을 알아야	孰知茶道全爾眞
오직 단구자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네	唯有丹丘得如此 <sup>153)</sup>

150) 『다경』 「육지음」 “六之飲」茶有九難 一曰造 二曰別 三曰器 四曰火 五曰水 六曰炙 七曰末 八曰煮 九曰飲.”

151) 『만보전서(萬寶全書)』云 “茶有眞香 有蘭香 有淸香 有純香 表裏如一曰純香 不生不熟 曰淸香 火候均停 曰蘭香 雨前新具曰眞香 此謂四香也.”

152) 초의선사, 『초의선사의 東茶頌』, 동아일보사, 2004. p.152.

이른바 ‘삼음지설(三飲之說)’<sup>154</sup>를 내놓았다. 교연에 이어 봉연(封演)도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 「제6권(第六卷)」에서 “상백웅(常伯熊)이란 사람이 있어 거듭 육우의 이론을 널리 윤색(潤色)함으로써 다도가 크게 성행하였다(有常伯熊者 又因鴻漸之論廣潤色之 於是茶道大行)”<sup>155</sup>라고 하여 역시 다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초의가 처음 바른 다법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큰 진리라는 철학적 의미로 ‘다도’라는 말을 썼다. 그는 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다송』을 썼다고 했으며 조주풍((趙州風)의 다도가 없어져버려 알지 못하므로 『다신전』을 쓴다고 하였다. 초의는 또 김명희(金命喜, 1788~?)에게 “수체(水體)와 다신(茶神)이 열리어 정기(精氣)가 들어오니 곧 대도(大道)를 이루게 된다.” 하여 다도를 대도로 보았다.<sup>156</sup> 이처럼 음다생활을 통해 깨닫는 인식체계나 원리적 견해를 다도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사상을 다도사상이라 한다.

이규보의 「장원(壯元) 방연보(房衍寶)가 화답시를 보내왔기에 차운하여 화답하다(房狀元衍寶見和次韻答之)」라는 시의 부분을 보면 자신의 다도사상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날에 초암의 선방 두드리니	草庵他日叩禪居
몇 권 경거 깊은 뜻을 논해봐야지	數卷玄書討深旨
비록 늙기는 하였지만 손수 샘물 뜰 수 있으니	雖老猶堪手汲泉
차 한 잔이 곧 참선의 시작이네	一甌卽是參禪始 <sup>157</sup>

선가(禪家)에서는 행(行, 가고) · 주(住, 머물고) · 좌(坐, 앉고) · 와(臥, 눕

153) 장소선주(庄昭選注), 앞의 책, p.78.

154) “다도를 숙지해야 너의 참됨을 온전히 할 수 있는데 오직 단구자만이 이와 같음을 얻었다(孰知茶道全爾眞, 唯有丹丘得如此)” 라고 하며 “식 잔을 마시면 곧 득도한다(三飲便得道)”

155) 조기정, 「중국 茶道の 형성과 변천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8집, 2011, p.389.

156)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pp.264~265.

157)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전집」 제13권, 고을시(古律詩), 「장원(壯元) 방연보(房衍寶)가 화답시를 보내왔기에 차운하여 화답하다(房狀元衍寶見和次韻答之)」 고전번역총서.

고)·어(語, 말하고)·묵(默, 침묵하고)·동(動, 움직이고)·정(靜, 고요히 하는 것)은 모두 선(禪)의 대상이다. 이는 인간의 모든 것이 선이라는 뜻이다. 이규보는 한 잔의 차를 통해 자신을 바로 보는 정관(靜觀)이란 세계로 자신의 다도사상을 다선일여(茶禪一如)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으로 정립하였다.

이규보의 시 「천화사에서 놀며 차를 마시고 동파의 시운을 쓰다(遊天和寺 飲茶 用東波詩韻)」에 덩어리 녹태전을 익숙한 솜씨로 차를 달여 반잔의 차를 마셨을 때 삼매경에 이르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지팡이하나로 녹태전을 깨뜨리니	一拱穿破綠苔錢
시냇가 졸던 청둥오리 놀라 깨어나네	驚起溪邊彩鴨眠
점다삼매의 솜씨가 있어	賴有點茶三昧手
눈 같은 차 반잔이 번민을 씻네	半甌雪液洗煩煎 <sup>158)</sup>

지팡이로 굳은 차를 깨뜨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이 시냇가에서 졸던 오리까지 놀라니 자연과 삼라만상이 함께 살아나고 동화됨을 묘사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녹태전을 깨뜨릴 때 이미 시작된 선의 세계는 점다(點茶)에서 절정을 이루어 하나의 삼매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sup>159)</sup>

조선 초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를 통해 다도사상을 알 수 있다. 그는 차의 오공(五功)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功)이라 함은 노력 또는 정성을 지닌 말이다. 이어 육덕(六德)을 설명하고 있다. 유가에서 덕(德)이란 도를 행하여 얻어진 품성을 뜻한다. 그리고 도는 성(性)을 따르는 것이고, 성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차의 덕은 차의 성을 의미한다. 한재가 논한 차의 여섯 가지 덕목을 종합해 보면 차생활은 우리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베풀고 인간애를 가슴에 지니게 하며, 맑은 사람으로 옳음을 분별할 줄 알게 한다. 또한 속세의 욕망을 절제하여 정신적 수양으로써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는 진정한 문화인으로 갖춰야할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60)</sup>

158)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전집」 제3권, 고을시(古律詩), 천화사(天和寺)에 놀며 차를 마시고 동파(東坡)의 시운을 쓰다,

159) 송해경, 「초의의순의 다도관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7, p.139.

160) 염 숙, 「寒齋 李穆의 道學精神과 茶道思想」, 원광대 박사논문, 2007, pp112~113.

이목의 도의 경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기뻐하며 노래 하네	喜而哥曰
내가 세상에 태어남이여 풍파가 모질도다	我生世兮風波惡
양생(養生)에 뜻이 있음에	如志乎養生
차를 버리고 어떤 것을 찾겠는가	捨汝而何求
나는 너를 지니고 다니며 어디서나 마시니	我携爾飲
너는 나를 따라 노닐자꾸나	爾從我游
꽃피는 아침에도 달뜨는 저녁에도	花朝月暮
노상 즐겁기만 하네	樂且無歎
늘 내 곁에 하늘같은 백성(天君)이 계시니	傍有天君
조심스럽게 말하겠네	懼然戒曰
삶은 죽음의 근본이요	生者死之本
죽음은 삶의 뿌리라네	死者生之根
단지 마음만 다스리면 몸은 시들기에	單治乃以外凋
혜강(洵康)이 양생론(養生論)으로 어려움을 이겼지만	嵒著論而蹈艱
한 잔의 차에 빈 마음을 담고	曷若泛虛舟於智水
어진 산에 좋은 차나무 심는 것만 하겠는가	樹嘉穀於仁山
신령스런 기운 감돌아 현묘함에 이르러	神動氣以入妙
즐거움 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나니	樂不圖以自至
이 또한 내 마음의 차이거늘	是亦吾心之茶
어찌 다른 데서 찾겠는가?	又何必求乎彼也 <sup>161)</sup>

한재는 「다부」를 통해 차의 성품으로 인해 차를 좋아하고 즐기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한재에게 차는 맛과 멋보다는 마음을 수양하는 정신음료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심지차(吾心之茶: 내 마음의 차)’라고 노래하며 「다부」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는 도학자로서의 전통적 권위 확보는 물론, 나아가 자신의 사상적 배경이 된 도학(道學)사상과 낙도(樂道)사상을 연결하여 차의 성품을 탐구하고 터득하며 즐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차가 있고, 모든 진리와 모든 우주의 섭리(變理)가 마음속에

161) 이목, 김길자 옮김, 『이목의 차노래』, 두레미디어, 2001, pp. 124~125.

있음을 강조하여 ‘吾心之茶’를 노래하며, 茶가 바로 마음[心]이라는 ‘茶心一如’의 사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내 마음의 차’를 마심으로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고 천인합일(天人合一)되니, 이 또한 ‘차와 하나됨(茶心一如)’이 한재의 다도의 경지요 사상이다.<sup>162)</sup>

초의가 말하는 다도사상은 『동다송』 29송에서 표현되고 있다.

체(體)와 신(神)이 비록 온전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정을 잃을까 두려우니  
중정(中正)을 잃지 않으면 건(健)과 영(靈)<sup>163)</sup>을 함께 얻느니라.

차의 현묘함을 나타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참다운 물을 구해 알맞게 끓인 탕수에 또 현묘하게 만든 차를 넣어 우린다 해도 우리는 과정에서 중정을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잘 끓인 물에 타는 차는 적당량이어야 하고 물의 농도 또한 찻잎의 향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의선사는 『동다송(東茶頌)』에서 ‘물과 차가 잘 어우러진다 해도 오히려 중정을 잃을까 두려우니, 중정(中正)을 잃지 말아야 다신(茶神)과 수령(水靈)이 어우러진다네’라고 하였다. 이는 차를 우리는 동안 중정을 잃지 말아야 물과 차가 제대로 어우러져 제 3의 물질, 즉 신령스러운 한 잔의 차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신(神)과 체(體)와 건(健)과 영(靈)을 함께 얻는 것을 다도의 경지, 현묘한 경지라고 했다. 이는 제대로 된 물(體)과 제대로 된 차(神)를 통해 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초의의 다도사상은 ‘정(正)’과 ‘중(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과 중은 다사와 행다례의 원리가 되고, ‘정’과 ‘중’은 다구나 다실의 미의식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도의 정중사상은 다인의 윤리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up>164)</sup> 이처럼 다사를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분별과 조화는 삶을 이롭게 하는 원천이 되는데 이것이 다도사상이다.

추사 김정희는 다도사상을 도심(道心)의 체(體)와 용(用)에 결부 시켰다. 그가 남긴 친필 목적을 살펴보면, ‘마음을 다스리며 고요히 앉아 있으니 차가 익어 향기가 나고, 오묘한 때에 도심이 드러나니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난다

162) 염숙, 「寒齋 李穆의 도학정신과 다도사상」,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7. p.160.

163) 차신(茶神)과 수령(水靈): “차신은 바로 차의 몸인 물을, 수령은 차의 마음인 정신을 말한다(體神雖全猶恐過中正 中正不過健靈併).”

164)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p.266~268.

네(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 이 시는 북송(北宋)의 산곡(山谷)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글을 추사가 인용하여 써내려 간 글로 당시 유학자들은 정좌(靜坐)는 수양의 일환이었다.<sup>165)</sup> 그가 남긴 목적에서도 ‘한나절은 정좌하고, 한나절은 독서를 하네(半日靜坐 半日讀書)’라 하여 선비가 되기 위한 수양방법인 독서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에서 정좌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일어나기 전 미발(未發)의 상태에서 마음이 치우치지 않은 중(中)의 상태로 집중(執中)하는 것을 말한다. 다산 정약용도 정좌를 미발의 상태로 보고 ‘정좌는 중을 얻기 위해 항상 중을 생각하되 마음에 일물(一物)이 전혀 없다는 정자(程子, 程頤 1033~1107)의 설(說)은 좌망(坐忘)이 아니라 정좌에도 사랑(思量)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166)</sup>’ 라고 하였다.

추사는 한 잔의 차를 대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한 잔의 차가 서서히 우러나는 과정을 통해 차의 향기는 깨달음을 터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中)의 상태에서 화(和)의 상태로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사의 다도사상은 중화(中和)사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가에서 선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사유하는 것을 말하고, 사유의 정점이 선정이며, 그것은 삼매에 접어든다. 삼매는 선을 닦아서 얻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로 해탈의 경지이며, 참된 지혜가 터득된 경지이다.

초의의 다선삼매는 전부터 면면히 내려오던 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승려들이나 사대부들은 다도를 통해 삼매경에 도달한 다도삼매·선다삼매(茶道三昧·禪茶三昧)를 말한다.

조선 후기의 역관인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은 「차를 따르며(挹茶)」라는 시에서 찻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부처라고 하여 다도 자체가 성불의 길임을 밝히고 있다.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니

小盃挹茶水

천 개의 거품이 잠깐 동안 일어나네

千漚何蕩發

둥근 빛이 구슬처럼 흩어지는데

圓光散如珠

165) 정영선, 『한국차문화』 앞의 책, p.252.

166)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2집, 대학 강의 제2권, 「심성총의」 37集 左.

하나의 구슬은 한분의 부처님이라네	一珠一尊佛
덧없는 인생은 순간일 뿐인데	浮生彈指頃
천억의 몸은 황홀하다네	千億身恍惚
차를 마시니 손과 눈이 열리고	如是開手眼
털과 머리카락이 확연히 분별되는구나	如是分毛髮
깨달은 경지에선 모두 머리를 끄덕이고	悟處齊點頭
참선할 때는 함께 망념을 떨치네	參時同豎拂
누가 스승이며 누가 중생인가	誰師而誰衆
나도 없고 남도 없네	無我亦無物
망망한 항하의 모래같은 중생들을	茫茫恒河沙
두루 제도하기 위해 뗏목 부르지 않아도 된다네	普渡非喚筏
차가운 꽃은 깨달음의 탄식으로 변하고	泡花幻一嘘
공(空)과 색(色)은 조각달에 잠기었구나	空色湛片月
삼생(三生)이 여린 차쌍에 비치어	三生金粟影
좌망하여 잠시 오뚝 앉았다네	坐忘何兀兀
만 가지 인연은 참된 것이 아니니	萬緣了非眞
어찌 좋아하고 기뻐서 소리칠 일이 있으리	焉喜焉足喝
육유의 다경으로 등불을 전했고	經傳陸羽燈
노동은 다가(茶歌)을 읊어 바릿대를 준 것이라네	詩咒玉川鉢 <sup>167)</sup>

이처럼 우리의 선인들은 차생활 자체를 오도(悟道)로 보았으며, 음다 공간은 그들에게 있어 정신적 안식처요, 낙원이었다. 이곳에서 부처를 만나 부처가 되기도 하고, 때론 군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신선이 되어 봉래산을 넘나들며 자신의 철학 세계와 결부시키면서 다도사상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 제2절 중국의 음다 공간

중국의 음다 공간의 역사는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깊은 역사를 지

167) 이상적(李尙迪), 『은송당집(恩誦堂集)』 「恩誦堂集詩」 卷二, 李尙迪惠吉, 詩, 挹茶, 한국 문집총간

니고 있다. 그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 어느 곳이든지 음다 공간이 되어 왔다. 공간은 첩첩 산중, 샘물 가, 시냇가 옆, 죽림, 꽃 앞에서, 달 아래서, 흰 구름이 있는 깊숙한 곳, 혹은 대청, 객실, 서재, 매우 작은 방 등으로 음다 공간은 공간적 개념을 초월하였다.

천일합일(天人合一)사상은 그들의 음다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대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그들은 자주 자연 풍광을 빌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연 어느 곳에서 차 마시는 것 자연스럽게 여겨왔다.<sup>168)</sup>

육우(陸羽) 『다경』 「구지략(九之略)」에서 “차 달이는 그릇을 만약 소나무사이의 바위 위에 앉을 수만 있다면 구열(具列)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샘물이나 산골 물 근처에서 차를 달이게 된다면 물통·개수통·물거름자루 등은 쓰지 않아도 된다.”<sup>169)</sup>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차 마시기 위한 실용적 다구들을 개발하였다. 한 예로 중당(中唐)의 시인 여온(呂溫, 772~811)의 「3월 3일다연(三月三日茶宴)」이란 시에 보면 음다 공간 설정이 매우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3월 3일은 청명절의 연회를 베푸는 날이다	三月三日禊飲之日也
제자가 의논하면서 차를 따라서 술을 대신한다	諸子議以茶酌而代焉
이에 섬돌에서 꽃을 뽑고, 뜰의 그늘진 곳을 좋아 해	乃撥花砌愛庭陰
맑은 바람이 사람을 따르고, 햇빛에 흥이 남아있다	淸風逐人日色留興 <sup>170)</sup>

삼진날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중국인들은 청명절에는 교외에 나가서 자연을 즐겼는데, 이날 야외로 나가 차를 마시며 맑은 바람과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다연을 베푼다. 이처럼 실외 음다 공간에서 잠시 시흥에 젖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며 자연과 동화되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168) 이신령(李新玲), 『詩化的 品茶藝術』, 中國農業出版社出版, 2008, p.46.

169) 치우지평(裘紀平), 앞의 책, pp.340~341.

“其煮器 若松間石上可坐 則具列廢 若瞰泉臨澗 則水方 淥方 灑水囊廢.”

170) 왕충린(王從仁), 앞의 책, p.169.



당대(唐代)에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대중적 음다 공간인 다관(茶館)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장안(長安)에는 여러 곳에 다관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까지 모여 서로의 정보와 문화를 교환하기도 하고 여흥을 즐기기도 하였으며, 각자 필요한 물건들도 구입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귀족들은 다관에는 별로 가지 않고 개인의 집에 음다 공간을 마련하여 차생활하기를 더 선호하였다. 귀족들은 음다 공간에서 독서를 하며 차를 마시거나, 벗을 불러 함께 차를 마시며 시국을 논하고, 자신들의 재주를 과시하기도 하는 교류의 장이었다. 멀리 있는 친구를 회상하면서 차를 마시며 사유하며 시흥에 젖었던 장소로 예술적 창작의 산실이였다. 때로는 대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누각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였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절의 선방에서 차 마시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사원 주변에 그윽한 산림에 있기 때문이었다.<sup>171)</sup> 이것은 차경(借景)을 통해서 음다 공간의 묘미를 즐겼다는 것이다.

명대 말기 계성(計成, 1582~?)은 강소성 오강(吳江)사람으로 17세기 중국의 조원 예술가이자 이론가이다. 1631년 그가 집필한 『원야(園冶)』<sup>172)</sup>는 자연의 풍경을 의경(意境)의 향수(享受)라는 점과 연계시켜 차경을 즐긴 대목이 나온다. 그 중에 ‘허(虛)’와 ‘실(實)’ 두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경관을 언급할 때 종종 ‘허’ 자를 사용했다.

『원야』 「성시지(城市地)」에는<sup>173)</sup> “뚝려 있는 창에는 파초 그림자가 영롱하게 비치고(窓虛蕉影玲瓏).” 라고 표현했듯이 파초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초 허상인 그림자를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의 착시를 이용하여 더욱 재미있게 보고자 하는 깊은 뜻

171) 이신령(李新玲), 『앞의 책』, p.50.

172) 차:무부(無否). 『원야(園冶)』 1631년에 『원야』를 집필했는데 책이름을 『탈천공(奪天工)』, 혹은 『본경전서(本經全書)』로 고친 판본도 있다(陳植, 『園冶注釋』, 중국건축공업출판사, 1681년 初).

173) 계성(計成), 김성우·안대회 옮김, 『원야(園冶)』, 예경, 1993, p.58.

이 담겨 있다.

『원야』 「장절(裝折)」에는<sup>174)</sup> “판벽(板壁)에는 창살이 없는 창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세계가 은연중에 보이도록 만든다. 정자(亭子)와 대(臺)는 비어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누각은 공활한 터를 이웃하여 만든다(板壁常空 隱出別壺之天地 亭臺影罅 樓閣虛隣)”고 했듯이 정자나 대를 설치함으로써 또 다른 경관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원근감의 변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추구하고 있다.

『원야』 「차경(借景)」에는<sup>175)</sup> “북쪽 창가에서는 그늘 아래의 청량한 바람을 맞이한다. 반쯤 열려진 창밖으로 파초와 오동나무가 푸르름을 드리우고 에워싼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비취빛을 자랑한다(北牖虛陰 半窓碧隱蕉桐 環堵翠蘿薛)”고 했듯이 여름의 숲 그늘을 연상시키는 잎사귀의 큰 잎들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때로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덤으로 즐겼고, 반그늘에 빛나는 담쟁이 넝쿨의 비취빛까지 여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야』 곳곳에 음다 공간을 모두 ‘허실결합’이라는 원칙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으며, 서로에게 스며들어 서로를 충실하게 하는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아울러 구도상의 차경을 의경상(意境上)의 차경으로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원차(遠借), 인차(隣借), 양차(仰借), 부차(俯借), 응시이차(應時而借)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물정(物情)에 유도되어 눈이 접촉되고 마음이 느껴지는 경지와 경물에 접촉하여 정취가 발생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정도<sup>176)</sup>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허와 실, 원근감의 변화, 차경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대부들의 높은 식견은 차를 통해 그들의 심미안을 키워감으로써 차원 높은 음다 공간 분위기를 제시·발전시켜왔다.

청대(清代) 심복(沈復, 1763~?)의 자서전 『부생육기(浮生六記)』에서도 보면, 정자·누각·회랑을 건축하거나 석가산을 축조하고 꽃나무를 전정하는데 대해서 말하고 있다. “커다란 가운데 조그만 것이 보이고, 또 조그만 가운데 커다란 것이 보이도록 해야 하며, 공허한 가운데 충실한 것이 있도록 하고,

---

174) 계성, 위의 책, p.106.

175) 계성, 위의 책, p.302.

176) 계성, 위의 책, p.20.

또 충실한 가운데 공허한 것이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것은 알아지게 하고, 어떤 것은 깊어지게 해야 한다”<sup>177)</sup>고 했다. 이것은 커다란 가운데 조그만 것이 보이도록 한다는 것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을 인공 환경으로 조성하여 의경을 확장시킨 중국의 음다 공간은 또 다른 차의 묘미를 맛보게 하는 지적향유였다.

## 1. 그림에 나타난 음다 공간 특징

중국 차의 역사는 육우 『다경』에 의하면 차를 마실 것으로 삼은 것은 신농씨에서 부터 시작하였다(茶之爲飲 發乎神農氏)<sup>178)</sup> 는 기록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부터 차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식약동원으로 출발하였으나, 한나라에 들어와 문화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차는 문화로서 정립되어지고 당나라 때는 중국 역사상 정치·문화·경제 등이 번성하였으며, 문학과 예술 또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시기이다. 차문화 역시 『다경』이 출간되면서 차문화로서 번영하였다. 당대(唐代, 618~907) 일명(佚名)이 그린 「궁락도(宮樂圖)」를 보면, 당시의 음다 공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궁녀들이 함께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차를 마시는 모습으로 궁중의 여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장면이다.<sup>179)</sup> 귀족들이 음다 공간을 친선을 도모하는 사교의 공간으로 자주 애용했음을 알 수 있다.

---

177) 심복(沈復), 지영재 옮김, 『浮生六記』, 을유문화사, 2004, p.72.

178) 치우지평, 앞의 책, p.201.

179) 육항(陸杭), 『中國傳統藝術圖鑑』, 東方出版社, 2010, p.107.



<그림21>



<그림22>

<그림21> 唐, 일명(佚名), 「궁락도(宮樂圖)」

48.7cm x 69.5cm, 대북 고궁박물관 소장

<그림22> 당대(唐代)의 「연음부분(連飲部分)」<sup>180)</sup>

당대(唐代)의 「연음부분(連飲部分)」은 섬서성 장안현 남리왕촌 당묘 묘실 동벽화는 작자 미상으로 인물의 형태나 복식으로 볼 때 1중당 전후, 즉 육우 시대에 속한다. 그림에는 귀족 계층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여유로운 생활 모습과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느끼는 정신적 면모 등이 반영되어 있다.

「궁락도(宮樂圖)」나 당묘 묘실 벽화의 「연음부분」을 볼 때 남녀가 따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과 귀족들의 차 마시는 공간 안에는 시녀들이 함께 하는 음다 공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궁정 또는 귀족들의 음다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23> 「비차도(備茶圖)」



<그림24> 「다도도(茶道圖)」

180) 치우지핑, 앞의 책, pp.198~199.

하북성에서 발굴된 선화요묘벽화 「비차도(備茶圖)」는 요나라 고위층의 무덤 벽화로 차를 만드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총각머리의 동자는 차를 맷돌에 갈고 있으며 바로 위에는 무릎을 꿇고 부채질을 하며 탕병의 물을 끓이고 있다. 서서 다병을 들고 있고, 그 옆에는 틀을 누르고 있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 제목에서 말하듯 차를 내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음다 공간에서는 틀에 있는 차를 연(碾)에 갈고 탕병에 차를 끓이고 끓인 물을 다병에 담아 완에 내어 마시는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도도(茶道圖)」는 하북성에서 발굴된 선화요묘벽화의 연차 정경으로 총각머리의 동자가 연(碾)에 차를 갈고 있고 두 여인이 높은 잔받침 위에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음다 공간 안에서 직접 차를 갈아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나라 말기 장씨, 한씨의 가족묘에서 발굴된 고분 벽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차도」와 「다도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차를 내기 위한 도구들과 함께 다연(茶宴) 준비에 여념이 없는 풍경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음다 공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차도구와 풍습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25> 宋, 조길(趙佶), 「문회도(文會圖)」 부분.

송대(宋代) 조길(趙佶, 1082~1135)의 「文會圖(문회도)」는 다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이다. 다연은 찻자리와 함께 연회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풍성한 음식과 술과 가무를 함께 즐기면서 시흥이 돋우면 즉흥시들이 나오곤 하

있던 것으로 송나라 때 매우 번성하였다. 당시의 궁정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이러한 다연이 빈번하였다. 이처럼 음다 공간이 차문화의 발전과 함께 폭 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연 분위기를 즐기다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시중드는 이에게 분향을 시킨 후 차로 취기를 해소시켰다. 늘 탁자 위에 차 상자와 차 그릇이 놓여 있고, 풍로 위 두 개의 주전자에는 뜨거운 물이 끓고 있고 그 옆에 시중드는 사람이 늘 대기하고 있었다. 바닥의 광주리 안에는 가지런히 차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sup>181)</sup> 다연이 이루어지는 음다 공간은 연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치스런 도시생활과 화려한 음다생활을 물질적으로 마음껏 즐겼을 휘종은 도성 안에 간악(艮嶽)이라 불린 산을 만들어 질박한 자연으로 돌아가 귀인의 이상을 실현시키며 정신적으로 즐기려 했던 것이다. 인위적인 산을 꾸미기 위하여 바위, 돌, 꽃, 나무를 머나먼 강남으로부터 옮겨왔으며, 이렇게 옮겨 꾸며진 간악은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들도록 했고 건물과 벽은 백목(白木) 상태 그대로 두었다.<sup>182)</sup> 때로는 이곳이 휘종의 정신적 음다 공간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장소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림26>

<그림26> 宋, 송인회(宋人繪) 「인물(人物)」

국립고궁박물관(國立故宮博物院) 소장.



<그림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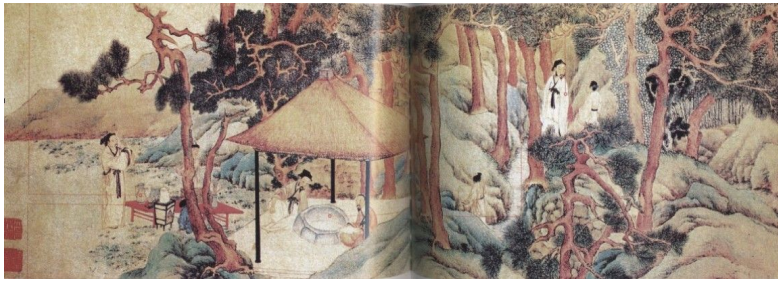
<그림27> 중국 민화

181) 육항(陸杭), 앞의 책, p.114.

182) 쓰지노부오(辻惟雄),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주)시공사·시공아트, 2006, p.78.

宋代 사대부들의 교양은<sup>183)</sup> 거문고, 바둑, 서예, 그림이었다<sup>184)</sup>라고 하지만 宋人繪의 「인물(人物)」 그림에서 사예(四藝)를 살펴보면, 삽화(插花, 居中), 괘화(掛畫, 後), 점다(點茶, 左上), 분향(焚香, 左下)으로 평상시 생활에서 최고 수양의 조건으로 사대부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었다.<sup>185)</sup>

사대부의 일상사를 나타낸 그림이다. 실내의 벽면에 호수가의 풍경을 표현한 그림을 걸어두고 그 위에 자신의 자화상을 걸어놓았다. 넓은 평상은 시·서·화를 즐기는 음다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중심의 하단에는 꽃이 꽃혀있고, 왼편 상단에는 연꽃으로 조각된 화로 위에 찻물이 끓고, 외편 하단에는 분향이 준비되어 있으며, 심부름하는 어린 다동은 다병을 들고 와 글을 읽고 있는 주인에게 권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음다 공간의 장식과 함께 분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차문화와 향문화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림28> 明, 문징명(文徵明).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

명대(明代)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의 「혜산다회도(惠山茶會圖)」에서는 청명절 무렵에 몇 명의 예술가들이 혜산 산기슭의 ‘죽로산방(竹爐山房)’에서 차를 마시고 시를 읊는 정경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대략 그 당시 사대부들의 음다 공간을 엿볼 수 있다.

183) 구양수(歐陽修, 1007~1072)는 스스로를 ‘六一居士’라 칭했다. “우리 집에는 장서 1만권이 있고 三代이래로 금석문집록이 1천 권이 있으며, 거문고 하나가 있고, 바둑판 하나가 있으며, 여기에 항상 술 한 병이 있다. 내가 이 다섯 가지 물건 속에서 늙으니 하나를 합하면 여섯이 하나가 되는 셈이다.”

184) 김희영, 『이야기중국사 2』, 청아출판사, 2011, p.596.

185) 진기록(陳奇祿), 『中國古典插花藝術』, 行政院新聞局 漢聲雜誌社, 1976, p.16.

명대에 들어오면서 차를 마시는 방법에서 변화가 온다. 송대까지 다완과 차선을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다호(茶壺)가 등장하고 작은 잔들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차는 내는 방식이 점다법(點茶法)에서 포다법(泡茶法)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즉, 단차문화에서 산차인 잎차문화 방식의 변화는 차도구들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황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원대 출현한 청화백자의 다구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불을 지피며 물을 끓일 때는 제일 좋은 혜산의 물을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차는 고저자순차(顧渚紫筍茶)<sup>186</sup>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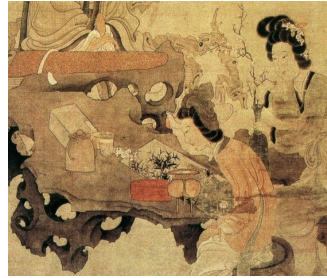
차를 마시는 다우(茶友)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고상한 인품과 시·사·부(詩詞賦)에 능해야 하며, 독서·악기·그림·장기·화훼 등 다방면으로 교양을 갖추어야 했다.<sup>187</sup>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산방(山房)에서 차를 마시기 위한 다구나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기능성과 완상을 결합한 최고의 다구를 선택하여 음다 공간의 품격과 심미안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최고의 학문을 교류하는 공간이요, 예술이 창작되는 공간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186) 당시 명성으로 자부하던 차는 양선차(차이름)와 고저자순차(顧渚紫筍茶)이고, 차 맛이 깔끔하고 우아하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문인이 좋아하였다. 고저자순차(顧渚紫筍茶)는 중국 역사상 제일 유명한 상품으로 상납한 차였다. 최고품의 차잎은 相抱似筍(서로를 안은 마치 죽순과 같다), 일등급의 차 형태는 난초 같고, 빛깔과 광택은 옥빛을 하고, 은화가 뚜렷하다. 맛은 더욱더 달고 순수하고 입맛에 맞고, 차의 색깔은 맑고 밝고, 찻잎은 가늘고 보드랍고 봉우리처럼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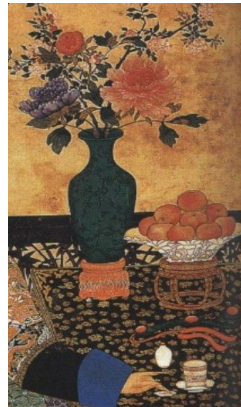
187) 육항(陸杭), 위의 책, pp.116~117.





<그림29> 明, 진홍수(陳洪綬), 「수도도도(授徒圖)」

명대(明代) 진홍수(陳洪綬, 1599~1652)의 이 그림은 스승이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스승은 탁자에 기대 앉아 두 제자의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탁자 위에는 그림과 찻주전자 등이 있으며, 두 명의 여 제자가 그 아래에 앉아 있다. 한 명은 탁자 위의 대나무 그림을 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화병에 꽃을 꽂고 있다. 음다 공간에서 화가 본인의 생활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음다 공간은 취미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희열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림30> 차 마시는 여인과 「과반화(果盤花)」 와 「병화(瓶花)」 188)

188) 김희영, 『이야기중국사 3』, 청아출판사, 2011, p.446.

청대(清代)의 차와 찻자리꽃으로 어느 귀족의 인물화이다. 뒷면에 배치한 병화(瓶花)의 모란의 화려함과 그 앞에 낮게 자리를 차지한 풍성한 과일로 꾸민 과반화(果盤花)가 그려져 있다. 이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후한 여인의 기품을 살려주고 있다.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음다 공간을 표현한 그림으로 당시의 풍요롭게 꾸며진 음다 공간의 화려함을 엿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첫째 「궁락도」, 「문화도」, 「혜산다회도」에서는 천인합일이라는 대자연과의 조화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넓은 음다 공간위주로 많은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광활한 영토를 지닌 까닭에 호방함이 느껴지는 음다 공간으로 다·주·시·서·화·악(茶酒詩書畫樂)을 통해 스스로 즐기는 것을 주제로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계층은 주로 귀족, 사대부 위주로 묘사되어 있다. 악사를 대동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오락 문화 형식으로 다연과 주연을 함께 하는 품격 있는 음다 공간이다. 지식층 위주의 사교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교류하는 공간이며, 대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수련의 장이기도 했다.

둘째 「문인정원삼화」, 「인물」, 「수도도」, 차 마시는 여인과 「과반화」와 「병화」그림에서는 자연의 성정을 중시한 까닭에 자연미가 바로 인물이나 예술의 미적 근본이 되어, 음다 공간에서도 인물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음다 공간은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신들의 이상을 펼쳐나가는 한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위의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호방한 기질을 풍아(風雅)·문아(文雅)로 다스리어 표현함으로써 인품이 돋보인다.



<그림31>

「청대병화(清代瓶花)」, 陳晝繪 「청초청당공화(清初廳堂供花)」, 丁亮先 作  
고궁박물관 소장

<그림32>

대영박물관 소장<sup>189)</sup>

위의 「청대병화(清代瓶花)」와 「청초청당공화(清初廳堂供花)」의 그림들을 통해서 청대의 수준 높은 꽃꽂이를 감상할 수 있다. 오른쪽 청당공화는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의 형식에 가깝다. 청동기, 꽃병, 화분 등의 기명이나 문방구와 함께 꽃, 과일, 채소 등을 서로 어울리게 배치하여 복(福), 수(壽), 다자(多子), 부귀(富貴), 평안(平安) 등을 희구하는 길상화로 책거리도가 책이 주요 소재라면, 기명절지는 기명과 꽃가지가 주된 소재다. 위의 그림 「청대병화」에서 보여주듯이 꽃 문화가 대단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찻자리 꽃에서는 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가볍게 몇 송이 꽂는 정도이다. 아마도 중국은 수 천 년 동안 차를 다반사로 마셔왔기에 찻자리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찻자리 꽃에서는 대만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찻자리 문화가 예술적인 방면으로 더 발달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1957년에는 『찻집(茶館)』이라는 작품이 나올 정도로 190) 음다 공간이 찻집으로까지 발전하여 차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휴식과 오락, 정보를 묻는 집회 장소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음다 공간이 복합적인 공간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음다 공간이 예술적인 차원에서 세분화되어 차를 음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통해서 예술적인 정신이 깃든 ‘다예(茶藝)’<sup>191)</sup>라는 명

189) 진기록(陳奇祿), 앞의 책, p.50. p.88.

190) 라오서(老舍) 지음, 신진호 옮김, 「茶館(찻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12.

라오서(老舍, 18991~966)는 찻집이라는 음다 공간을 주제로 선택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191) 한 예로, 프랑스에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고 대만으로 돌아온 관수령(管壽齡)씨는, 대만 타이베이(Taipei, 臺北)에 仁愛路 연꽃빌딩에서 ‘茶藝館’을 개업하였다. 이것이 처음 다예관 간판을 내건 것이다. 민족문화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그녀는 화랑을 개조하여 서양화·도자기 공예품을 판매하면서 다예관을 ‘藝廊’으로 명칭하였다. 그녀는 차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예술품을 감상하게 하고, 화랑을 하나의 가벼운 생활 음다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다예관은 차를 마시고, 예술품을 감상하는 장소가 되었고, 동시에 찻잎과 도자기 공예품의 매매 및 식당을 경영하였다. 점차 음다 공간은 행위예술 공

칭으로 다양한 형식을 창조해 내고 있다. 다예란 용어는 1977년에 대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 대북시(臺北市)와 고웅시(高雄市)에 다예(茶藝)협회를 조직하고 1982년에는 대만 전체를 대표하는 다예단체인 중화다예협회(中華茶藝協會)를 조직하였다. 1988년 처음으로 대륙을 방문한 대만경제문화방문단이 상해에서 호예대사(壺藝大師)인 허사해(許四海)와 만나 다예라는 용어에 대해 공개적 담론을 벌렸는데 이런 사실이 「문화보(文滙報)」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의해 차례로 보도되면서 다예란 용어가 대륙에 전해지게 되었다.<sup>192)</sup>

## 2. 음다 공간 속에 나타난 다사(茶事)

중국의 음다 공간은 앞에서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형태의 다사들이 등장한다. 한(漢)시대 장건(?~기원전 114)에 의해 실크로드가 개척되어 서역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다. 중국의 차문화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어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차 판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전한 시대 왕포의 「동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서진시대(西晉時代, 265~316)에 이미 차죽을 팔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부함(傅咸, 239~294)의 『사예교(司隸教)』에 남방 촉의 할머니가 낙양(洛陽) 남시(南市)에서 차죽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sup>193)</sup> 다음에는 병차를 만들어 팔았더니 차를 팔게 했다. 이 당시에는 식품으로는 판매가 되나 음식으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94)</sup> 이는 다관(茶館)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중국 다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

간으로 승화되어 중국의 각 처에서 하나의 문화소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영매(李永梅), 『茶道 上』, 天津古籍出版社, 2007, p.180.

192) 조기정, 「중국 茶道の 형성과 변천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8집, 2011, p.388.

193) 치우지평(裘紀平), 앞의 책, p.240.

『다경』 「칠지사(七之事)」 「聞南市有以困 蜀姬作茶粥賣 爲簾事打破其器具」

194) 염숙·염영옥,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문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p.76.

차를 관 점포의 최초의 기록으로 당대 현종(玄宗, 685~762) 때 『봉씨문견기』가 있다. 남쪽사람들은 자주 차를 마셨지만 북쪽에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개원(開元) 중기 산둥에서 장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관이 개설되고 차를 끓여 팔았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차를 사서 마셨다. 당대에는 도시의 여러 곳에서 차를 끓여 파는 점포가 개설되었고 이런 점포를 이미 다관이라고 불렀다.<sup>195)</sup> 또한 송대에도 다관업이 매우 번창하여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의 다방(茶坊), 다사(茶肆)는 매우 장사가 잘되었다. 차박사(茶博士, 다관 심부름꾼)는 문 앞에서 잔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차를 판다고 외치면서 고객을 불러 모았다. 다사 내에는 매 계절마다 생화를 꽂아 놓고, 명인의 서화를 걸어놓아 손님들이 소일하면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sup>196)</sup>

다예<sup>197)</sup>관의 종류에는 방고식(仿古式) 다예관, 원림식(園林式) 다예관, 실내 정원식(室內 庭院式) 다예관, 현대식(現代式) 다예관, 민속식(民俗式) 다예관, 희곡 다루(戲曲 茶樓),<sup>198)</sup> 종합식(綜合型) 다예관<sup>199)</sup> 등 다양한 형태의 다예관들이 있었다. 이러한 다예관을 통해서 예술적인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였기 때문에 여러 다예관들은 중국의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다관뿐만 아니라 다회나 다연 등이 성행하였다. 당나라 염입본(閻立本, ?~673)의 「소익험난정도(蕭翼賺蘭亭圖)」를 보면 난정(蘭亭)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 서남쪽에 있는 정자로 진대(晉代) 왕희지(王羲之)가 지었다고 한다. 난정의 계획을 모방하는 뜻에서 여러 묵객과 문인 그리고 승려가 모여 정자 주변의 맑고 좋은 풍광을 즐기고 있다. 다동이 끓여 온

195) 이영매(李永梅), 『茶道 下』, 天津古籍出版社, 2007, p.624.

196) 왕충린, 앞의 책, p.353~354.

197) 중국차의 정신이란 관념적 깊이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써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다예(茶藝)로 규정되곤 하였다.

198) 차를 마시는 것을 발단으로 하고, 희곡 감상이나 스스로 즐기는 것을 주제로 하는 장소이다. 이런 종류는 차를 마시는 오락 문화 형식으로 이미 오래 전에 있었다. 최초의 기록은 唐代에 볼 수 있다. 남송 때, 항주, 북경 등의 찻집 내, 어떤 곳은 함께 학습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소로 노래 소리가 자자했고, 어떤 곳은 악기를 두드리고, 이야기, 만담을 하기도 했다.

199) 이영매(李永梅), 『茶道 上』 위의 책, pp.182~184.

차를 마시며 차 맛을 논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며 시를 읊는 모습과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조길(趙佶)의 「문회도(文會圖)」에서도 문인들이 모여 연회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다 공간의 범위가 음다 만이 아니라 풍성한 음식과 함께 가무 등이 어우러지는 사교와 문화의 공간이었다.

중국화단의 현대화를 주도한 채백석(齊白石, 1863~1957)의 「자다도(煮茶圖)」는 평소 차를 즐겨했던 자신의 노년 모습을 그린 듯하다. 찢어진 부채로 다로의 불기운을 일으키며 차를 끓이는 모습은 마치 모든 걸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는 차 끓이는 과정이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긴 시간동안 부채가 찢겨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일체의 경지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차생활이 일상의 생활이요, 자신을 수양하는 생활이 차생활이었다. 이는 음다 공간이 일상생활의 터전이요, 오락의 공간이요, 수양의 공간이었다.

### 3. 음다 공간에 깃든 다도사상

중국의 다도사상의 뿌리는 중국의 차문화가 성립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위진 남북조시대를 걸쳐면서 다양한 사상과 문화들이 유입되었다. 중국의 다도사상은 철학과 사상, 도덕, 미술, 문예, 건축, 음악 등이 함축되어 있는 종합적인 정신문화이다. 특히 중국의 다도사상은 유교·불교·도교 등의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활발한 사상체계의 융합은 진대(晉代, 265~420)와 당대(唐代, 618~907)때에 불교사문들이 좌선을 하며 차를 마시는 음다 공간이 보편화되고 성행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육우의 『다경』 「일지원(一之源)」에서 “차의 쓰임은 그 맛이 매우 찬 것이어서 그것을 마시는 데 적당한 사람은 정성스러운 행실과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이다(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sup>200)</sup>고 하여 차의 가치를

---

200) 치우지평(裘紀平), 앞의 책, p.40.

정행검덕(精行儉德)으로 보았다. 육우는 『다경』에서 검(儉)을 강조하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삼보(三寶)인 자애(慈), 검소(儉), 감히 세상에 먼저 나서지 않는 것(不敢爲天下先)인 겸양 등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儉)에 대해 “사람을 지도하고 하늘을 섬기는 일에 검약하는 일보다 좋은 것은 없다. 검약하는 일은 일찍이 도(道)를 따르는 일이다”<sup>201)</sup>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가(儒家)에서도 검(儉)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인 자공(子貢)은 공자의 인격에 대해 온량공검양(溫良恭儉讓)의 다섯 가지 덕을 갖추신 분이라고 평하고 있다. 여기서도 검(儉)이 강조되고 있다. 검은 함부로 하지 않음이요, 고요함이며, 마음을 비움이다. 육우는 차의 품성인 검을 강조함으로써 차를 즐겨 마시는 이들이 검으로서 덕(德)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sup>202)</sup> 이는 유가사상의 영향과 함께 도가사상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대(唐代) 봉연이 지은 「봉씨문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다. “개원 연간에 태산의 영암사에는 향마선사가 선(禪)과 교(敎)를 크게 일으켰다. 사문들은 밤늦도록 잠자지 않고 참선을 했고, 늦은 밤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에 사문들이 차 마시는 것을 허락했다.”<sup>203)</sup>

사문들은 스스로 차를 재배하고 달여 마시면서 “구하는 것은 차뿐이다.”라는 경지에 이르기도 했다. 사원에서는 차를 재배하고 마시는 것을 장려하고 불교의 청정규율과 차를 마시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불교의 철학적 이치와 불교적 인생관이 어우러졌다. 이렇게 하여 “차와 불교, 특히 선종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차와 선은 일미(一味)이다”, “차와 선은 동등하다”라는 말들이 생겨났다. 사문들은 다사를 통해 자연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당대(唐代)에 생겨 난 ‘다선일미’라는 말은 선종 범어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끽다거(喫茶去)’와 같은 선의 기봉을 드러낸 말과 관련 있다. 다선일미가 유행하여 식후에 석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선 수행자들의 가풍이 되었다. 차를 마시는 일이 사원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자 절에서는 ‘다당(茶堂)’을 마련했고, 때로 ‘다고(茶鼓)’를 쳐서 대중들을 소집하여 함께 차를 마셨다. 절에서는

201) 노자(老子), 『道德經』, 심재원 옮김, 정우서적, 2010, p.389. “治人事天 莫若嗇 夫唯嗇 是以早服”

202) 염숙, 『다도학 입문서』, 국학자료원, 2011, pp15~16.

203) 우더신, 주호찬 옮김, 『한권으로 읽는 불교』, 산책자, 2008, p.263.

차 마시는 것을 숭상하여 “자고로 명사(名寺)에 명차(名茶)가 나온다”는 말이 생겼다.<sup>204)</sup> 차를 달이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 많아서 불, 보살, 조사에게 차를 공양하는 것을 ‘진다(奠茶)’라 했고, 법랍을 따라서 순서대로 차를 마시는 것을 ‘계랍차(戒臘茶)’라고 했으며, 여러 사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것을 ‘보다(普茶)’라 했다.<sup>205)</sup> 이처럼 다도사상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노동(盧叟)의 「칠완다가(七碗茶歌)」에서도 차의 덕을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첫째 잔은 목구멍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잔은 고독과 번민을 씻어주네.  
 셋째 잔은 창자에 향기가 전해져,  
 생각나는 문자가 남은 것 오천 권 책뿐이네.  
 넷째 잔에 가벼운 땀이 솟아 평소의 불만이 땀구멍 통해 모두 사라져 없어진다네.  
 다섯째 잔에 기쁨이 맑아지고,  
 여섯째 잔에서 신령과 통하였네.  
 일곱째 잔은 채 마시지도 않았건만, 양쪽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솔솔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봉래산이 어드메뇨? 옥천자는 이 맑은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다.  
 산상의 군선(여러 선인)은 아래 땅을 맡아 다스리는데 지위는 맑고 높아 비바람으로 막혔네.  
 어찌 알손가? 억조창생의 목숨이 낭떠러지의 정수리에서 떨어져 천신만고 겪음을...  
 문득 간의를 좇아 물을거나? 억조창생이 끝내 소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sup>206)</sup>

노동의 시를 통해 도가의 신선사상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유정량(劉貞亮, ?~813)의 「차의 십덕(茶之十德)」<sup>207)</sup>중에서 “차로써 예

204) 우더신, 위의 책, pp 263~265.

205) 우더신, 위의 책, p.378.

206) 장소선주(庄昭選注), 위의 책, p.80.

‘一碗喉吻潤，二碗破孤悶，三碗搜枯腸，唯有文字五千卷，四碗發輕汗，平生不平事盡向毛孔散，五碗肌骨清，六碗通仙靈，七碗吃不得也，唯覺兩腋習習清風生，蓬萊山，在何處？玉川子乘此清風欲歸去 山中群仙司下土，地位清高隔風雨，安得知百萬億蒼生命，墮在顛崖受辛苦，便爲諫議問蒼生，到頭合得蘇息否？’<sup>207)</sup>「七碗茶歌」

207) ‘차로써 방탕한 기운(郁氣)을 흘리고, 차로써 잠기운(睡氣)을 쫓아내고, 차로써 생기(生氣)를 기르고, 차로써 병기(病氣)를 제거하고, 차로써 예절과 어진마음(禮仁)을 더하고, 차로써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表敬)하고, 차로써 자양분을 맛보고(賞味), 차로써 몸을 기르고(修身), 차로써 도(道)를 행하고, 차로써 마음가짐을 아름답게(雅心) 할 수 있다.’/ 치우지



절과 어진마음(禮仁)을, 차로써 몸을 기르고(修身), 차로써 마음가짐을 아름답게(雅心) 할 수 있다”<sup>208)</sup>는 내용에서도 차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차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수양의 도구로 삼으면서 차의 덕을 칭송했다. 이는 유가 사상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송의 휘종(徽宗, 1082~1135)황제가 쓴 『대관다론』에서 차의 정신을 검정화정(儉精和靜)이라 했다.<sup>209)</sup> 검(儉)은 검소, 정(精)은 청렴결백을 의미하고, 화(和)는 화목하고, 정(靜)은 고요한 경지를 지향하는 정신이라고 했다.<sup>210)</sup>

남송(南宋, 1127~1279)에 이르러 강남 양자강 중·하류일대는 정치·문화·예술 각 방면이 빠르게 성숙한 곳이다. 사회 안정·경제번영·신흥계층의 율기·문화사상의 활약 등 강남발전이 좋은 외부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뒷받침으로 명(明)시대 소주에는 수많은 재능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강남의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명중엽 후기는 중국 고대 각 주요 사상체계가 융합되고 관통된 시기였다.

근세의 장만방(蔣晚芳)은 중국의 차덕(茶德)에 관해 염(廉)·미(美)·화(和)·경(敬)이라 했다.<sup>211)</sup> 염은 맑은 차를 마심으로써 청렴하고 근검하게 하며, 술 대신 차로 손님접대를 함으로 과음을 줄이며, 미는 명품의 차에서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음미하며 우정을 서로 나누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고, 화는 다례를 중시하는 덕을 지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 경은 남을 존경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정갈한 다기와 좋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세에 대만의 황둔암(黃墩岩)은 『중국다도(中國茶道)』에서 차문화의 특성은 중용(中庸)·검덕(儉德)·명륜(明倫)·겸화(謙和)라 하였다. 중용이란 차의 맛이 시고, 달고, 쓰고, 떫음이 어우러져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검덕이란 헛된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고아하여 걱정을 떨쳐버리는 의연함이며, 명륜이란 차를 준비하고 올릴 때 예를 갖추어 정성을 다함이

핑, 앞의 책, pp.43~44.

208) 치우지핑(裘紀平), 앞의 책, pp.43~44.

209)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p.268./제인용 童啓慶 著, 『論茶禮 茶道 茶藝의名稱及其內涵』「茶文化論」, p.92.

210) 이진수, 『차의 이해』,(주)꼬레알레즘, 2006, pp.178~179.

211) 정영선, 『다도철학』 위의 책, p.268./제인용. 童啓慶 著, 『論茶禮茶道茶藝의名稱及其內涵』「茶文化論」, p.99

며, 겸화란 차의 맛을 음미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자세를 가다듬는 중국의 다도사상을 말했다.<sup>212)</sup> 이제까지 살펴본바 중국의 음다 공간에 깃든 사상들은 유가사상의 정행검덕과 불교의 선사상과 도가의 신선사상이 융합되어 천인합일사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3절 일본의 음다 공간

일본의 음다 공간을 살펴보면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닮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니고 있는 자연 환경 속에 형성된 생활 양상과 그들을 지배해 온 사상 등의 결과물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차문화는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에 민간인들의 교역과 불교 승려들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었다. 9세기 초인 헤이안 시대(794~1185)에는 공식적으로 불교 승려들에 의해 중국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중국은 당 왕조 때로 음다 풍습이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었다. 육우의 『다경』이 출간되고 안진경(顔眞卿, 709~785)이 삼계정(三癸亭)이라는 다정(茶亭)을 지어 육우에게 기증한 773년에 다도를 완성시켰던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 음다 문화는 매우 고상한 취미로 고양되고 있었다. 특히 헤이안 시대 일본에서는 중국적인 것에 열광했던 시대로 교토의 궁정에서도 음다 문화를 받아들이며 유행을 시켜 나아갔다. 이는 불교의 다양한 의례와 함께 발전되다가 894년 건당사 폐지 등으로 인해 차문화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중세가 낳은 가장 세련된 문화적 업적의 하나인 다도는 9세기 초 헤이안 시대 초기에 불교승려들에 의해 중국에서 일본으로 처음 전래 되었다. 하지만 6세기 후반에 시작된 중국적인 문화의 차용과정이 9세기 중엽에는 차 마시는 관습도 쇠퇴하거나 사라졌다.<sup>213)</sup>

---

212) 정영선, 『다도철학』 위의 책, pp.268~269./재인용. 張宏庸 著, 『茶藝』, 幼獅文化產業公司, 臺灣, 1987, p.140~143.

213) 폴 발리(Paul Varley), 앞의 책, p.209.

그 후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1333) 막부가 창설된 시기인 12세기 후반 일본 임제종의 창시자인 에이사이선사(榮西禪師, 1141~1215)가 1191에 귀국하여 남송에서 가져온 차종을 축전국(筑前國, 北九州)의 배진산에 심었다.<sup>214)</sup> 이로 인해 중국 송왕조의 차문화가 다시 전래되었다. 특히 차의 의학적인 가치를 강조하여 『깃사요조키(喫茶養生記)』를 저술하였다. 그는 『깃사요조키』에서 “차는 사람을 양생(養生)하는 선약(仙藥)이며, 장수하도록 하는 묘술(妙術)이다”<sup>215)</sup>라면서 차의 의학적 효능을 서술했다. 또한 선종사원에서 즐지 않고 깨어 있도록 각성제로서 차를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또한 송나라 때 유행이었던 음다법인 말차(抹茶)와 다선(茶筌)을 사용하는 점다법(點茶法)이 들어왔다, 13, 14세기에는 모든 계층에게서 음다 풍습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로써 일본 중세시대가 낳은 문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인 차노유(茶の湯, Tea Ceremony)에 입각한 차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동다송』과 중국의 『다경』 그리고 일본의 『꼭다양생기』 3권의 차전문서는 공통적으로 차를 보건·정신음료로 차의 우수성과 약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차가 승려중심의 양생식품으로 인식되다가 15세기에 부호상인과 무사들의 여가문화로 성행하기 시작하여 국민적인 기호음료로 크게 발달하였다. 이처럼 차를 마시는 습관이 차츰 퍼지기 시작했고, 승려들이 차를 가져왔기에 수신양심(修身養心)을 기본으로 점점 발전하였다.<sup>216)</sup> 일본의 다도는 불교사상이 바탕이 되어 화경청적(和敬清寂)의 다도정신으로 엄격한 다도를 행하고 있다. 화(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마음과 맑은 심성, 그리고 평온한 마음가짐을 길러야 한다.<sup>217)</sup> 즉, 화경청적은 다도에서 타인을 화와 경

214) 김운학, 앞의 책, p.118.

215) 윤상인·박전열,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도서출판 나무와 숲, 2011, p.30.

216) 이용우, 『차와 다도』, 도서출판 삼보에드컴, 2003, p.261, p.433.

217) 이진수, 『차의 이해』 앞의 책, pp.179~180.

和란 어울려 함께한다는 의미로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롭게 어울림을 말한다. 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敬이 필요하다. 내가 남과 함께 어울려 가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가짐은 더 나아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산천초목을 경외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바로 ‘敬’이다. 淸은 청결, 청렴의 뜻으로 깨끗하게 잘 정돈된 상태를 말하며, 寂은 한적, 정적의 의미로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말한다.

(敬)으로 대하고 다실이나 다구는 조심스럽고 깨끗이 하는 일로, 다도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어이다.<sup>218)</sup> 이것이 일본의 차정신이다.

이처럼 일본의 음다 문화는 불교의 선종과 막부 문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일본 특유의 음다문화를 형성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생활공간 속에서 음다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면 일본의 음다 공간은 비생활공간을 통해 음다 문화가 이루어져 전승 발전되어 왔다.

중세가 낳은 가장 세련된 문화적 업적의 하나로 다도를 들 수 있다.

## 1. 그림에 나타난 음다 공간의 특징

일본의 음다 공간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음다공간을 살펴보기 전 일본인들의 그림과 정원문화 등을 통해 그들의 사상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송(1127~1279) 수묵 화가들에 의한 회화의 여백 효과는 일본 수묵화가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면은 16세기 하세가와 도오하쿠(長谷川等伯, 1539~1610)가 그린 소나무 숲 그림병풍(松林圖屏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나무와 하얀 눈의 조화가 주는 정취를 즐기는 고대 일본인들의 취향이 손에 집힐 듯 엿보인다. 이 작품의 아침 안개 속에 보일 듯 말 듯한 소나무의 표현과 울동적으로 배치시킨 구도로 인하여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18) 야나기 무네요시,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美』, 도서출판 소화, 2010, p.40.

<그림33> 하세가와 도오하쿠, 「소나무숲 그림병풍(松林圖屏風)」  
 모모야마시대(1568~1603), 6曲1雙, 각 156cm × 347.0cm,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그림34> 「과묵산수도(破墨山水圖)」 <그림35> 용안사(龍安寺)정원.  
 셋슈(雪舟, 1420~1506)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  
 1495년, 도쿄국립박물관소장.

일본정원은 무로마치 시대의 수묵화에 큰 영향을 받은 주된 예술형식으로 자연 속에 가미(神)가 깃들여 있다고 믿는 특정 공간에 바위나 돌만으로 꾸몄다. 이는 에미니즘 사상에서 비롯된 신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후대의 일본 정원에는 바위를 다듬거나 변형시키지 않은 채 천연상태를 정원에 배치하곤 했다.<sup>219)</sup>

여백의 추구는 회화뿐 아니라 메마른 산수(枯山水)<sup>220)</sup>의 정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이센인(大仙院)이나 료안지(龍安寺)의 것이 대표적이다. 흰모래 돌 속에 자리한 돌은 그 의미가 축소된 경치인 것이다. 흰모래 돌의 여백이란 일본인이 미의식을 나타내는 ‘허’의 척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도와 수묵화 및 정원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예술 장르는 단순

219) 폴 발리(Paul Varley), 앞의 책, p.225.

220) 枯山水: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형으로써 산수를 표현한 정원. 돌을 주로 쓰고 물을 표현함에 모래로써 하는 수가 있음.

성과 절제의 미학 및 사비(さび, 寂), 와비(わび, 侘(び)와 같은 시들고 불완전한 것, 소박하고 금욕적인 것을 선호한 미적 감각에<sup>221)</sup> 지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마의식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거기에는 비대칭적인 여백의 미학이 돋보인다. 조선의 막사발을 최고의 명품 차잔으로 여긴 까닭도 막사발의 비대칭적 조화를 탐닉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예로 센리큐가 꽃을 꽂은 꽃병 양쪽에 달려있는 손잡이중 하나를 일부러 떼어 낸 것은<sup>222)</sup> 비대칭성에 대한 일본인이 미적 감수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의 전다도(煎茶圖)에 관한 그림들이다. 차를 판매하는 형태는 가게판매(見世賣), 입식판매(立賣), 좌식판매(座賣) 세 가지로 나뉘는데 찻집(茶屋)은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고 잇푸쿠 잇센(一服一錢)은 서서 판매하는 입식과 앉아서 판매하는 좌식 두 형태가 있었다.<sup>223)</sup>



<그림36>

「煎じ物賣」끓인 차 판매,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카노 마사노부(狩野養信)가  
 죽은 해인 홍화(弘化)3年(1846) 작품



<그림37>

「一服一錢」한 잔에 1전,  
 무로마치(1336~1573)시대의 찻집의  
 원형으로 말차를 권하고 있다.

221) 폴 발리(Paul Varley), 위의 책, pp.228~229.

222) 박규태, 『일본정신의 풍경』,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9, pp.167~168.

223) 고연미, 「에도시대 바이사오 고유가이[賣茶翁 高遊外]의 賣茶의 의미와 형태」, 한국차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1.12, p.34.

<그림37> 매다인(賣茶人) 위에는 일복일전(一服一錢)과 함께 “말차 드실 수 있어요(粉葉の御茶)” 라는 그림속의 사(詞)가 기재되어 있고, 앉아서 주칠다탁 위에 찻잔을 올린 채 차선으로 격분(擊拂, 휘젓기)하고 있다. 현존하는 차 그림 중 이와 같은 행다 동작이 처음 나타난 것은 중국의 남송대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이며, 일본에서는 「청수사록기(清水寺緣起)」(1517)에서 직접 승려가 격분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 이들 모두 선원(禪院)의 음다풍속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6> 매다인은 복면에 샷갓을 쓰고, 짚신을 신고 허리에 칼도 찼다. 도구는 풍로와 가는 숯을 넣은 바구니, 찻사발 함 등이 있고 입매(立賣)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전물매(煎じ物賣)에서 차란 용어를 뺀 음료(物)라고 적고 있다. 광언(狂言) 『전물(煎じ物)』를 통해 센지모노(煎じ物)는 주로 한약재를 넣어 끓여낸 약탕인 것을 알 수 있다. 영서선사가 쓴 차의 의학적 효용과 뽕(桑)의 복용을 설한 『깁다양생기』가 무로마치시대에 『다상경(茶桑經)』이라 칭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전물(煎じ物)은 뽕잎차(桑茶)였을 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sup>224)</sup>



<그림38>

「紀三井寺參詣曼茶羅圖」

무로마치시대, 16세기, 종이에 컬러.

148.6cm × 170.3cm,

코카와데라(粉河寺) 사원. 와카야마현.



<그림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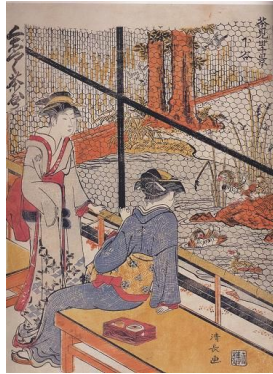
「二月堂繪卷1卷内 大佛見物」

에도시대 초기, 17세기, 종이에 컬러.

32.5cm × 691.3cm, 개인 소장.

224) 고연미, 「일본중세 賣茶圖의 차집문화 고찰」 일본불교사연구, 제2호, 2010, pp.87~89.

일본 중세의 차는 공통적으로 신사(神社)와 사원(寺院)을 참배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단순한 목마름의 해소가 아닌 신불(神佛)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한 잔의 차로 신불의 가호에 감화되어, 병 없이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기원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매다가 행해지는 장소는 신사나 사원 문 앞에 많았다. <그림38> 「기삼정사참에만다라도(紀三井寺參詣曼荼羅圖)」는 와카산(和歌山)에 있는 관음도장인 기삼정사(紀三井寺)의 인왕문 절 찾집에서 매다인이 차선으로 격불하고, 옆에 있는 손님은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다. 동대사(東大寺)의 대불(大佛)구경과 이월당에서 2월에 행해지는 법회(修二會)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림39> 나라(奈良) 동대사의 문 앞과 삼월당(三月堂) 사이에 각각 이동 찾집(荷茶屋)을 열고 구경하는 사람에게 차를 접대하고 있는 실외 음다 공간의 장면이다. 그림에는 점다 도구를 가져와서 차선으로 격불하는 모습이 담겨있다.<sup>225)</sup>



<그림40>

도리이키요나가(鳥居清長,1752~1815),

「다경세십경하곡(茶見世十景下谷)」,天明3年, 1783년, 北海道美術別館,

두 여인이 찾집에서 차를 마시며 철망 너머 연못에서 놀고 있는 오리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모습이다. 에도(1603~1867) 중기에 잘 가꾸

225) 고연미, 「에도시대 바이사오 고유가이[賣茶翁 高遊外]의 賣茶의 의미와 형태」, 한국차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1.12, pp.35~36.



어 놓은 정원 한편에 연못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음다 공간의 효과적인 처리로 상당한 수준의 찻집임을 알 수 있다.<sup>226)</sup>



<그림41> 우다가와히로시게(歌川廣重, 1797~1858), 東海道五十三次·袋井「대정다실(袋井茶屋)」, 廣重畫, 木版, 185cm × 260cm.

도카이도는 다섯 가도의 하나다. 에도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지시로 만들어진 당시의 수도였던 에도와 교토를 이어주고 있었다. 자주 사용되는 가도로 혼슈 동해안 가까이 다니던 곳에 ‘도카이도’의 이름이 붙었다. 이 길을 따라 53개의 여인숙들이 있어 여행자를 위한 마구간, 식사, 숙박이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시즈오카현 후쿠로이(袋井)시 중심에 해당한다. 주변에 엔슈삼산(원주3산: 법다산 만송산 의왕산(遠州三山: 法多山, 萬松山, 医王山)을 비롯한 역사적인 절이나 신사가 곳곳에 있어, 이른바 문진 마을의 형태로 번창했다. 여행객들이 잠시 멈춰서 차를 한 잔 마시며 피로를 푸는 야외 음다 공간인 이동식 찻집이다.

226) <http://blog.goo.ne.jp/h-art>, 2011.10.10.



<그림42> 「차를 끓여마시는 장면(茶乃湯)」

미야카와슈데이(宮川春汀, 1873~1914)畫, 木版, 福田初次郎板,  
 明治(1868~1912) 32年, 380cm × 500cm.

전형적인 일본 여인들이 차를 마시는 장면으로 방안 정경에서 이른 봄을 느끼게 한다. 여인들의 옷차림이 상당히 높은 계급의 부인들로 가끔씩 차 마시는 여가를 통해 서로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방바닥에 놓여 있는 다완으로 보아 말차를 준비하고 있는 음다 공간이다. 뒤편 도코노마 위에는 족자와 화병이 있는데 꽃혀 있는 매화가지에는 꽃망울이 완연하다.

에도시대의 『여중보기(女重宝記)』에는 자녀는 여러 가지를 익혀야 하는데 향을 피우는 일과 차노유(茶の湯)를 하는 것이 주판·요리·샤미센(三味線)같은 것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 시대 상류가정의 자녀는 향도·다도·꽃꽂이 등을 기초교양으로 익혀야만 했다.<sup>227)</sup> 한편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진 에도시대 이후 소매업의 발달로 여자아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여 데라코야(寺子屋)에 다니게 하여 다도·꽃꽂이·예의범절을 교육시켰고, 상인과 농민들도 주판·구구단을 필수로 가르쳤다.<sup>2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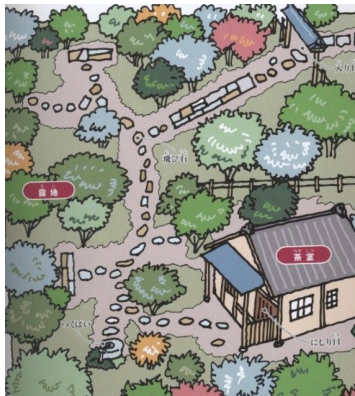
이 시대에 중국에서 선향(線香)도 들어와 일본화 되었고, 풍류를 즐기는 차인들의 전다(煎茶) 문화와 함께 향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오늘날 향은 다도구와 함께 전다석(煎茶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227) 강현숙, 『일본의 전다도』, 도서출판 조울, 2010, p.89.

228) 조명철외 3인, 『일본인의 선택』,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2, p.31.

전다석에는 다실의 도쿄노마에 족자를 걸거나 야외인 경우 차바타를 걸어서 장식한다. 그것은 선승의 선어(禪語)를 적은 족자를 장식하거나, 차바타에 ‘끽다거(喫茶去)’ 등 선적인 내용으로, 도교적이며 신선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글귀 또는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롭게 노니는 군자의 유유자적함을 칭송하는 글귀를 사용한다. 손님은 다실에 들어가면 먼저 족자를 감상하는데, 대개 주인은 그날의 주제를 의미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나 그림으로 준비한다.

참고로 차노유(茶の湯)에서는 다실의 도쿄노마에 선승이나 고승, 특히 송·원대의 고승, 그리고 가마쿠라시대에 일본에 귀화한 명승들의 격조 높은 글을 담은 족자를 장식한다. 그 내용은 선어를 적은 이치교모노(一行物)<sup>229</sup>나 와카(和歌) 등을 적은 가이시(懷紙), 단자쿠(短冊), 다인이 쓴 편지 등이며 그림은 가라에(唐繪)나 야마토에(大和繪) 등이 있다. 무라타 슈코가 인가(認可)<sup>230</sup>의 증표로서 잇큐화상으로부터 받은 원오묵적(園悟墨蹟)을 초암다실에 장식한 이후 다실의 장식물로 다선일미를 상징한 목적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글귀의 내용은 선경이나 자연경관을 칭송하거나 또는 군자의 정신수양을 위한 글귀를 주로 사용했다.<sup>231</sup>



<그림43>일본의 로지(露地)와 다실<sup>232)</sup>

229) 다실의 괘물(掛物)은 단순한 실내 장식이 아니라 그 다회의 취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230) 선승이 수행의 종료를 증명하는 書狀.

231) 강현숙, 앞의 책, pp.89~90.

232) PHP연구소, 『茶道·華道·書道の 繪事典』, 図書印刷株式會社, 2006, p.21~23.



<그림44> 다실의 도코노마(床の間), 꽃꽂이, 족자, 향합<sup>233)</sup>

후시미노미야 사다후사 왕자(伏見宮貞成親王, 1372~1456)의 『看聞御記』는 1416(應永 23)년부터 약 30년에 걸친 일기인데 이 책에 매년 7월 칠석 때에 후시미노미야(伏見宮)의 어소(御所) 사랑채에서 벌어진 불교음악연주회의 실내장식 기사가 실려 있다. 이것은 헤이안시대(794~1185)의 꽃놀이 경기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맑을 때는 65개나 되는 호동(胡桐)병을 탁자나 선반에 늘어놓고 꽃을 꽂았으며, 선반에는 중국산 집기류를 놓았다. 그리고 야마토<sup>234)</sup> 병풍 두 쌍을 둘러치고 때로는 25폭이나 되는 중국 그림을 그 앞쪽에 걸어 놓는 식이었다. 그곳에서 무악을 연주하고 렌가(連歌)가 행해지고 밤늦도록 주연이 배풀어졌다. 당시의 다회는 ‘허세’ 기풍을 이어 거창하고 화려한 차마시기 퍼포먼스였으며 갖가지 물건들이 전시되어 구경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풍류기사로 쓰여져 있다.<sup>235)</sup>

## 2. 음다 공간 속에 나타난 다사

### 가. 꽃꽂이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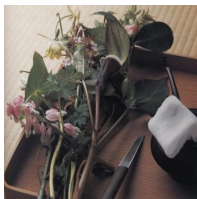
233) 촌송방언(村松邦彦), 『はじめての 茶花』, 株式會社 主婦の 友社, 2006(平成 17년), p.117.

234) 17~18세기 일본의 야마토에([大和繪) 전통에 중국의 수묵화 기법을 조화시켜 형성된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독창적인 장식화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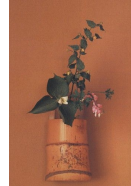
235) 쓰지 노부오, 위의 책, pp.53~55.

일본의 차 마시기의 형식은 종교가 된 삶의 예술이었다. 차라는 음료를 통해 일상의 지고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의식으로, 다실은 생활 속의 오아시스요, 피로해진 나그네들이 만나서 예술 감상이라는 공동의 샘물을 길어 마시는 곳이었다. 미묘한 철학이 숨어있는 다도는 차와 꽃과 그림을 주제로 짜여진 즉흥극이었다.<sup>236)</sup>

에도시대 중반에는 남종화와 함께 그 화제(畵題),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문인들이 서재에 꽃이나 과일을 장식하는 문화도 함께 들어왔다. 그리하여 전다가(煎茶家)들은 전다석을 장식하는 데 이러한 자연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차노유(茶の湯)에서는 다석의 꽃은 무라타 슈코의 “다화는 그 자리에 어울릴만한 소박한 꽃을 꽃는다”는 말 한마디로 함축할 수가 있다. 즉,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불교의 무소유사상에 근거하여 한 송이 야생화를 꽃는 것이다.<sup>237)</sup> 그러면, 한 예로 도쿄노마에 꽃을 꽃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다석의 다화(茶花)의 제목은 ‘화소망(花所望)’이다.



- ① 먼저 꽃을 준비한다. ② 준비한 꽃을 도꼬 노마를 향해 바닥에 내려 놓는다.



- ③ 준비한 꽃병에 꽃을 꽃는다. ④ 주인은 바닥 앞에서 먼저 꽃은 꽃을 향해 마음으로 자신의 소망을

236) 오카쿠라 텐신, 위의 책, p.47.

237) 강현숙, 위의 책, p.85.

빈다.



- ⑤ 손님도 꽃을 향해 소망을 빈다. ⑥ 주인은 손님에게 차를 내고 감사의 인사말을 한다.

<그림45> 화소망(花所望)<sup>238)</sup>

꽃은 적절한 배치에 의한 예술인데 그것은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 꽃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따라서 꽃의 독주도 흥미롭지만 그림이나 조각과 결합하여 들려주는 협주곡은 더욱 아름답다. 세키슈우아(石州)는 호수와 늪의 초목을 떠올리게 하려고 평평하고 납작한 물그릇에 약간의 수초를 놓아두고, 벽에는 하늘을 나는 들오리를 그린 소아미(相阿彌, 1472~1525)<sup>239)</sup>의 그림을 걸어 두었다. 또 다른 차의 대가인 죠오하(絶巴, 1525~1602)<sup>240)</sup>는 어부의 오두막집 모양을 한 청동 향로와 해변의 들꽃은 해변의 쓸쓸함을 노래한 시와 결합시켰다.<sup>241)</sup>

화도(花道)에는 센 리큐의 에피소드가 잘 인용된다. 어느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뜰에 만발한 나팔꽃에 마음이 끌려 차모임을 열자고 센 리큐에게 명했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나가 보니 만발했던 나팔꽃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238) 납옥가인(納屋嘉人), 『春夏秋冬 茶花づかい』, 株式會社 淡交社, 2002, pp.4~9.

239) 일본의 화가이며 미술 평론가·조경가(造景家).노아미(能阿彌, 1397~1494, 일본의 렌가 작가이며 화가·미술 평론가)의 손자이며 게이아미(藝阿彌, 1431~1485, 일본의 다도가의 아들로, 그 역시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 1338~1573)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일을 하였다. 조경가로서 교토에 있는 선종 사원 료안사(龍安寺)의 정원과 다이센인 정원을 설계하였는데, 료안사의 정원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경법인 가레산스이(枯山水) 기법의 전형(典型)으로 돌과 모래를 이용하여 산과 바다를 표현하였다. 다이센인 정원도 같은 양식으로 자연 경관을 축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http://gate.dbmedia.co.kr>, 2011.10.30.

240) 나라태생. 40세에 렌가의 일인자가 되었다. 센 리큐에게서 다도를 배워 히데요시의 권속이 되었다.

241) 오카쿠라 텐신, 앞의 책, p.129.



한 송이도 없었다. 이에 분노한 히데요시가 급히 다실에 들어서니 한 송이 나팔꽃이 도쿄노마에 꽃혀 있었다. 센 리큐는 천 송이, 만 송이 나팔꽃을 단 한 송이로 응축하는 것이 일본의 꽃꽂이 정신이요, 미학이라는 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가르쳐 주려 한 것이다.<sup>242)</sup> 들판에 꽃을 그대로 놔두면 정원 문화가 탄생되지 않듯 정원의 나팔꽃을 그대로 둔 채 바라본다면 꽃꽂이 문화는 탄생하지 않았다.

차의 발달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면, 달이는 차(떡차), 휘젓는 차(가루차), 우려내는 차(일차)으로 나뉘는데, 중국의 당·송·명 시대의 각기 다른 감정적 충동을 드러낸다. 이것을 예술의 분류로 표현한다면 고전파, 낭만파, 자연주의파라고 부를 수 있다.<sup>243)</sup>

일본에 있어서 차의 시원은 성덕태자(聖德太子, 6세기말~622) 시절로 소급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천평원년(天平元年, 729)의 성무천황(聖武天皇, 701~756) 시대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공사근원(公事根源)』 『다경상설(茶經詳說)』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보면 성무(聖武)가 백승(百僧)을 궁전에 불러 『반야경(般若經)』을 강(講)케 하고 그 이튿날 이들에게 차를 주었다는 것이다. 백제의 귀화승 행기(行基, 668~749)가 말세중생(末世衆生)을 위하여 차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에서도 나오니, 분명 차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244)</sup>

다도는 다이묘(大名)·무사·귀족·도시호상들 사이에서 사교의 수단으로 유행하였다. 힘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문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조출한 와비차의 취향에 이끌렸던 것이다.<sup>245)</sup> 다도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면 다실과 다 도구 등의 물질적인 요소, 차를 마시는 행위적인 요소, 다도의 미의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 등으로 정신적인 유희활동이며 세련된 의례로 전승된 전통 예능으로 마음을 몰입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인 것이다.<sup>246)</sup> 이처럼 사치스러움과 조출함이라는 양극단의 취향이 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헤이안시대(天平時代, 794~1185)의 귀족들은 한편으로는 속세에서 벗어나

242)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앞의 책, pp.193~194.

243) 오카쿠라 덴신, 위의 책, pp.35~36.

244) 김운학, 『한국의 차문화』,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4, p.116.

245) 구태훈, 『일본문화사』, 재팬리서치 21, 2011, p.266.

246) 윤상일·박전열, 위의 책, pp.16~17.

산속의 호젓한 생활을 꿈꾸기도 하였다. 가모노조메이(鴨 長明, 1152~1216)는 『방장기(方丈記)』(1212) 속에서, 교토 근교 히노(日野)의 산에 꾸민 방장(사방 3m)의 암자 생활의 기쁨과 애환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절실한 고백서가 이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산속의 임시 거처에 대한 동경은 중세 지식인의 마음을 계속 지배하면서, ‘원래 아무 것도 가질 것이 없다(本來無一物)’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헤이안시대 이래로 속되지 않은 고요함과 아취(枯淡寂靜)의 미의식과 합치된 것으로, 다도의 창시자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23~1502), 다도를 정립한 센 리큐(千利休, 1522~1591)로 이어지면서 완성된 초암풍 다실에 보이는 고요한 운치의 차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센 리큐가 만든 대나무 꽃 통에 나타나듯, 그저 대나무를 잘라 내기만한 통에 동백꽃 한 송이를 꽂음으로 해서 간소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곧 응축된 풍류공간의 장치였다.

그것은 화려한 중국제품으로 이루어진 다도에 ‘스산함’을 의도적으로 덧붙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차의 이념이 그렇게 단순·소박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치함을 충분히 아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시중산거(市中山居)라는 가공된 빈곤으로 탈속의 유희라는 성질을 가지고<sup>247)</sup> 꾸미지 않은 미를 얻고자 했다.



<그림46> 센 리큐(千利休), 「대나무 꽃통(竹一重切花生)」, 園城寺, 높이 33.4cm, 입구지름 10.5cm, 바닥지름 10.3cm, 동경박물관 소장.

또한 센 리큐가 최고의 다실이라고 하는 1조 반의 공간은 다다미 한 장과 나머지 반을 갈라 받침대로 썼던 것이다. 다회를 가질 때 모두 자리를 좁혀야 하며, 몸은 꼳꼳하게 정좌를 하고, 모두가 상대방을 차분히 눈여겨보고 있

247) 쓰지노부오(辻惟雄), 이원혜 옮김,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주)시공사·시공아트, 2006, pp.73~75.



으니, 차를 만드는 사람도 열중해야 하고, 마시는 사람도 열중해서 마셔야 한다. 따라서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농밀한 관계, 팽팽한 긴장이 형성되는 꼼꼼한 축소 공간<sup>248)</sup>이라 할 수 있다.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1333)의 다풍은 선승의 차에서 차차 무가(武家)에 옮겨졌으며 족리시대(足利時代) 초기에는 이미 일반인에게도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다풍은 무가계급에 있어서 투다(鬪茶) 또는 다기합(茶寄合)이라 칭하는 귀족적인 호화판의 음다풍습이 되고, 서민에게는 일복일전(一服一錢)의 선술식의 다사가 있었다.

이 투차는 차를 맛보며 감별해 상을 거는 것으로 도박의 성격이 있어 폐지되었다. 이후 일부 상류층에서 ‘당양(唐樣)의 차’라 칭해 차 맛을 음미하고 기물을 감상하는 등으로 행해졌다. 이것이 ‘서원차(書院茶)’ 성격을 띠고 귀족화되었다. 이 시대가 족리의교(足利義教, 1394~1441) 족리의정(足利義政, 1436~1490)시대인 것이다. 이 족리장군(足利將軍)을 모신 분이 능아미(能阿彌, 1397~1471), 그의 아들이 예아미(藝阿彌, 1431~1485), 손자가 상아미(相阿彌, 1472~1525)<sup>249)</sup>였는데 이 삼대의父子가 족리(足利)를 받들면서 차로써 함께 하여 일본 다도사(茶道史)에 큰 공적을 남긴 것이다. 여기에서 소위 엄숙하고 사치스러운 서원차는 가셔지고 간소하고 조용하며 선민풍인 일본차의 타차(佗茶)가 시작되는 것이다.<sup>250)</sup> 타차는 서원차에 반해서 일어난 것으로 서원에 대해 ‘초암의 차’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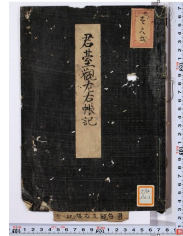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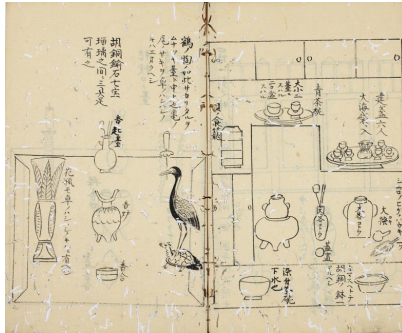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1336~1573)에 이르러 귀족이나 무사계급의 건축은 신덴즈쿠리(寢殿造)로 건물 안에서 차를 마시고 교류하는 문화를 서원차라 불렀는데 집 내부공간이 매우 넓고 천장이 넓으며, 마당과 정원도 넓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대문에서 집 출입문까지 잘 꾸며진 정원이 필수적이었다. 벽과 천장은 중국에서 들여온 여러 종류의 그림·글씨가 장식되어 있고, 바닥

248) 이어령,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주)문학사상사, 2003, pp.230~231.

249) 일본의 화가이며 미술 평론가·조경가(造景家)·진소(真相)라고도 한다. 노아미(能阿彌, 1397~1471, 일본의 렌가 작가이며 화가·미술 평론가)의 손자이며 게이아미(藝阿彌, 1431~1485, 일본의 다도가)의 아들로, 그 역시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 1472~1525)의 미술품을 수집하는 일을 하였다. 다도(茶道)·향도(香道)·꽃꽂이의 대가(大家)로 이들 도보슈는 향후 일본 미학사(美學史)에 뚜렷한 영향력을 미쳤다.

250) 김운학, 앞의 책, pp.118~119.

은 20첩 이상의 다다미를 깔고 사방의 벽은 고급벽지로 넓고 중후한 분위기를 띠었다.



<그림47> 「다도 선반 장식(茶湯棚飾)」

『군대관좌우장기(君台觀左右帳記)』

무로마치 중기의 다다미방 장식에 관한 비전서(부분)

그러나 선승 승려들은 사찰에서 차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윽하고 청정한 분위기를 더욱 원했다. 더구나 선승들의 차법은 송시대에 확립된 『선원청규(禪苑淸規)』<sup>251)</sup>를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절제된 행동이 특징이었다. 이것은 무사들의 좋은 수련법이기도 했다.<sup>252)</sup> 이 같은 갈망 속에서 태어난 것이 쇼인즈쿠리(書院造)<sup>253)</sup>였다.

이렇게 귀족이나 무사계급의 건축은 신덴즈쿠리에서 일본전통 가옥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쇼인즈쿠리로 변해갔다. 안쪽 방인 상좌에는 꽃과 족자 등을 장식하는 선반인 오시이타(押板)가 만들어졌다. 오시이타는 오늘날 일본식 방에서 방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 족자나 꽃 등을 장식해 두는 곳인 도쿄

251) 초기의 선종이 차를 얼마나 중히 여겼는가는 청규(淸規)를 보면 그 정황이 확연하다. 청규는 선원에서의 생활의 규정을 담은 법규집인데 8세기경 당(唐)의 백장회해(百丈懷海) 선사가 처음으로 제정했다. 그런데 어떤 사경에서인지 백장의 청규는 당말(唐末) 오대(五代)의 시기를 거치면서 산일(散佚)되어버리고 북송(北宋)에 이르러 자각종색(自覺宗色)이 당시의 여러 큰 사찰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하여 다시 찬술했다. 이것이 『선원청규(禪苑淸規)』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결국 현존하는 청규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되었다.

252) 정동주, 『한국인과 茶』,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4, p.191.

253) 모모야마시대에 완성된 주택 건축의 양식. 선종(禪宗)의 서원 양식이 관원·무사의 주택에 채택된 것으로 현재의 일본식 주택은 거의 이 양식임.

노마(床の間)의 원형으로 알려진다.<sup>254)</sup>

아즈치 모모야마시대(安土桃山時代, 1573~1603)에는 다도의 발전과 함께 다실의 정원인 로지(露地)가 등장했다. 귀족·무사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며 다도구를 감상하는 다회가 성행하게 되었고, 다실에 어울리는 정원을 조성하여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도는 원래 선종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으로 다이토쿠사(大徳寺)의 잇큐소준(一休宗純, 1394~1481)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무라타 슈코가 다도의 기초를 만들고, 그의 제자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가 계승하여 센 리큐가 이를 대성하였다.

다도의 정신은 선승이 행했던 자기표현을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의 마음을 표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도와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건물이 극단적으로 작고 간소화되면서 건물규모에 어울리도록 축소되었다. 작은 공간 내에서 시간을 느끼며 감상하기 위해 로지에 있는 도비이시(징검돌)<sup>255)</sup>과 쓰쿠바이(蹲踞)<sup>256)</sup>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

## 나. 다실 문화

### (1) 풍신수길(豊臣秀吉)의 황금다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가 축성한 오사카성은 사치를 다한 호화찬란한 것이었다. 히데요시는 황금으로 ‘황금다실’을 만들도록 했고 센 리큐도 이 다실의 설계에 참여했다고 한다. 황금 다실은 다기 및 차도구 뿐만 아니라 천장과 기둥, 벽과 다다미에 이르기까지 황금으로 만들어진 빛나는 다실로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너비는 다다미 3장, 다다미의 겉은 성성이 가죽, 가장자리에는 금란, 평상은 비단, 벽 천정·창문에 이르기까지

254) 이지선, 『일본의 전통문화』, 제이앤씨, 2008. p.79.

255) とびいし(飛(び)石) 천천히 공간음미, 풍경감상.

256) 웅크리고 앉아 여유를 부림, 실용의 의미. 다실(茶室) 뜰 앞의 낮은 곳에 갖추어 놓은, 손 씻는 물을 담아 놓은 그릇.(초대받은 손님이 다실에 들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하여 꾸그리고 앉기 때문에 이름) 준거(蹲踞)라고도 씀.

황금으로 꾸미고, 이 다실에 꾸며 놓은 다구인 금항아리, 금풍로, 금가마 등 호화찬란한 것이었다.<sup>257)</sup> 호화찬란한 점, 권력 과시에 이용된 점, 조립식인 점 등 모든 면에서 보통의 다실 건축과 구별을 분명히 하고 그 아름다움에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많은 다실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알려진 것 중 하나였다.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 아타미도시(熱海市)에 있는 MOA 미술관에도 히데요시의 황금다실이 재현되어 있다.



<그림48> MOA 미술관에 있는 「황금다실」 정면

## (2) 센 리큐의 초암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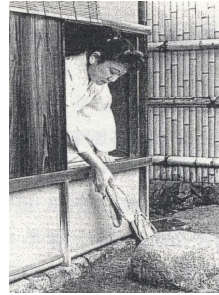
센 리큐의 초암차 정신은 새로움이다. 그는 새로운 다도를 창안하기 위해 웅장한 규모의 서원 형식인 쇼인즈큐리 대신 비가 새지 않을 정도의 작고 소박한 초가집을 생각했다. 다케노 조오가 실천했던 지붕의 판자를 걷어 내고 벗집을 이용한 이영을 만들어 덮었으며, 차실의 크기도 4첩 반을 2첩으로 줄이고, 다시 1첩으로 매우 작게 줄였다. 2첩 넓이의 차실은 2평방미터가 채 못 되는 좁은 공간이다. 센 리큐의 초암차가 집대성된 야마자기(山崎)의 묘희암(妙喜庵)안에 있는 다실 타이안(待庵)이 그 실체이다.<sup>258)</sup>

257) 김명배, 『일본의 다도』, 도서출판보림사, 1987, p.83.

258) 정동주, 위의 책, p.221.



<그림49> 센 리큐의 공간  
교토의 묘희암에 있는 대암(待庵)



<그림50> 니지리구찌  
다실 특유의 낮은 출입문 약 66cm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이후 모모야마시대(1573~1603)로 들어선 뒤 거칠고 불안한 민심을 가라앉히고, 포악해진 무사들이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때에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인 센 리큐가 히데요시를 위하여 묘희암에 다다미 2첩 넓이의 방을 지었다. 흙으로 된 좁고 작은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면 정신이 모아지고 기운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히데요시에게 가르쳤다. 그때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 진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도를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거칠어진 무사들의 심성을 다도를 통해 다스릴 수 있었다.

다실에 들어서려면 또 다시 가로 세로 60cm × 70cm의 ‘니지리구치(にじり-ぐち)’라는 작은 문을 이용하게 된다. 다실 건축과 함께 생겨난 독특한 출입구로 다다미 4장 반 이하의 다실에 설치하도록 했다.

니지리구치 옆 외벽에는 무사가 차고 온 칼을 걸어 두는 시렁이 있다. 무사의 상징인 칼을 다실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센 리큐의 의도로 해석된다. 어떠한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유를 추구하려는 정신세계의 표출이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겸손함을 표시하는 것이 다회에 초청된 손님의 의무이며, 니지리구치를 통과하는 순간 여러 가지 잡념을 털고 무심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sup>259)</sup>

259) 노근숙, 「일본 초암차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차문화 구조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 학위논문, 2008, pp.154~155.

### 3. 음다 공간에 깃든 다도사상

일본인은 숲이라는 자연환경과 공존하면서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자연과 함께할 때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여기에 사면이 바다라는 점에서 ‘숲(森林)과 바다의 문화’라 할 수 있다.<sup>260)</sup>

그들은 예부터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에서 발전한 것이 샛케이(借景)이었다.<sup>261)</sup> 이처럼 자연의 일부를 실제 생활공간에 축소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본의 독특한 미로 승화시켰다.

일본문학의 수식에는 거꾸로 몽둥이를 바늘로 축소하는 표현이 많다. “모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노 젓는 사공의 가는 팔이여!”와 같은 광가(狂歌)<sup>262)</sup> 한 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는 찢어진 창호지 구멍을 통해 그 넓은 밤하늘과 은하수를 보면서 “아름답구나. 창호지 문구멍으로 내다본 밤하늘의 은하수여!” 등이 있다.

일본의 오래된 시집 『만엽집(萬葉集)』<sup>263)</sup>에서 가장 많이 읊은 꽃은 싸리꽃으로 141수나 된다. 벚꽃이나 은방울꽃, 등꽃과 같이 대부분 꽃 자체가 작고 치밀하게 뭉쳐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일본인에게 싸리, 벚꽃, 등꽃 등은 ‘구와시 하나(花)’라 할 수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작고 치밀하게 응결된 결정체, 즉 ‘구와시くわし・い(자상하다)’한 것이었다. ‘미’를 나타내는 일본어의 어원을 보아도 작은 것, 치밀한 것을 ‘미’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64)</sup>

일본화가 가르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는 1804년부터 그의 평생의 결실이 담긴 드로잉들로 형성된, 일종의 그림백과사전을 출간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악삼십육경(富嶽三十六景)」중에서, 「시나가와에서 파도 뒤로 보

---

260)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 엄석인 옮김, 『사상으로 보는 일본문화사』, 예문서원, 2003,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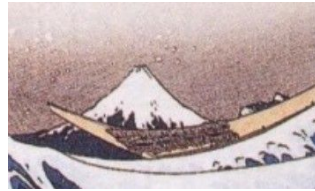
261) 김미란, 『일본문화』, 형설출판사, 1997, p.237.

262) 음조·가사(歌辭)에 맞지 않게 마구 소리를 질러가며 부르는 노래.

263) 『만엽집(萬葉集)』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후반 무렵에 걸쳐 짜여진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和歌集이다.

264)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앞의 책, pp.38~39.

이는 후지산」은 파도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sup>265)</sup> 거기에는 바다의 광활함과 격렬함이 내포되어 있다.



<그림51> 「시나가와에서 파도 뒤로 보이는 후지산」

원래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대지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그리고 확산하는 생명에서 아름다움을 구한다. 그러나 가즈시카 호쿠사이의 파도는 확대의 공간을 거부하고, 그 막막한 연속체와 확산적인 움직임을 축소의 세계로 바꿔버렸다. 영화의 슬로모션으로 찍은 동작이 훨씬 스피드감이나 박력감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스톱모션이나 슬로모션은 움직임을 축소한 미학이기 때문이다. 파도의 스톱모션이나 혹은 노(能)의 그 느릿느릿한 몸짓은 행동의 시간적인 축소이다. 말하자면 노의 동작에서 한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연기이다.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팽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sup>266)</sup> 노를 통해서 유현미(幽玄美)를 체득하는 것이다. ‘가을 저녁 무렵 하늘의 경치는 색도 없고 성도 없다’라는 비유로 무색(無色)·무성(無聲)의 상태는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한마디 말에 많은 이치를 담고, 말로 나타내지 않고도 깊은 마음을 다하는 상태<sup>267)</sup>를 하나의 순간으로 축소하여 표현했다.

「시나가와에서 파도 뒤로 보이는 후지산」의 그림을 인간의 생활 장소로 옮겨 오면 ‘가마에(構え, 준비)의 모습이 된다. 그 유사성이 눈에 띄는 노(能)의 발생과 발전, 다도(茶道), 이와 함께 생겨난 화도(華道, 꽃꽂이), 궁도(弓道) 등이 주목된다.<sup>268)</sup> 이렇게 ‘도(道)’자가 붙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마에’로

265) 아키야마 데루카즈(秋山光和), 이성미 옮김, 『일본회화사』, 소와당, 2010, pp.282~283.

266)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위의 책, p.118.

267) 정순희, 『일본인의 미의식과 정신』, 도서출판 보고사, 2007, p.225.

부터 출발한다. 가마에는 모든 동작, 앞으로 일어날 혹은 이미 있었던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자세로 ‘축소한 형태’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구조를 가진 찻나의 움직임이다. 움직이고 있는 한 순간의 정지이다.<sup>269)</sup>

일본의 대표적인 가면극 노(能)를 통해 형식의 아름다움이 심화된 모습을 다도에서 보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작의 형식적 미를 모양화(模樣化)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장 낭비가 없는 합리적인 절차라는 다도의 예법론으로 동작의 아름다움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도를 생각한다는 도의 경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도가 선(禪)과 밀접하게 어울려 종교의 경지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70)</sup>

다시 말하자면, 다도는 차도구를 다룸으로써 본성을 깨닫는 수행이다. 따라서 차의(茶意)는 선의(禪意)이다. 그러므로 선의를 벗어나 차의는 없고 선미(禪味)를 알지 못하면 차미(茶味)도 알 수 없다. 선미 차미가 같은 맛이므로 맛과 하나로서 둘, 둘로서 하나이다. 이는 차를 끓이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깨닫는 과정으로, 차는 당연히 「선차(禪茶)」인 것이다.<sup>271)</sup>이처럼 차를 통해 자성을 깨닫고 본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셴리큐의 다도관을 담고 있는 『남방록(南方錄)』에서도 화려하고 귀족적인 취향을 소박하고 서민적인 요소로 표현해 내면서 그 모순을 조화시켜 내고 있다. 서도(書道)의 개념인 ‘진행초(眞行草)’를 다도에 도입하여 진은 호사스럽고 장엄한 것, 초를 소박하고 한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진행초의 개념을 다실이나 다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 다도의 의미를 정립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72)</sup>.

위의 그림에서도 표현하듯이 호쿠사이의 파도그림은 정지한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조각’이라 불리는 노의 몸짓은 ‘슬로’로 보여도 느린 것이 아니다. 검도의 ‘가마에’는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전성(一轉性)으로 변한다. 노의 표정은 그저 얼어붙은 무표정이 아니다. 파도는 일순간에 떨어지고, 노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희로애락의 극과 극을 나타낸다. 이처럼 인간

268) 이마미치 도모노부(今道友信), 조선미 옮김, 『동양의 미학』, 다솔미디어, 2005, p.91.

269)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위의 책, pp.118~119.

270) 야나기 무네키,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美』, 도서출판 소화, 2010, pp.12~13.

271) 야나기 무네키, 위의 책, pp.123~124.

272) 박전열, 『남방록연구』, (사)한국차인연합회, 2012, p.42.



의 문화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시각은 축소지향성이, 청각은 확대지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sup>273)</sup> 축소문화에 강한 일본문화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문화를 더욱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73)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위의 책, pp.126~133.

## 제4장 한·중·일 음다 공간의 비교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 음다 공간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1차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사대부들이 주체가 된 음다 공간은 점차 고급문화공간으로 발전하였고, 휴식·사교공간이자 창조 의 산실로 자리매김 되어 갔다. 이에 한·중·일의 문화흐름이 비슷한 맥락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삼국의 음다 공간에 나타 난 정신과 삼국의 그림에 보이는 음다 공간은 기후, 환경, 사상에 따라 공통점과 상이점을 알 수 있다. 시대나 나라는 달라도 사람이 느끼는 심성은 비슷하며, 자연에서 연출되는 환경에 따라 음다 공간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에 내재된 의미를 공통점과 상이점을 살펴보고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체험한 삶을 통해 음다 공간의 세계를 해석하므로 음다 공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제1절 한·중·일 음다 공간의 공통점

#### 1. 그림을 통해 본 음다 공간의 공통점

한·중·일의 음다 공간의 특성과 음다 공간에 깃든 사상과 문화들을 살펴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삼국이 서로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시대성에 따라 자신들만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미의식들을 창출해 내고 있었다. 한·중·일 삼국의 경화사족(京華士族)과 지식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적극적 융합을 통하여 호사스러운 도시문화가 성장하였다. 여유 있는 사대부들이 중국 골동품과 서화수집과 옛 서적을 구하여 서재를 채우고 차·향·떡

· 붓· 괴석· 파초 등 각종 화훼로 정원을 장식하는 것으로 읍다 공간을 확장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풍조가 심화되면서 경제력과 학식을 갖추고 문화집단으로 성장한 중인(中人)들은 사대부층의 풍요로운 도시문화와 시·화를 교류하는 문예행위까지 누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사대부들은 사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시각적인 형태보다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내면의 정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읍다 공간에서는 사군자의 상징인 매·난·국·죽은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되었다.

경화사족들은 가택이나 그 근처에 별서를 지어 읍다 공간을 겸했는데, 여기에 문예창작·서화 감상·골동취미·분재수집·탄금·바둑 등을 즐기면서 은일처사의 생활을 향유하였다. 장서가의 출현과 서재문화는 귀족 및 사대부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서적수집과 시를 통한 교류는 점차 보편화되었고 귀족·사대부뿐만 아니라 부유한 여향인 계층으로 확대되어 점차 서화의 구매욕도 커지기 시작했다. 문자향과 서권기관 말에서 보듯 예술적 영감은 점차 현실과 멀어질수록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sup>274)</sup>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문인화의 등장을 촉구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문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작가의 주관과 개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미묘한 감정과 정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과 화풍을 거부하고 자신의 시각과 정신에 따라 재해석하여 형상화시켰다. 여기에 작품에 개입되는 작가의 성정은 주관적 심의와 흥취만이 아니며, 인격과 교양 및 이상과 염원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sup>275)</sup> 이처럼 문인화는 문인들의 그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의 화풍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두루 그려지게 되었고, 문인화의 대표화목은 사군자였다.<sup>276)</sup>

인간에게 인격이 있듯이 동양의 회화 이론이 그림에도 화격(畫格)을 부여하여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사상이 문인화의 생명이라면 그 표현은 남종화(南宗畫)의 기교이며, 그 내용은 시·서·화 삼절이었다.<sup>277)</sup>

274) 이지연, 「벽오사를 통해서 본 조선말기 여향문인화 작품 연구」, 한국고원대석사학위논문, 2010, pp.12~15.

275) 국사편찬위원회,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두산동아, 2007, p. 226.

276) 이선옥, 『사군자』, 돌베개, 2011, p.28.

277) 양선규, 「조선시대 시·서·화의 정신과 사상 연구 : 원당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06, p.17.

이상적인 자연의 경관을 회화적으로 재구성한 산수화 주변의 식물을 사대부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로 승화시킨 것이 문인화였다. 그림과 함께 주제에 호응하는 시문을 세련된 서체로 써 넣어 삼절을 이루는 것이 유행하였다.<sup>278)</sup> 시·서·화의 정신에 영향을 준 사상은 유·불·도였다.

도가(道家)사상은 자연주의 정신으로 노자철학이 중심이다. 노자사상의 핵심은 도(道)이다. 그는 ‘도’는 천지만물을 생산하고 변화시키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율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도의 성질은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이었으며 이는 노자철학의 최고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와 인생관도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긴다, 유약함을 지킨다 등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자연에서 유래된 것이다.

도가학설은 노자의 도를 기초로 한 것이다. “도는 천지만물과 우주의 근원이다. 따라서 천지만물은 모두 도에서 나오며, 도의 법칙은 자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는 자연을 본 받는다(道法自然)”고 규정했다. 도는 자연과 무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연에 본받고, 무위를 근본으로 삼는다(法自然, 宗無爲)”는 것이 노자사상의 핵심이다. 그 요지는 천지와 인류의 관계, 그리고 천지만물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보편적 규율을 탐구하는 것이다.

도가에서 다도는 도법자연을 강조한다. 음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정(動靜)을 모두 갖추고 있다. 움직이면 유수와 같고 고요함은 산악이 우뚝 서 있는 것과 같다. 웃으면 봄꽃이 스스로 핀 것 같고 말하면 산천이 시를 읊는 것 같다. 모두 자연스럽고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으며 억지로 일을 만들지 않는다. 도법자연은 즉, 청정무위이고 애초의 순박함으로 되돌아가서 참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차를 마시면 마음이 해방되어 속세에서 떠난 느낌을 받는다. 그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깨달음이나 무아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된다. 도가의 ‘천인합일’ 사상이 다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다도가 높은 경지에 이르면 사물과 나를 모두 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장사상의 정수인 좌망(坐忘)<sup>279)</sup>으로, 도교는 다도로 하여금 허극(虛極)에 이르게 하여

27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7.

279)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초탈한 상태이며, 자기중심적인 지적 판단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즉, 장자의 다른 표현으로 ‘無己’와 ‘喪我’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이 진실한

좌망의 범문으로 인도한다. 이른바 도가에서 추구하는 무아(無我)의 관념이다. 무아는 자신의 육신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물과 나를 버리고 자연에 합치되며 마음으로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sup>280)</sup>

유가(儒家) 사상은 인(仁)과 효(孝)를 핵심 사상으로 한다. “어진 이는 사람을 사랑했고(仁者愛人) 효와 자애가 바로 충(孝慈則忠)”이었다. 유가에서는 인과 효를 갖추으로써 도덕적 자각을 완성하고 이상적 인격을 갖춘 성실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바로 자기 몸을 닦아 수양하고, 가정을 안정되게 하며, 국가를 보살피 천하를 평정하는 이른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인재가 될 수 있음을 뜻했다.<sup>281)</sup>

유가는 은(殷)나라 때 태동해서 춘추전국시대에 틀을 잡았다.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고대의 대변혁이었다. 유(儒)라는 명칭이 최초로 기록된 곳은 『논어(論語)』 「옹야(雍也)」 편인데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는 그의 제자 자하(子夏)와 대화하면서 “군자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 같은 선비는 되지 말아라(汝爲君子儒 無爲小人儒)”<sup>282)</sup>고 하였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지식인을 군자유(君子儒)와 소인유(小人儒)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sup>283)</sup>

공자는 “군자가 인(仁)을 버린다면 어찌 이름을 이루겠는가?(君子去仁 惡乎成名)”라고 하여 사람의 공부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sup>284)</sup> 『여씨춘추(呂氏春秋)』 「불이(不二)」 편에서도 “공자는 인을 귀하게 여겼다(孔子貴仁)”고 하였다. 허신(許慎, 30~124)의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인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로 설명했고(仁, 親也, 從人從二), 『禮記』 「정현(鄭玄)」 주에는 “인은 사람끼리 함께 하는 것이다(仁是相人偶之意).”라 하였다. 단옥재(段玉裁, 1735~1815)가 『설문해자(說文解字)』 주에서 “혼자이면 짝이 없는

---

내용이 바로 심재(心齋)이며, 심재의 의경(意境)이 곧 좌망의 의경인 것이다. 미학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일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태도이며, 그 특징의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세속적 관계를 떠난 본연의 마음상태를 지니는 것이다. 심재와 좌망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상태를 철학적으로 표현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지원 지음, 『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p.68.

280) 장언푸(張恩富), 김영진 옮김, 『한권으로 읽는 도교』, 산책자, 2008, pp.355~356.

281) 첸파평(錢發平), 최성흠 옮김, 『한권으로 읽는 유교』, 산책자, 2008, p.8.

282) 남회근(南懷瑾), 송찬문 옮김, 『論語講義 上』,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02, p.383.

283) 첸파평(錢發平), 위의 책, p.18.

284) 남회근, 위의 책, p.240.

것이고, 짝이 있으면 친한 것이니, 인과 둘에서 비롯된 글자이다(獨則無偶, 偶則相親, 故字從人二).”라고 하여 인은 개인의 정신수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285)</sup> 이렇게 유교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불가(佛家)사상에서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불교는 2500년 전 고인도 가비라위국(迦比羅圍國)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에서 시작되었다. 동한(東漢)의 애제(哀帝, BC 26~BC 1) 때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위·진 시대에 이르러 현학이 흥기하여 점차 불교이론과 결합되면서 중국화된 불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다.<sup>286)</sup> 수·당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위로는 황제에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광적으로 불교를 신앙했다.<sup>287)</sup>

선종적 깨달음의 세계는 문인들에게 지극한 탈속의 정신적 분위기 혹은 무욕과 초탈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한 강렬한 욕구에 가까웠다.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중년에 들어서 고승과 가까이 지내며 계를 받고 참선에 열중했다. 그가 불교를 받드는 경건함과 불교사상을 받아들인 진지함은 「취음선생묘지명(醉吟先生墓誌銘)」에 잘 나타나 있다.

밖으로는 유학으로 몸을 수양하고	外以儒行修其身
안으로는 불교로 마음을 다스렸네	內以釋教治其心
더불어 산수와 풍월	旁以山水風月
노래와 시, 거문고와 술로 그 뜻을 즐겁게 했네	歌詩琴酒樂其志 <sup>288)</sup>

선종의 돈오(頓悟)는 갑작스럽게 깨달음에 도달하는 경지다. 동기창(董其昌, 1555~1636)은 이를 회화제작과 연관시켰다. 회화는 북종화<sup>289)</sup>와 남종화로 나

285) 첸파핑(錢發平), 위의 책, p.65.

286) 우더신, 『한권으로 읽는 불교』, 산책자, 2008, p.8.

287) 우더신, 위의 책, p.195.

288) 우더신, 위의 책, p.260.

289) 북종화(北宗畫)는 2대 유파 가운데 하나로 단순히 북화(北畫)라고도 하며 남종화(南宗畫)에 대응하는 말이다. 북종화와 남종화의 역사적 배경은 멀리 남북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곧 200년간이나 계속된 남북조의 대립은 사상적 이념은 물론 화가들의 화풍까지도 달라지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남북화의 관념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남북화론으로 갈리게 된 것은 명나라 때의 동기창(董其昌)·막시룡(莫是龍) 등 남종화파 화가가 북종화

늪는데 남종 문인화는 선종적 깨달음의 최고 경지와 통한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선종적 추구가 이러한 중국의 취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은 분명하다. 자하 신위는 “화가가 그림에 빠져드는 것은 선가(禪家)의 오묘한 깨달음(妙悟)과 같고,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는 형태나 채색을 공교하게 잘 그려서 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신위와 김정희 그리고 선승 초의선사 등은 선(禪)과 예술의 지극한 경지를 주장하며 문예를 이끌어간 인물들이었다.<sup>290)</sup>

음다 공간을 삼국의 「죽림칠현도(竹林七賢圖)」를 통해 비교·분석해 본다.



<그림52> 중국 「竹林七賢 榮啓期」<sup>291)</sup>전화(塼畫),

1960년, 강소성 남경시 서선교 동진묘에서 출토, 88cm × 240cm.

「죽림칠현 영계기(竹林七賢 榮啓期)」에 그려진 나무는 기법이 아주 세밀하고 다양하다. 북방민들이 민간의 삶을 중시하여 목축, 농경 등을 묘사하였다면, 남방에서는 자연을 보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인식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죽림칠현은 교육을 받은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균형과 때 묻지 않은 자연에서 자아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위진(魏晉)의 풍류는 청담(淸談)을 숭상하여 마시는 음료는 술에서 점차 차로 발전되어갔다.<sup>292)</sup> 정치권력에는 등을 돌리고 죽림에 모여 거문고를 뜯고 술을 즐기며, 차를 마시고, 청담을 주고받으며, 음다 공간에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선비들이다. 노장사상이 그들의 근본 사상이었다.<sup>293)</sup> 이른바 은자

과인 화원(畵院)과 전문화가들을 비판한 데서 비롯되었다.

290)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도서출판 돌베개, 2007, p.270.

291) 榮啓期: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BC 8세기에서 BC 3세기에 이르는 중국 고대의 변혁 시대). 사람으로 외물에 구애됨 없이 유유자적한 삶을 누렸다고 함.

292) 치우치평, 앞의 책, p.234.

293) 변성규, 『竹林七賢』, 문이재, 2002, p.5.

(隱者) 부류는 당시의 정치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정치, 사회 제도도 반대했다. 그 후의 소위 도가학파는 위진 교체기에 모든 전통적인 사상과 제도를 반대했다.<sup>294)</sup> 이런 유형의 지식인들은 문학형식을 중시하면서 예술을 위한 미학이론을 전개하였다. 위·진남북조시대의 미학은 인물감상에서 나온 미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인물 비평이 매우 유행했다. 한 예로, 혜강(嵇康, 223~262)은 키가 7척8촌이나 되었고, 그를 본 사람들은 “후리 후리하고 멋진데다(蕭蕭肅肅)<sup>295)</sup> 시원스럽고 명쾌하다” 했고, 왕희지에게는 “마치 떠도는 구름과 같고, 날렵함은 놀란 용과 같다”고 했다. 이것은 자연을 근본으로 삼고 자연적인 성정을 중시한 까닭에 자연미가 바로 인물이나 예술의 미적 근본이 되었다.<sup>296)</sup>

혜강(嵇康)의 시 「죽림의 교유(竹林의 交遊)」를 보면 대자연 속에서 소요하고 죽림에서 노니는 구체적인 모습이 보인다.

즐겁도다 동산 가운데 소요하니	樂哉苑中遊
온갖 풀은 향기로운 내음 풍기고	百卉吐芳華
냇가에 이르러 맑은 술 서로 권하니	臨川獻清醕
하얀 이 드러내며 그윽하게 노래하네	微歌發皓齒
거문고 고아한 소리 튕겨내면	素琴揮雅操
맑은 소리 바람 타고 일어나네	清聲隨風起 <sup>297)</sup>

잠시 현실을 벗어나 스스로를 은자로 다짐하고 자연에서 존재와 정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듯하다. 심신이 불편할 때는 해결책으로 거문고를 연주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혜강은 거문고의 명수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실외의 공간을 활용하는 사대부들이 많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대물박(地大物博)이라 하듯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문물을 지닌 나라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이 원림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실외에서 다·주·시·서·화·악(茶酒詩書畫樂)을 즐겼을 것

294) 풍우란, 박성규 옮김, 『중국 철학사 上』, 까치글방, 2011, p.282.

295) 원래 바람소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멋진 모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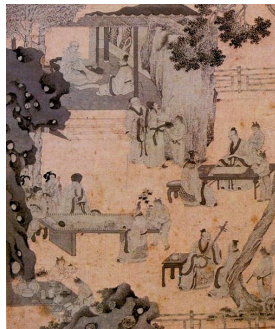
296) 최병규, 『풍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학사』, 예문서원, 1999, pp.90~92.

297) 변성규, 위의 책, pp.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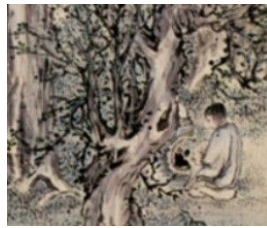


이다. 때문에 중국문화의 여러 장르 중에 시와 서예와 회화 부분은 지식층들이 이 분야를 한데 연관하여 이를 연마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매우 가치있는 일<sup>298)</sup>로 여겼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송대 조길(趙佶)의 「문회도(文會圖)」를 보더라도 주연(酒宴)과 다연(茶宴)이 함께 하면서 취기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차의 존재를 중요시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외의 놀이공간은 음다 공간의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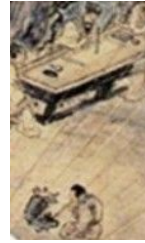


<그림53> 북송시대, 소식(蘇軾)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부분



<그림54> 조선 후기, 이인문(李寅文)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298) 최종세, 『중국 시·서·화 풍류담』, 책이 있는 마을, 2002, pp.12.



<그림55> 조선 후기, 김홍도(金弘道)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1778년, 수묵담채, 26.9cm × 91.2cm 국립박물관소장

위·진 시대(魏晉時代, 220~420) 죽림에 모여 청담으로 세월을 보낸 죽림 칠현에서 맹아하여 남조시대(南北時代, 439~589)에서 꽃을 피웠고 동파(東坡) 소식(蘇軾, 1037~1101)의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와 유춘(有春)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의 「서원아집도」,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의 「서원아집도」에서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죽림칠현」에서 시원(始原)한 「서원아집도」는 문인들의 삶과 마음을 추상으로 이끌어주는 실외 음다 공간으로 자유를 공유하며 즐긴다는 의미가 엿보인다. 한국 남도의 무악(巫樂)인 시나위처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서원아집도」는 일 년 중 좋은 절기에 뜻이 맞는 친구들과 실외 음다 공간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술과 차를 마시는 문인들의 운치 넘치는 모임이기도 하였다. 그림 아랫부분에는 차로 숙취를 풀기위해 다동이 화로 곁에서 찻물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자연에 나가 차를 마시며 즐기는 모습에서 귀거래 하고자하는 마음,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어 내릴 수 있다.

다음은 일본 「죽림칠현도」를 통해서 음다 공간을 살펴보고자한다.



<그림56> 설촌주계(雪村周繼, 1504~1589), 「죽림칠현도」

무로마치시대(1575작품) 紙本墨畫, 六曲屏風一双右隻 各169.0cm × 335.2cm,  
중요문화재, 동경 진산미술관 소장.

일본의 「죽림칠현도」에서도 유유자적하는 모습은 삼국이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나 환경에 비추어볼 때 그들은 항상 화산의 그늘에서 견뎌야 했고, 내전과 부족 간의 싸움이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운 자세로 생활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한 장소에서 여유롭게 유유자적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었다. 따라서 바로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면서 은거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어린 다동 3명이 음식과 마실거리를 등에 지고 와서 나누어 주고, 2명의 다동은 떠날 채비를 하고, 어린 다동 1명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게 차를 권하고 있는 장면으로 실외 음다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잠시 난세를 피해가는 일시적인 은거생활로 항상 준비된 태세인 ‘가마에’ 정신이 심중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위 그림에서는 다동이 찻물을 끓이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바로 떠날 채비를 해야 했기에 차는 집에서 끓여오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한국 「죽림칠현도」에 보이는 음다 공간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57> 춘전(春田) 이용우(李用雨, 1904~1952),  
「죽림칠현도(竹林七賢圖)」, 1943년, 32.5cm × 47.0cm.

한국의 「죽림칠현도」를 보면, 중국 위·진의 교체기에 세상을 등지고 죽림에 모여 청담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선비들의 삶이 조선시대 서화완상

을 즐긴 묵객들의 이상이기도 했다. 그림을 보면 어느 청명한 여름 날, 대나무 숲이 있는 물가에 앉아 선비 세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그 아래 두 선비는 시를 짓고, 현재 관직에 있는 선비는 무척 부러운 양 다리 중간쯤에서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뒷짐을 지고 바라보는 그 속마음이 엿보인다. 어린 다동은 찻물을 끓이기 위해 화로에 부채질을 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선비 뒤편 탁자 위에는 두 권의 책과 꽃이 꽂혀 있는 화병이 놓여 있는 걸 보아 선비들 방의 구성요소인 문방사우와 함께 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죽림칠현의 일상사에서 실외 음다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다.

또한 온돌문화에 익숙한 우리의 좌식생활이 습관화된 한국의 「죽림칠현도」에는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서 각자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다동은 한쪽에서 찻물을 끓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음식문화에서 살펴보면 우리네 선조들은 즉석에서 끓여먹는 국물이 있는 탕(湯)을 좋아한 까닭에 마시는 차도 즉석에서 뜨겁게 끓여 마시는 것을 선호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림58> 운보(雲甫) 김기창(金基稔), 「상산사호도(商山四皓圖)」  
종이에 수묵담채, 45cm × 150cm, 1964년.

「죽림칠현」과 비슷한 그림으로 「상산사호도」가 있다. 운보(雲甫) 김기창(金基稔, 1913~2001)의 작품으로 「죽림칠현」과 비슷한 은거생활에서의 다사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염과 눈썹이 하얀 네 은사 모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 다동은 차를 열심히 끓이고 있다. 이 그림의 네 선전은 진시황(기원 전 256~기원 전 210)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은 선비들<sup>299)</sup>로 본래 소재는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민화로 그려 전해오고 있다.<sup>300)</sup>

그림을 통해서 본 음다 공간은 근세나 최근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자연으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자연친화적 사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의 죽림칠현의 그림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를 『논어』 제7편 「술이(術而)」편을 참고로 하고자 한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를 삼고 있어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飯疏食 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이것은 사람의 수양이 최고에 도달하려면, 먼저 물질적 외부 환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다.<sup>301)</sup>

한재(寒齋) 이목(李穆) 『다부(茶賦)』의 「차의 육덕(六德)」에서도, 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을 맑게(氣淸), 마음을 편안하게(心逸), 신선과 같게(仙), 예의롭게(禮)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차를 마심으로 마음을 수신하며 덕을 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가 지닌 덕목이 지나치지 않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았듯이 음다 공간에서 차보다 술이 주제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술은 마시는 사람들이 직접 술병을 들고 서로에게 따라주며 마셨고(직접적인 방법), 차는 다동에게 차를 준비시켰기 때문에(간접적인 방법) 술을 마셨다는 기록에 편중되었을 것이다. 술을 마시다 취기가 돌면 술을 깨기 위한 한 방법으로 다동에게 차를 끓이도록 하고 술을 마셨다. 이는 차와 술이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금계일기(錦溪日記)』에 보면 … …종을 불러 차를 올리게 하고, 또 술을 가져와서 따르게 하였다. 뜰에 가득한 화초에서 향기로운 바람은 옷깃을 스쳐가는데 … …서로 두어 잔을 수작하니 이미 한낮이 되었다<sup>302)</sup> 이 글에서

---

299) 중국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의 남산(南山)을 별칭하는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이곳에는 진시왕(秦始皇) 말기의 난세(亂世)를 피하여 네 명의 은사(隱士) 즉 동원공(東園公), 염리선생(菴里先生),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이 은거하였다 한다. 4명의 은사들은 머리도 눈썹도 하얗게 희었기에 ‘상산사호(商山四皓)’라 불리었는데, 그들은 유가(儒家)의 인의(仁義)가 무너졌음을 한탄하며 상산의 자연에 묻혀서 숨어살며 속세를 초월한 선인(仙人)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상산은 단순 지명보다는 높은 뜻을 지겨내는 지사(志士)를 뜻하는 ‘높은 말’로 더 인식되기 시작했다.

300) 정영선, 『다도철학』 앞의 책, p.234.

301) 남회근, 『논어강의 上』 위의 책, p.460.

302) 노인(魯認), 『금계일기(錦溪日記)』 「금계일기(錦溪日記)」, 4월 16일, 고전번역총서.

도 차와 술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은집(牧隱集)』에서 숙취를 풀기 위해 차를 마신다는 대목이 나온다.

가장 한스러운 건 숙취가 아직 안 풀려  
홀로 차를 불러다가 회향탕을 마심일세

最恨宿醒猶未解  
獨呼茗飲啜茴香<sup>303</sup>

이 시는 한정당(韓政堂)이 좋은 음식으로 종학(種學)의 고원 주석(誥院酒席)을 도와주었는데, 목은(牧隱)이 그 일에 대해 즉시 사례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더니, 한정당이 또 술까지 마시도록 권하므로 굳이 사양하고 회향탕(茴香湯)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연의 풍경 속에서 차와 술과 꽃이 항상 함께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응희(李應禧)가 지은 『옥담시집(玉潭詩集)』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다.

촌락의 꽃 찾아가서는 긴 붓으로 시 쓰고  
골짜기 물 찾아가서는 시원스레 시 읊는다  
술 마시는 자리에는 바람이 흥을 끌어오고  
차를 달이는 저녁엔 달빛이 마음을 비추네

村花覓處揮長筆  
谷水尋時爽一吟  
樽酒對朝風引興  
鼎茶燃夕月澄心<sup>304</sup>

앞의 내용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기록은 있으나, 차를 마셨다는 기록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세 끼니 밥을 먹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기듯 차와 술은 같이 하는 일상사로 여겼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기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당나라 왕부(王敷)<sup>305</sup>의 「다주론(茶酒論)」과 일본 란슈큐 선승(蘭叔 禪

303) 고서거정(徐居正),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20권, 시(詩), 고전번역총서.

304) 이응희(李應禧), 『옥담시집(玉潭詩集)』 「옥담유고」, 회문체(回文體)를 써서 회포를 읊어 삼삼에게 삼가 드리고 화답을 청하다, 우수고전번역서.

305) 중국 당나라 초기의 구어소설(口語小說). 저자는 진사(進士) 왕부(王敷)라고도 하고, 왕오(王敖)라고도 한다. 차(茶)와 술[酒]이 서로 잘났다고 논쟁을 했으나 결말이 나지 않아 물이 나와서 중재했다는 이야기인데, 고사(故事)는 인용하지 않고, 속어를 많이 쓴 소박한 문장이며, 4언 6언(四言六言)의 구(句)가 많아서 일종의 부(賦)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둔황[敦煌] 발굴 때 발견되어 1부는 프랑스인(人) 페리오가 파리로 가져가고, 또 1부는 헝가리인 스타인이 런던으로 가져갔는데, 이들 모두가 잘 보존되어 있다.

僧)<sup>306</sup>의 「주다론(酒茶論)」의 내용에서도 차와 술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sup>307</sup> 차를 마시면 번민이 씻기고 술을 마시면 근심을 잊는다는 서로의 공덕이, 시대가 흐르면서 차와 술은 마실 거리로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다.

육우의 『다경』 「육지음(六之飲)」에 차와 술의 성질을 지적하고 있다. ‘목마름을 구하려면 미음(漿)을, 근심과 번뇌를 덜려면 술을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깨려면 차를 마신다(至若救渴 飲之以漿 蠲憂忿 飲之以酒 蕩昏寐 飲之以茶)’<sup>308</sup>고 했다. 이는 차와 술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곡수연(曲水宴)을 통한 음다 공간의 공통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삼국은 문화적·지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미적 현상이나 미에 대한 인식에 있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놀이·예술문화’에 있어서는 성품·외모·학식·사상적 성향·취미 등 외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내적 수양과 품격을 중시하며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강조했다.<sup>309</sup> 그래서 삼국 정원문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연못의 형

306) 蘭叔의 『酒茶論』은 乙津寺에 보관되어 왔으나 2차 세계대전 때의 공습으로 乙津寺와 함께 소실되었다. 또 한 권이 京都 妙心寺 養徳院에 보존되어있는데 養徳院의 제1세 功澤宗勳이 蘭叔禪僧의 法嗣로 사제지간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功澤이 은사인 선사로부터 자필본을 내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7) 정병만, 「蘭叔 禪僧의 『酒茶論』 小考」 제3회 국제차문화 학술세미나, 목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2006, p.18.

일본 란슈큐 선승(蘭叔 禪僧)의 주다론(酒茶論)과, 唐나라 왕부(王敷) 다주론(茶酒論)이 생겨날 정도로 술을 마시면 근심을 잊고, 차를 마시면 번민을 씻어준다는 서로의 공덕이, 시대가 흐르면서 술과 차는 마실 거리로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쁘다는 良, 不良과 善, 惡이 아니라 기본은 같은 등가(等價)의 존재이다. 망우군(忘憂君)과 척번자(滌煩子)의 자리에 홀연히 나타난 어느 한인(閑人)의 말 한마디는 중용의 오묘(奧妙)함과 선승을 보는 듯하다. “둘은 천하에 가장 빼어난 우물(尤物)이라, 술은 술이요 차는 차일세(吾言天下兩尤物 酒亦酒哉茶亦茶).”

308) 치우지평(裘紀平), 앞의 책, p.196.



태를 이용한 미적 특징을 찾아보겠다.

곡수연은 중국 동진(東晉) 시대 왕희지(王羲之, 307~365)가 남긴 『난정기(蘭亭記)』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명예·지위·재력·지식·교양을 갖춘 귀족들이 곡수연을 베풀고 시문을 짓고 가무를 즐기면서 현실에 얽매임 없이 여유롭게 귀족적 취미놀이를 즐겼다. 이런 고사를 본 따서 한국과 일본의 왕궁에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의 유배거(流盃渠)가 만들어졌다.

『고문진보 후집』의 ‘난정에서 지은 글’의 서문에 보면, 난정은 중국 동진 때 절강성 소흥에 있던 정자이다. 동진 목제(穆帝) 영화9년(永和九年) 3월 삼짇날, 왕희지를 비롯한 명사 42명이 난정에 모였다. 이곳에서 목은 때를 씻고 행운을 빌며 곡수연을 베풀었다. 곡수연이란 구부러진 냇물에 여러 사람이 앉아 물에 둥둥 떠 흘러내려오는 술잔을 차례로 받으며 시를 짓는 놀이로 유상(流觴)이라고도 한다. 이 글은 곡수연에서 지은 시를 한데 모으고 서문으로 쓴 것이다.<sup>309)</sup> 중국 절강성 소흥 난정에 보존되고 있는 유상곡수터 이외에도 청대 북경 이화원 내 계상정(禊賞亭)에 곡수거(曲水渠)가 있다. 이 놀이를 유상곡수연이라 하여 그 때부터 상류층의 놀이문화로 크게 유행했다.

이렇듯 초기에는 비교적 넓은 자연을 이용하여 곡수연을 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궁궐 정원이나 풍경 좋은 곳에 곡수거 형태를 설치하여 즐기는 놀이문화가 성행하였다. 한 예로 북송시대, 소식(蘇軾)의 「서원아집도」를 보면 그림 하단 부분에 차를 준비하고 끓이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이는 위의 그림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차를 마심으로 취기를 가시게 하여 정신을 맑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유상곡수 문화는 주연(酒宴)과 다연(茶宴)을 함께하는 정원 시설에 가미시킨 음다 공간으로 귀족들의 놀이문화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모임인 난정수계나 서원아집회, 향산구로회<sup>311)</sup> 등은 중국 문인고사에 비유되곤 하였다. 단원 김홍도의 「서원아집도」나 화산관(華山

309) 신은경, 『풍류』, 도서출판 보고사, 2006, p.22.

310) 황건,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고문진보 후집』, 을유문화사, 2007, p.193.

311)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 : 백거이(白居易)가 만년에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치사하고 나서는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칭하고, 여덟 원로들과 함께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여 서로 왕래하면서 풍류를 즐겼던 데서 온 말이다. <http://www.minchu.or.kr>, 2011.12.26.



館) 이명기(李命基, ?~?)의 「죽림칠현도」에 보이듯, 문인들은 늘 교류하는 동안 다주시화(茶酒書畫)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회화작품으로 기록하였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시·서·화를 즐기는 습속은 중국 동진시대의 왕희지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59> 이명기(李命基, ?~?), 「죽림칠현도」  
지본담채, 26.4cm × 30.9cm, 선문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60>  
「난정수회첩(蘭亭修會帖)」      유상곡수터      계상정의 곡수거  
1592(宣祖25), 1帖, 木版本.

중국 진대의 놀이문화를 구분지어 본다면 왕사(王·謝)식의 놀이는 성품의 호방함과 청담이 중심이고, 왕희지(王羲之)식 놀이는 서화나 시문이 중심이 되며, 석숭(石崇, 249~300)<sup>312)</sup>식 놀이는 연락(讌樂)과 가무가 중심이 되었다.

312) 자(字)는 계륜(季倫)이고, 어려서의 이름은 제노(齊奴)이다. 중국 서진(西晉) 시대의 문인(文人)이자 관리로 항해와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후대에도 부자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한편으로는 은둔자(隱遁者)식의 놀이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죽림칠현이다. 아무튼 중국의 놀이문화는 뭔가에 구속을 받지 않는 호방불기(豪放不羈)의 기풍이라는 것이다.<sup>313)</sup> 6세기 제·양(齊·梁) 무렵 이후에는 놀이가 문학적 재능 혹은 문학성으로 문학의 고아한 풍격 즉 문아(文雅)·풍아(風雅)를 의미하여 문학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중당(中唐) 이후에는 이런 의미로의 놀이 쓰임이 일반화된 경향을 보인다. 당대(唐代)의 놀이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이백(李白, 701~762)의 「증맹호연(贈孟浩然)」을 보자.

나는 맹부자를 좋아하나니	我愛孟夫子
그의 풍류는 천하에 널리 알려졌다네	風流天下聞
젊어서는 벼슬을 버리고	紅顏棄軒冕
꽃에 홀려 입금을 섬기지 않았네	迷花不事君

이백이 맹호연(孟浩然, 689~740)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세속을 벗어나 자연의 한적한 정취를 사랑한 맹호연의 맑고 고매한 인품을 흠모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아마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로써 그의 풍류적인 성향을 좋아했던 모양이다. 이상을종합해 보면 중국에서의 놀이의 개념은 풍아(風雅)와 문아(文雅)의 의미로 확대되면서후대에 이르러 남녀의 애정을 일컫는 말로 다소 속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sup>314)</sup>

일본은 대륙에서 정원문화가 전해진 초기에는 사각형의 연못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나라(奈良)시대(710~794)에 들어오면 곡선 위주의 연못으로 되어 직선에 의한 조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헤이조쿄(平城京)의 좌경삼조(左京三條)에서는 1975년에 S자형 모양의 연못이 있는 궁적정원(宮跡庭園)이 발굴되었다.<sup>315)</sup> 이곳은 귀족들이 모여 곡수연을 열었다고 추정되는 곳이다.

313) 신은경, 앞의 책, p.24.

314) 신은경, 위의 책, pp.28~31.

315) 이지선, 위의 책,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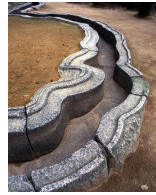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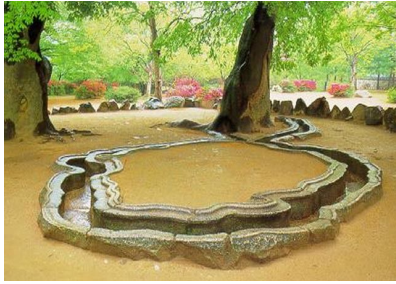
<그림61> 헤이조쿄(平城京), 이방궁 궁적정원.

일본의 놀이는 섬세함, 화려함, 장식성에 비중이 두어져 전개되었다. 주로 외면에 드러나는 형태적인 아름다움이나 의장(意匠)의 세련됨이 강조된 것이다. 헤이안 중기부터 특정의 장소에 어울리도록 특별한 의장을 고안하여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든다든지 의복에 특별한 장식을 할 때 ‘풍정(風情)을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중국의 놀이가 호방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오히려 틀과 격식에 맞추어 섬세하게 꾸미는 쪽의 의미로 발전해 갔다. 이처럼 중세의 놀이형태가 요란한 장식과 화려함이 특징이고 근세의 형태는 시인 바쇼오(芭蕉, 1644~1694)를 중심으로 하는 소박함과, 우키요조 오시(浮世草字)를 중심으로 하는 염정(艷情)의 형태 등으로 크게 대별된다. 이렇게 변화가 있었음에도 일본의 놀이는 장식성, 화려함, 기품 등 외적인 아름다움의 요소가 강조되어 사람의 시선을 끌 만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라 하겠다.<sup>316)</sup>

한국에 있어서는, 신라시대 행해졌던 놀이로 경주의 포석정지(鮑石亭址)에 의해 알 수 있다. 포석정지는 신라의 이궁(離宮)에 있는 유상곡수연을 하던 유배거의 유적이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포석정 정자는 지금 경주부 남쪽 7리 금오산 서쪽기슭에 있는데 돌을 다듬어 포어(鮑魚)모양으로 만들었으므로 포석정이라 이름하니, 유상곡수의 유적이 완전하다”<sup>317)</sup> 또한, 조선의 왕궁인 창덕궁 옥류천의 소요암에도 곡수연을 연 흔적이 있다.

316) 신은경, 위의 책, pp.32~40.

317)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동사강목」 제5하, 정혜년 경애왕 4년 왕(王) 김부(金傅) 원년, 고전번역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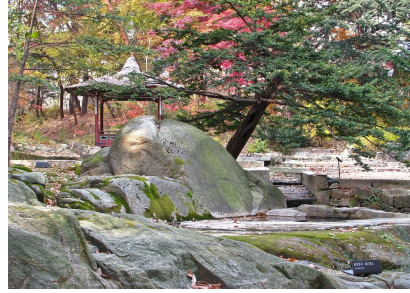
<그림62> 사적 제1호 경주포석정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454-3. 통일신라시대.

우리의 궁중 정원양식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창덕궁 후원은 임금과 세자가 숲을 거닐면서 사색을 하고 국정을 구상했던 휴식공간이다. 창덕궁 후원 장락궁(長樂宮)의 서고 선향재(善香齋) 기둥의 주련에 ‘새로 고저차<sup>318)</sup>를 끓인다(新烹顧渚茶)’라고 음각 되어있다.<sup>319)</sup> 고저차는 중국 절강성의 고저산에서 나는 보라색 찻잎을 말한다. 보라색은 가장 고귀한 색이다. 봄에 돌아나는 어린 싹이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황제나 마실 수 있었던 귀한 차였다. 고저차 향기가 그윽한 곳에서 정신을 맑게 하여 학문에 정진하고, 끈은 마음으로 정사를 돌보겠다는 뜻이다. 창덕궁 후원에는 옥류천이 흐르는 소요암과 소요정이 있다. 1636년 소요암을 다듬어 그 위에 흙을 파서 휘도는 물길을 끌어 들였고 작은 폭포로 떨어져 옥류천이 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옥류천은 임금이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던 계곡이다.<sup>320)</sup> 때때로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이 이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곳에는 여러 정자가 세워져 있어 숲을 거닐면서 산책하다가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던 장소이다.

318) 호주(湖州) 자순차는 절강성 장흥현(長興縣)의 고저산(顧渚山)에서 생산되므로 ‘고저차’라고도 한다. 그 색깔이 자색이고 모양이 죽순같다고 하여 또 ‘자순차’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또는 ‘고저자순’이라고도 한다.

319) 초의선사, 『동다송』 앞의 책, pp. 272~273.

320) 오병훈, 월간 『차의 세계』, 2011년 1월호, p.32.



<그림63> 옥류천이 흐르는 소요암(逍遙巖)과 소요정(逍遙亭).

## 제2절 정원문화를 통해 본 음다 공간의 공통점

한·중·일의 귀족과 사대부들은 후원이나 사랑채를 꾸미며 그 안에서 신선이나 은자처럼 살아가는 운치 등을 드러냈다. 특히 사의(四宜)는 조선 사대부들이 좋아하던 단어이다. 인왕산 아래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집에 있던 사의정(四宜亭)은 사계절 꽃·폭포·단풍과 눈(雪)을 즐기기에 알맞다는 뜻을 취하였고, 낙산 아래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의 사의정은 충(忠)·효(孝)·우(友)·신(信)의 네 가지 덕목을 취한 것이고, 정약용이 강진 유배 때 머물던 사의재(四宜齋)는 맑은 생각(澹思), 장엄한 용모(莊貌), 과묵한 말(訥言), 신중한 움직임(重動)의 뜻을 빌린 것이다.<sup>321)</sup> 또한 홍만희(洪萬熙, 1625~1670)는 꽃·돌·거문고·바둑을 즐겼는데 네 가지를 즐기기에 마땅한 집이라는 뜻으로 사의당(四宜堂)이라 한 듯하다. 그 후 사의당은 홍중성(洪重聖), 홍진보(洪鎭輔), 홍양호(洪良浩), 홍낙원(洪樂源), 홍경모에 이르기까지 6대 150여 년 동안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사의당지 우리 집을 말하다』를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음다 환경을 엿볼 수 있다.

사의당의 조경은 남쪽과 서쪽에 각기 정원이 있었고 다양한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다. 분재·화분도 이곳저곳에 놓아두었다. 중국에서 구입한 태호석과

321) 홍경모, 이종묵 옮김,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하다』, 청아문화사, 2009, pp.21~22.

아름다운 괴석도 여럿 있었다. 홍양호는 서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 중국 고대 탁본들과 우리나라 역대 명필의 글씨를 두루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실내에서만 아닌 실외 음다 공간의 확장과 품격을 높였고, 사대부들이 차를 마시며 심미안을 즐길 수 있는 부수적인 역할도 하였다.

음다 환경에 대한 귀족과 사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원에는 많은 꽃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문인들은 도성과 인근에 저택을 짓고 책과 서화, 골동품을 진열하였다. 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국내외에서 구하여 운치를 더하였다. 귀족과 사대부들의 문자향과 서권기의 아취가 이루어지면서<sup>322)</sup> 음다 공간의 운치도 배가되었다.

경화사족들의 집의 후원이나 사랑채, 안채의 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취미의 ‘벽(癖)’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음다 공간도 활성화되어 부수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 따라서 음다 공간의 형성과 함께 사대부들은 한 그루의 예스러운 분재를 바라보며, 혹은 늦은 밤 한 송이 꽃으로 그림자 감상놀이를 하다가 거문고를 연주하기도 하면서, 술과 차에 취하고 흥에 겨워 직관적으로 붓을 들어 그림으로 자신의 고취된 정신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한·중·일 삼국의 전통예술 속에는 정신적 가치관으로 인한 심성이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많다. 시각적인 것을 미의 기준으로 생각지 않고, 인간의 삶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가치관을 미로 인식한 것이다. 도성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가꾸며, 그 안에서 한가로운 삶을 즐기는 형태로 음다 공간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식물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식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식물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덕(德)·지(志)·기(氣)를 취한 것이다. 특히 유학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특히 두드러졌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사대부들의 생활과 그 정신세계는 유학의 세계관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연 속의 식물까지도 그들의 지조와 성정을 주입시켰다. 인간 본래의 정서와 식물의 타고난 미감 사이에서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랑받는 식물이 될 수 있었다.<sup>323)</sup>

---

322) 홍경모, 위의 책, p.44.

조선 중기의 정희맹(丁希孟, 1536~1596)은 식물 가운데서도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을 특히 사랑했다. 『사은도서(四隱圖序)』에 보면, ‘용암에는 매화나무와 대나무, 소나무와 국화가 있다. … …나는 호(號)를 스스로 죽은(竹隱)·송은(松隱)·매은(梅隱)·국은(菊隱)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 호를 고쳐 부른다. … …모든 것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 서리와 눈이 하늘에서 내릴지라도 또 무더운 한여름에 불같이 뜨거운 기운이 공중을 녹일 듯 하여도 송죽은 다른 나무와는 달리 곳곳하게 홀로 빼어났으니 이는 군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돌이 갈라지고 얼음이 언 언덕에 모든 꽃이 시들어지고 서리가 천지에 가득 내려 모든 생물이 초췌하게 되어도, 매화와 국화는 추위를 무릅쓰고 홀로 아름답게 지키고, 가난하고 천한 곳에서도 바꾸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에도 결코 굴하지 않으니 … …변치 않는 자와 같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sup>324)</sup>

이처럼 한·중·일 삼국의 귀족과 사대부들의 생활과 그 정신세계는 유학의 세계관과 밀착되었던 까닭에 곧은 정신으로 상징되는 식물들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처럼 음다 공간에서 놀이의 한 방법으로 품격을 지닌 식물을 택해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멋을 찾으려 하였다.

## 제2절 한·중·일 음다 공간의 상이점

먼저 중국 정원문화에서 찾아보면, 중국의 정원은 ‘호중천지(壺中天地)’, ‘소우주(小宇宙)’ 등으로 표현된다.<sup>325)</sup> 세계의 정원문화사에 있어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다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바다 저편에 신선이 살고 있는 섬이 있어 그곳에 불로불사의 영약이 있다고 믿었다. 이는 도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로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생긴 불로장수에 관한 사상으로 그 영향이 곳곳에 보

323)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넥서스 BOOKS, 1999, pp.118~120.

324) 정희맹(丁希孟), 『선양정집(善養亭集)』 「善養亭文集」 卷之三, 序, 사은도서(四隱圖序), 한국문집총간.

325) 이행렬·심우영, 『명청대 정원문화 누가 만들었을까』, 이담 Books, 2009, p.5.



인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기원 전 156~87)는 별궁인 감천궁을 짓고 연못에 신선도를 조성하여 불로장수를 기원했다. 만년을 산다는 거북이와 천년을 산다는 학 모양을 배치하여 학섬과 거북섬의 조경이 생겨났다.<sup>326)</sup> 당대(唐代, 618~907)에 이르러서는 장안(長安)의 태원은 인공으로 못과 축산으로 이루어졌다. ‘호중삼도인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구성방식이었다.<sup>327)</sup> 이는 길상의 의미와 불로장생을 표현한 것으로 도교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예이다. 한편으로는 미덕과 지혜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추구를 의미하기도 했다.

중국 정원문화에 있어서는 인공으로 못을 파고 축산을 쌓아 삼신산을 만들어 유토피아의 상징물로 삼았다. 화목을 심어 놓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정자나 누각 등에 앉아서 피곤한 심신을 쉬는 과정에서 차를 마시며 즐거움에 젖는 음다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정원에서 작은 정원규모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성찰하는 장소로, 때로는 소통하는 장소로 유익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원문화에서 찾아보면, 일본 정원의 기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확실치 않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가장 오래 된 문헌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1세기에 재위한 게이코(景行, 제12대, 기원전 13~130)천황은 ‘구쿠리노미야(詠の宮)’의 정원에 제원(弟媛)을 오게 하려고 잉어를 연못에 풀어 조석으로 보고 놀았다.<sup>328)</sup> 매우 마음에 들어 그 궁에 잉어가 가득 차게 했다고 한다.

『일본서기』 스이코(推古) 20년(612년) 기록에 보면 백제의 조원 시술자인 노자공(路子工, ?~?)<sup>329)</sup>이 일본으로 건너 가 자기는 보통사람이 할 수 없는 축산(築山)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어전의 남쪽 뜰에 수미산을 상징한 가산(假山)과 오교(吳橋)를 축조하여 일본 조원의 창시자가 되었다.<sup>330)</sup>

---

326) 이지선, 위의 책, p.90.

327) 이행렬·심우영, 앞의 책, p.50.

328) 전용신, 『完譯 日本書紀』, 일지사, 2010, p.122.

329) 612년에 百濟에서 건너왔다. 일본은 백제의 귀화인 노자공(路子工)으로부터 수미산공법(須彌山工法)을 전수받은 후 이것을 석가산공법으로 발달시켜 오늘날 일본 정원의 골격을 이루는 요소가 되었다.



그 후의 고분시대(3세기 중반~7세기 말)에는 예부터 불교세계의 중심이 되어 온 수미산을 표현한 돌산 주위에 정원을 꾸몄다. 이 상징적인 산은 600~700년경에 만들어진 모양이다. 612년에 재위했던 스이코(推古, 33대, 554~628)도 궁의 뜰 가운데 작은 연못을 파고 작은 섬을 못 가운데 만들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신(島大臣)이라고 하였다.<sup>331)</sup> 또, 655~661년까지 재위한 女帝 사이메이(齊明, 제37대, 722~785)도 향산 서쪽에서 배 200척에 석상산(石上山)의 돌을 싣고, 강의 흐름에 따라 내려와서 궁의 동산에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다.<sup>332)</sup>

이렇게 연못가에 수미산을 만들었다. 또한 수미산을 형상화한 이시구미(石組)를 통해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불교적인 이시구미와 도교적인 이시구미를 발생시켰다. 일본정원에서 중국에서 전래된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곳곳에 보인다.

한국의 국토는 산이 많은 다산지로 전 국토의 75%가 노년기 형태의 산지이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 동산이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 배치를 따른다. 따라서 집이 지어지면 자연스럽게 뜰과 동산을 이루게 되고 이들 뜰과 동산이 바로 정원(庭園)인 것이다.<sup>333)</sup>

한국 정원문화에서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 제3. 진사왕(辰斯王) 7년(391) 정월의 기록에, “궁실을 중수하고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어 진귀한 새와 이상한 화초를 길렀다<sup>334)</sup>.”는 내용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武王) 35년(634) 기록을 보면, “3월에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에서 물을 끌어 들였으며 못의 네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을 모방하였다”<sup>335)</sup>라고 하여 도가의 신선사상에 따라 섬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중엽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내시 윤언문(尹彦文, ?~?)은 괴석을 모아

330) 정재훈, 『한국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 2010, pp.14~15.

331) 전용신, 위의 책, p.402.

332) 전용신, 위의 책, p.470.

333)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개정판(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p.451.

334) 『三國史記』 卷 第 25 百濟本紀 第三 辰斯王 七年條 “春正月 重修宮室 池造山 鑿以養奇禽異卉). 김부식,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2』,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1, p.512.

335) 『三國史記』 卷 第 27 百濟本紀 第五 武王 三十五年條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擬方丈仙山. 김부식, 위의 책, pp.549~550.

수창궁 북원(北園)에 가산을 쌓고 그 곁에 만수정(萬壽亭)이라 이름 지은 작은 정자를 세웠다. 조선 초기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은 인왕산 비혜당(匪懈堂)에 가산을 만들었다. 15세기 성임(成任, 1421~1484)은 인왕산 기슭에 인공산을 꾸몄다. 그의 벗 채수(蔡壽, 1449~1515)는 조영술이 뛰어난 석가산을 만들어 조선 초기를 대표하고 있다. 조선 중기 석가산은 향리로 물러난 사족들의 정원으로 확산되어 갔다.<sup>336)</sup> 이와 같이 한국정원의 기본 발상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둔 채, 자연을 기본으로 삼아 펼쳐진 화폭에 정자, 건물을 조성하여 가꾸어진 정원을 통해서 차경의 원리를 한껏 이용한 것이었다.

정원의 구성 원리에 관한 글로는 고려시대 말 이규보의 『동문선(東文選)』에 등재된 여러 정원을 기리는 글들이 있다. 이규보는 정원을 짓는 사람의 마음, 즉 정원은 주인마음이 우선한다는 점을 「박추부유가당기(朴樞府有嘉堂記)」, 「태재기(泰齋記)」, 「사가재기(四可齋記)」, 「통재기(通才記)」, 「손비서냉천정기(孫秘書冷泉亭記)」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규보가 말하는 정원구성원리의 기본은 정원을 이루려는 사람(主人)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지 정원을 직접 만드는 동산바치(匠人)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337)</sup> 라고 하였다. 중국의 계성이 저술한 『원야』 「흥조론(興造論)」에서 “3할은 장인이요, 7할은 주인이다(三分匠七分主人)”<sup>338)</sup> 라고 한 말과 같은 뜻이다.

한 예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두 편의 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일깨워준 명시라 할 수 있다.<sup>339)</sup>

평생을 경영하여 한 칸 초가를 지어내니  
반 칸은 청풍(淸風)이요 반 칸은 명월(明月)이라  
나머지 산천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일이 있으랴.

336) 박경자, 『조선시대 석가산 연구』, 학연문화사, 2008, p.13~15.

337) 주남철, 『한국의 庭苑』,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p.65.

338) 계성, 위의 책, p.40.

339) 정양모, 『너그러움과 해학』, 도서출판 학교재, 1998, p.285.

청풍과 달빛은 본성대로 스스로 움직여 초가의 내부공간을 채웠으나, 청산은 움직임이 없는 자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제자리에 둘러 있는 것이다. 자연의 모습에 녹아 든 사람의 눈을 통하여 마음에 가져오고 자연의 像을 짓는 것이다. 본래의 자연모습을 가져와 즐기는 것이 차경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의 지혜와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황(李滉)도 차경의 원리에 따라 ‘차경정(借景亭)’을 짓고 산곡(山谷)의 경치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sup>340)</sup>

시인이 둘러두고 본, 청산(靑山)들 중 멀리 있는 청산의 모습을 바라보고 즐기는 것이 원차(遠借)이고 앞산봉우리를 차용하는 것이 양차(仰借)이다. 들판을 내려다보고 즐기는 것이 부차(俯借)이고 바로 옆 경물(景物)을 차용하는 것이 인차(隣借)이다. 그리고 시절마다 변하는 모습을 그때그때 맞추어 보며 즐기는 것의 응시이차(應時而借)이다.<sup>341)</sup>

정원을 꾸미는 마음으로 일정한 공간에 자연의 모든 것을 갖추려 하지 않고 자연 본래의 모습을 빌려오는 차경의 원리를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꽃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와 벌의 모습, 앞내 흐르는 소리, 처마의 낙수소리, 창호지로 스며드는 달빛 등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듣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정원을 꾸미기를 으뜸으로 한 것이 한국 정원의 구성 원리이다.

원래 정원(庭苑)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인공적인 공간에서 자연적인 공간을 재생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인위적인 꾸밈이 었다. 동양 삼국의 정원을 자연스럽게 가꾸고 꾸미고자하는 것은 서로 통하나 중국의 정원은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인간적인 척도를 넘어 광대하고, 자연스러움이 감해지는 반면 일본의 정원은 인위적이고 형식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정원은 인간적 척도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을 이루어 사람과 자연이 융합되어 자연과 순리가 자유롭게 존재하는 정원이다. 그러한 정원이 이루어지는 때부터 건축은 완전한 것이 되며 건축과 사람은 비로소 자

340) 이황(李滉), 『퇴계집(退溪集)』 「退溪先生文集攷證」 卷之二, 第三卷詩, 한국문집총간.

‘山谷借景(山谷借景亭詩序) 靑神縣尉廳 葺城頭舊屋 作借景亭 下瞰史家水竹.’

341) 계성, 위의 책, p.307.

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sup>342)</sup>

중국에서 정원을 호중천지(壺中天地)라 했듯이 고요한 연못의 수면과 그 위에 떠 있는 아치형 교각의 그림자,洞天(동천, 반구형의 동굴)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수, 추녀 끝에 달아 놓은 은(銀)으로 제작한 음(音)인지 향(響)인지 구분이 안 되는 풍경소리, 호중삼도인 봉래·방장·영주의 구성방식, 구도상의 차경(借景)을 의경상(意境上)의 차경으로 확대한 방법, 순수한 자연공간의 배치와 인공적인 조원공간의 조화는 유현미를 더한다.

이처럼 환경과 기후에 따라 삼국의 정원문화와 함께 음다 공간은 자국(自國)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이루어 나갔다. 지리적인 조건상 문화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 가 곳곳에 삼국의 정원문화 요소들이 심심찮게 혼용되었지만 음다 공간에 있어서는 서서히 차별성을 보이게 된다. 이 점은 차를 즐기는 부류가 지식층들로 지각있는 행동과 올곧은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추측된다.

중국의 음다 공간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차를 마시는 일이 다반사로 ‘천인합일’이라는 대자연과의 조화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넓은 음다 공간을 선호했다. 한국의 음다 공간은 유교적인 가치관이 배경이 되어 정신을 주도하는 음료로 정갈하고 차분한 공간을 지향했는데, 일본의 음다 공간은 응축된 공간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공간을 추구했다. 이와 같이 삼국은 음다 공간에 있어서도 각자의 특징을 연출하면서 음다 공간의 확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모두가 종교적인 정신에서 행해진 표현으로 권력과 재력이 탄탄한 왕족, 귀족,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넓은 정원에서 자연스럽게 음다문화가 이루어졌음을 글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과 함께 하기를 추구했던 음다 공간은 자연 산수에서 인공 정원으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고 음다 공간은 삼국의 예술문화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

고대나 근세나 삼국은 서로 표현양식은 다르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과 깊이 사귀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교감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이것

---

342) 주남철, 『한국의 정원』 위의 책, pp.63~71.

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sup>343)</sup>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삼국의 놀이문화는 ‘예술적으로 노는 것’이었다. 중국은 호쾌하게 어디에도 구속됨 없이 호방불기라 하였고, 일본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가염(佳艶)을 추구하였으며, 한국은 운치 있고 멋있게 즐겼다. 놀이에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고 거기에 심미적 요소가 더해질 때 비로소 놀이문화가 성립될 수 있었다. 삼국의 미(美)개념은 선(善)을 포함한 혹은 선을 일치시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sup>344)</sup> 삼국의 놀이문화는 애초에 재력과 신분·지위를 갖춘 정신적 여유를 바탕으로 하는 귀족취미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일상적 삶에 구애받지 않는 상류층이 미를 추구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이상으로 한·중·일의 음다 공간의 특징들과 그림을 통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두루 고찰 한 바 한국은 유교정신을 기반으로 한 예의를 바탕으로 행동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을 중시했고, 중국은 대륙적인 기질에 드러난 허실결합의 척도를 즐겼고, 일본은 사면이 바다라는 조건에서 응축된 공간으로 세련미를 지향해 나갔다.

따라서 놀이문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여 곡수연을 통한 삼국의 즐거운 정취는 서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나름대로 환경, 풍토, 의식에 맞게 발전시켜 오늘날에는 특색 있는 음다 공간 창출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은 외적인 음다 공간의 형태는 닮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은 차이가 있었다. 각각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음다 공간 형성이 지식층들의 문예활동의 공간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부여하며 삼국의 음다 공간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그 여파가 시대의 유행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진정한 문화를 향유하는 시원인 음다 공간은 고상한 품격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343) 정양모, 앞의 책, p.47.

344) 신은경, 앞의 책, p.67.

## 제5장 현대 음다 공간의 활성화 방안

### 제1절 현대 음다 공간의 필요성

근대화 이후 경제 성장이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정서적 피폐를 낳았다. 인간은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계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과학문명이 가져다준 문화적 편리와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정신적 나태와 타락을 야기하였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최첨단의 문명은 인간의 개인화를 촉진시켰고, 소통을 단절을 야기하였으며, 가치관의 혼돈과 불신을 초래하여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 혼돈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중심의 문예부흥운동은 정신적 가치관의 부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관을 정립하고 전통적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와 음다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대에 음다 공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 속에서 선조들은 차를 통해 마음을 다스렸으며, 차를 통해 예를 익혀나갔고, 차를 통해 교류하며, 차를 통해 정신문화를 일구어 예술로 승화시켜나갔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음다 공간은 文·史·哲·藝를 두루 갖춘 상류계층을 위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음다 공간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과 생산, 교류와 소통, 그리고 체험과 교육의 산실로 간주되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정신적 훈련이 이루어 낸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 음다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예부흥운동은 인문학과 예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신 개혁과 변혁운동이었다.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은 한·중·일 각국에 내재된 정신이나 사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형태에서 상이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음다 공간은 다사를 통해 덕목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실천하는 예(禮)

로 승화되어 운치와 멋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음다 공간은 자연을 의경(意境)의 향수(享受)와 연계하는 공간이었으며, 아름다움을 예(藝)로 승격시켜 호방한 풍모를 공연을 통해 표현하는 공간이었다.

일본의 음다 공간은 응축된 팽팽한 긴장의 공간으로서 간소함의 극치를 도(道)로 심화시켜 섬세함과 세련미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이처럼 삼국은 자연을 신뢰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자연산수를 활용하였고, 인공으로 정원을 조성하였다. 정원의 확산은 음다 공간의 등장을 촉진하였고, 문화의 창출과 생산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삼국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실외 음다 공간은 물이 흐르는 강가나 인공연못 주변에 조성되었다. 이는 삼국 음다 공간의 시각적 형태는 달라도 심층에 깔려있는 정신적인 사상은 자연활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차문화는 여유와 문화적 공간 등을 제공해주고 정신적·정서적 만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음다 공간은 문화와 예술의 발달과 성장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훈련의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음다 공간의 개념도 단순히 머물고, 생활하며, 작품을 생산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체험하는 장소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음다 공간의 개념은 특별하게 지정된 국한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과 밖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소통하는 삶의 재충전 공간의 개념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sup>345)</sup> 현대에 음다 공간의 재구성과 재정립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음다 공간의 현대적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 음다 공간의 특징을 계승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사회에서의 음다 공간은 시와 그림과 화훼 등의 기본 지식을 갖춘 지식층 위주의 소수가 즐기는 협의적 음다 공간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음다 공간은 쉽게 다가가지 못할 제한된 계층을 위한

---

345) 곽수정, 「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7, p.30.

소수의 음다 공간이었으며, 특정계층의 장식과 공간 활용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이었다. 음다 공간이 개방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이며, 차의 우월성과 품격만을 고집한다면 그 생명력은 짧을 수밖에 없다. 차가 지닌 정신적 특성과 기능적인 성분들을 대중들과 소통하여 보건·정신·문화음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차의 대중화와 차문화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에 이르러 음다 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논의되는 이유는 물질문명에서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가정 붕괴와 사회적 병폐들이 속출되면서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차문화를 활용하고 대중화시키자는 명제에서 출발하였다. 차문화를 통한 정신부흥운동과 문예부흥운동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공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신부흥운동의 공간을 음다 공간으로 정하고, 이를 활용한 인성 교육과 정신수양 교육 그리고 그 훈련 교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현대 음다 공간의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기정은 「한국 차문화의 산업의 활로 모색 -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전통 차 문화의 창달을 통해 차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값싸고 질 좋은 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교육을 통해 차(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차의 소비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등의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sup>346)</sup> 이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 차 문화를 정기적으로 교육한다.’는 주장은 현대 차문화 대중화 및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제시였다. 그에 의하면 인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음다 공간이 필요하며, 이의 확산에 정부의 투자를 촉구하였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음다 공간이기 때문이다. 근대화 이후 기계화 된 삶 속에서 휴식과 여유와

---

346) 조기정, 「한국 차문화의 산업의 활로 모색-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차문화 제3집, (주) 미스터페이퍼, 광주, 2012, 5, p.11.



느림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충전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 아이나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을 위한 장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조들의 정신적 가치가 실현되고 꽃을 피운 전통적 음다 공간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현대 음다 공간의 이미지가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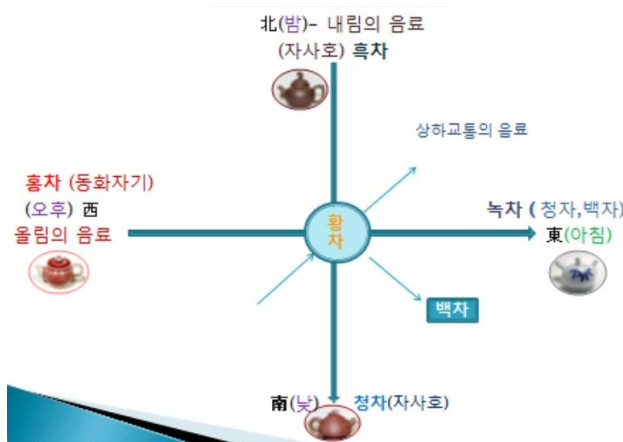
## 제2절 전통적 음다 공간의 재조명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미를 최고로 여겨왔으며, 우주의 순리를 역행하지 않는 삶을 다복하다고 간주하여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대에 따라 늘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자연에서 터득하려 하였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계절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을 설계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자연과 더불어 한 잔의 차를 대하면서도 선조들은 인간 삶의 지표인 정신적인 가치관을 미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특히 음다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내적 가치관을 시와 그림을 통해 승화시켰다. 한편 이들은 미적 표현을 통해 시각적인 기준보다는 상징적인 기준에 더 큰 정신적 가치관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음다 공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계절과 상황에 맞는 미적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음다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현대의 음다 공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역사 속에서 음다 공간은 주로 사대부들의 공간이었다. 사대부들은 높은 심미안을 지녔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면서 자연, 특히 매·난·연·국·죽·송 등을 음다 공간의 환경에 적용시켰다. 이는 강희안(姜希顔)의 「화목구품(花木九品)」을 통해 알 수 있다. 강희안은 송(松)·죽(竹)·연(蓮)·국(菊)·매(梅) 등을 품격의 1품으로 선정했고, 『화암수록(花菴隨錄)』을 쓴 화암(花菴)은 「구등품제(九等品第)」에서 매·국·연·대·송을 1등급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들은 음다 공간에서 자연의 정취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계절에 맞는

차나 다구를 통해 즐거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절과 사대부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 사군자나 식물들도 가까이 하였다. 이는 음다 공간에서 꽃과 식물 등의 자연물에 대한 표현은 사대부들의 여흥과 정신적 즐거움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즉, 음다 공간에서 차를 통해 시흥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고, 예술과 자신들의 사상을 정립하며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다양한 차를 체험하였고, 계절과 차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계절에 맞는 식물들을 가까이 두었으며, 시화첩을 통해 표현하기도 하였다. 계절에 맞는 찻자리를 위해 차(茶)의 「사방도(四方圖)」를 살펴보고 다양한 차와 자연물들과 음다 공간의 기능적 측면과 상관성을 구성하여 현대 음다 공간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1> 茶의 「四方圖」<sup>347)</sup>

茶의 「四方圖」를 통해 살펴보면 봄에 생산되는 가장 맑은 기운을 지닌 녹차로 하루 주기 중에는 아침 시기이다. 여름에는 햇볕을 많이 받고 자란 청차류로 하루 주기 중에는 점심 전후가 되며, 가을은 고독한 계절로 저조한 기운을 상승시켜 줄 붉은 홍차류가 적격이며 하루 주기 중에는 오후 세시에

347) 염숙, 『다도학 개론』 위의 책, p.73.

서 네 시 경이 될 것이다. 겨울에는 몸을 덥혀주고 긴 겨울밤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 흑차류로 하루 일과 중 저녁과 밤 시간이 좋다. 이를 기반으로 사계절에 알맞은 차자리를 연출할 수 있다.

차의 색상에 따른 6대 다류는 백차·녹차·청차·황차·홍차·흑차로 분류되며, 발효정도에 따라 불발효차·반발효차·발효차·후발효차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차의 색상과 발효정도에 따른 차의 종류와 매·난·연·국·죽·송을 활용한 음다 공간의 기능적 측면인 심신 수양, 소통과 문화, 예술창작, 휴식과 치유, 인성교육 및 교육의 기능적 공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심신 수양적 기능 공간

음다 공간은 전통적인 음다 공간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인 심신(心身)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공간의 주체자는 사대부 즉, 선비였다. 선비는 유교의 인격 개념으로 수련을 통해 다듬어진 사람이다.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로 새로운 유교이론을 창시하였던 주렴계(周濂溪, 101~1073)는 “성인은 하늘을 바라고, 현자는 성인을 바라며, 선비는 현자를 바란다.”<sup>348)</sup>라고 했다. 이는 선비의 계층적 단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선비는 현자의 아래 단계로서 군자의 단계로 상승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선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수련 과정을 통해 다듬어지는 것이다. 수련과정은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평생을 지속해 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음다 공간에서 선비의 자격인 학문적 식견과 도덕적 행실과 예술적 재능을 연마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군자(士君子)로서 학식과 인격을 갖추었을 때 선비로 존경받고 선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선비는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정당한 도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맑고 투명한 물의 기질을 닮고자 다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사의 과정은 수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손수 물을 떠오고 다로 옆에서 손수 부채로

---

348) 『통서(通書)』, 「志學」,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바람을 일으켜 불기운을 조절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하였다. 끓는 물소리를 통해 마음을 비웠고 녹빛의 차 한 잔으로 호연지기를 길렀다.

조선 초 한재 이목의 『다부』를 통해 차의 공을 살펴보면, 혼자만의 고요를 즐기면서 먼 명상의 여정을 떠나고자 할 때 음다 공간이 유용하였다. 이곳에서 차는 다정한 도반으로서 사색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기 성찰의 자양제였다. 이처럼 차는 신체적 갈증뿐만 아니라 정신적 갈증도 해소해주는 심신 수양제였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 피폐해갔던 지조 있는 사람들의 울분은 차의 성분뿐만 아니라 차생활을 통한 수양과 수련의 과정을 통해 음다 공간에서 다스려질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의 욕망(물욕·식욕·색욕)에서 오는 집착은 사람의 성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한재는 차를 통한 음다 공간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신체적으로 건강음료였던 차는 숙취를 다스림으로써 흠어진 감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음료로 활용되었다.

옛 선인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술을 마신 다음 차를 마시고 시심(詩心)이 일거나 정신이 맑아지면 붓을 들기도 했다. 이는 음다 공간이 주는 한유(閒遊)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고매한 모습이다.<sup>349)</sup>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차의 공(功)을 음다 공간에서 행하고 있었다. 이는 차에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성분인 테아닌(Theanine), 카페인류와 카테킨(Catechin)의 복합체, 비타민 B군, 정유성분인 향과 시각적으로 녹빛을 띠고 있는 엽록소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차의 성품은 냉성(冷性)이 있어 감정이 격할 때 차를 마시면 이러한 성분들이 총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과 울분을 풀어주는 이완제 역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도 한다.<sup>350)</sup>

유가의 사상을 수용한 조선조 선비들은 심신수양(心身修養)의 일환으로 음다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으로써 몸과 마음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과 자연과 우주만물이 하나의 유기체로 형성되어 조화와 질서의 원리가 관통하고

---

349) 중국의 경우 白樂天(772-846) 또한 숙취해소로 차를 마셨으며, 술 냄새 또한 차향기로 바꾸는 등의 경우를 볼 수 있다. 余悅, 『中國茶文化經典』, 光明日報出版社, 1999, p.40.

『睡後茶興憶楊同州』 참조.

350) 염숙, 『寒齋 李穆의 도학정신과 다도사상』,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p.96.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근기(近畿)의 명산(名山)과 심사(深寺)는 매우 좋은 음다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서는 심신수양에 남모르는 고미(苦味)를 맛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외적·실내적 음다 공간은 몸의 양생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소통과 문화적 기능 공간

소통과 문화의 기본은 예(禮)이다. 공자는 “禮를 알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sup>351)</sup>고 하였다. 또한 옛 사람들은 빈주 사이의 겸양을 표하고 정을 합하는데 있어 차를 매개로 삼아 예를 다하였다. 인간관계의 왕래에서 주인 모두가 손님과의 융합을 희망한 것은 동서고금에서 예외가 거의 없었다.

초의(草衣)도 “차를 끓여 시를 즐기는 손님에게 예를 갖추어 대접한다.”<sup>352)</sup>고 하여 예가 일상생활 속에 당연히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다 공간에서 다례(茶禮)의 행위는 원활한 소통을 이루게 하였다. 차는 예를 갖추게 하고 정을 돈독히 하는 형식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 도구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는 “예의 쓰임은 조화가 귀중하다.”<sup>353)</sup>고 하였다. 이는 공자의 제자인 유약이 말한 구절로 소통과 어울림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에 해당하는 예의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소통, 즉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외 음다 공간에서는 자연과 소통하였고, 실내 음다 공간에서는 실내음다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과 소통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공간이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음다 공간의 구성원이 지닌 사유, 정보교환, 행동, 생활 등을 습득하여 계승 발전해 오면서 음다 공간의 문화를 창출해 냈다. 음다 공간의 문화란 음다 공간에서 습득된 행동과 행동의 여러 결과의 종합체로 차문화이

351) 남호근, 송찬문 옮김, 『논어 강의 하』,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2, p.1271. 「요왈(堯曰)」,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352) 『草衣禪集 上』, 「奉和西山」 “淪茗且禮耽詩客 劑藥相憐問字僧”

353) 남호근, 『논어 강의 上』 앞의 책, p.62. 「學而」 “禮之用 和爲貴”

다.

예로부터 음다 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써 찻자리의 빈주 사이에서 겸양을 표하고 우정을 나누는 곳으로 차문화를 대변해 왔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음다 공간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겸허하고 온화한 풍모와 예절바른 언행을 지키며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려 노력하였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소통에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아름다운 풍속은 곧 문화적 삶이었다.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기풍은 음다 공간이란 탈세속적 공간에서 차를 대하며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예술 · 창작적 기능 공간

음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와 음악과 그림 등을 통해 자연의 질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선비 정신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왔다.

차를 좋아했던 우리 조상들은 한적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 서실을 짓고 학문과 도리를 강론하기도 하였다. 또 원림(園林)을 조성하거나 경치 좋은 곳에 정자나 누 등을 지어 자연을 삶의 공간으로 적극 끌어들이는가 하면 그림 등을 통해 이상적인 자연을 구현하고 완상하며 즐겼다. 원림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산수화 속의 자연을 실현한 것이다. 탈속적인 정신경계를 체현할 수 있는 은일적 공간이 음다 공간이었다. 산과 물이 어울리는 공간은 탈세속적인 공간으로 수양하는 공간요, 자연이 주는 흥겨움과 가슴 속 깊이 진리를 체득하는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연을 관조하고, 깨닫고, 즐기면서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하였다.

그들이 그린 산수화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작은 집이 있고 그 안에서 독서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연을 완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연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며 자연의 순환과 이치를 깨달았다. 그곳은 그들의 협의적 음다 공간이요, 광의적 음다 공간이고, 심미적 음다 공간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벽에 걸린 산수화를 통해 예술적·문화적 소통과 창작이 이루어졌다. 그들의 예술세계는 자연이었다. 자연에서 노닐기를 원

했으며 내면적으로 자연을 닮아가고자 했다.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과 자신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그것이 음다 공간으로 사용했던 정자나 누 등이 되었고, 심산유곡(深山幽谷)이 되기도 하였다. 또는 집 앞 뜰에 너럭바위 등을 들여 놓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서재나 사랑방, 뿔마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한 잔의 차는 시를 읊조리게 하였고, 흥을 통해 가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화폭을 채워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음다 공간은 예술세계가 열리는 공간이요, 창작의 산실이였다.

또한 그들은 사군자(四君子)를 가까이 하며 자신들의 인격 완성에 힘을 기울였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설중군자(雪中君子)는 옛 문인과 학자, 예술가들은 시와 그림을 통해 매화의 덕을 칭송했다. 매화는 유교문화권에서 매난국죽 사군자 중에서도 고고한 학자로 의인화돼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고려 말의 학자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시문집 『양촌집(陽村集)』에 나오는 분매(盆梅)는 매의 시원(始原)으로 간주되고 있다. 「은대(銀臺)의 여러 학사(學士)의 영매시(詠梅詩)의 운을 차한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선비 설달 매화를 아주 좋아해	高人偏愛臘天梅
화분에 길러서 일찍 피게 만들었네	培養盆中最早開
한 자리 맑은 향기 봄소식 부드럽고	一榻清香春婉婉
몇 가지 성긴 그림자 달과 함께 서성이네	數枝疎影月徘徊 <sup>354)</sup>

이처럼 선비들은 매화의 고고한 성정을 닮고자하는 마음이 강해 작은 매화 송이에서 풍기는 향기조차도, 창문에 비치는 매화가지 그림자까지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심미안에서 사대부의 매화 흑애(惑愛)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

354) 권근(權近), 『양촌집(陽村集)』 「양촌선생문집」 제9권, 시(詩), 「은대(銀臺)의 여러 학사(學士)의 영매시(詠梅詩)의 운을 차한다」, 고전번역총서.

난초의 담백한 색과 은은한 향기는 군자의 고결함을 나타낸다고 여겨졌다. 청나라의 왕지원(汪之元)은 “난의 성격은 천연 고아(天然高雅)하여 마치 대가(大家)의 주부나 명문의 열녀 같아서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sup>355)</sup> 하였다. 충성심과 절개의 상징이었고,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절개를 잃지 않고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그 마디가 견고함에 감탄하여 군자라는 칭하였다.<sup>356)</sup> 국화는 서리 내리는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 군자의 은일자적(隱逸自適)함에 비유되었다.

고려 말의 이색(李穡, 1328~1396)은 「이자안(李子安)을 방문하고 밤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시 세 수를 지어 읊다」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서리보다 하얀 달빛 뜨락에 가득하였지	滿庭明月白於霜
돌아가 국화차를 다시 마셔 보았으면	欲歸更啜黃金茗
아침에도 향기가 입 안에 묻어나는걸	齒頰朝來尙帶香 <sup>357)</sup>

위 시는 늦가을 뜨락에 내린 휘영청 밝은 달빛이 고와도 보여 자신도 모르게 찻잔에 어리는 국화향기를 그리며 그 여운이 다음날 아침까지도 입안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내심 흐뭇해하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 4. 휴식과 치유적 기능 공간

옛 선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독서와 여유로운 삶을 『대학(大學)』 「經 1-2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큰 배움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선(善)을 이르게 하여 그치는 데 있다. ‘정한 것이 있은 후에 그침을 알고, 능히 편안할 수 있은 후에 정하고, 정한 것을 능히 할 수 있은 후에 정하고, 생각한 것을 능히 할 수 있은 후에 편안하고, 얻은 것을

355)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3』, 넥서스BOOKS, 2004, p.329.

356) 출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용백·김원경·김선희 교수 감수, 한국사전연구소

357)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제30권, 시(詩), 이자안(李子安)을 방문하고 밤에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시 세 수를 지어 읊다, 고전번역총서.



능히 할 수 있는 후에 생각하라.’<sup>358)</sup>는 기록을 통해 배움의 의미를 살펴보면, 배움은 명덕(明德)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선을 이르게 하여 그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큰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능력에 맞는 뜻을 바르게 세우면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하게 된 다음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다음 생각이 알찰 수 있고, 생각이 알찬 다음 자신이 세운 뜻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휴식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즉, 진정한 휴식이란 심신의 치유이며, 진정한 휴식으로 인해 진정한 치유가 되었을 때 자신의 뜻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선비들은 진정한 휴식공간이요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정자나 누(樓) 등을 활용하였다. 좋은 풍광과 어울린 물과 산이 있는 곳에 정자나 누를 짓고 그곳에서 독서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연을 관조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세속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였다. 휴식과 치유의 공간인 누각과 정자는 자연경관 감상의 묘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서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며, 동시에 선비들이 공유한 정신문화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서원의 누정은 공부하는 사람이 차를 마시며 답답함을 풀고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음다 공간으로 여유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 향리나 관아의 누정은 사신을 영접하고 벼슬아치들을 접대하는 장소 혹은 여행객들의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자연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신을 즐거이 하고자 선비들은 차경(借耕)하기 좋은 곳을 골라 별서(別墅)와 원림을 조성하고 그 안에 음다 공간으로 누정을 짓기도 했다. 이러한 공간은 탈세속적인 공간으로 심신을 휴식하고 치유했던 공간이었다.

---

358)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10, pp.21~28.

『大學』「經 1-2절」“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知止而后有定 靜而后能安 定而后能靜 安而后能慮 慮而后能得”

선비들은 누정에 올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벗 삼아 여유를 즐겼다. 휴식과 치유의 공간은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번잡한 마음자리를 다스리고 여유를 찾아 삶을 재충전하고자 할 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공간이다. 이러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은 선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었고 대자연과 교섭하면서 우주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찾는 정적 풍류의 공간이기도 했다.

## 5. 인성교육 및 교육적 기능 공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인문 문화(人文文化)가 있다는 점이다. 인문 문화는 삶의 체험과 역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은 뒤 우리전통 문화 체계를 완성하였다. 문화는 이처럼 인간다움을 만드는 소중한 것은 인류의 질서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봄직 하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나거나 일상생활과 벗어나 별도로 존재하는 일이 아니다. 단지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부모를 사랑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부 사이에서는 마땅히 내외를 구별하고 형제간에는 마땅히 서로 우애하고 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사이에는 마땅히 신의를 지키는 것이므로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요 현묘(玄妙)한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기이한 효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식견이 어둡게 된다. 그 때문에 반드시 독서를 통해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밝힌 뒤에 조예가 올바름을 얻어서 실천함이 중도에 부합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고원(高遠)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학문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고 스스로 포기함을 편안히 여기니 어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sup>359)</sup> 라고 하여 교육을 통해 지식의 양적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밝히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인격의 이상을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둘 수 있다.

의리와 예법보다는 인정과 은혜를 중시하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가정교육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교교육이 인격의 성취에 필수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은 가정, 학교 등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반사처럼 차를 마시며 이루어졌다. 특히 음다 공간은 언제나 살아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되었다.

### 제3절 현대 음다 공간의 활용 방안

이상에서 전통 음다 공간의 기능적인 측면을 심신 수양, 소통과 문화, 예술과 창작, 휴식과 치유, 인성교육 및 교육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재조명하여 현대 음다 공간에서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음다 공간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전통적·현대적·복합적 음다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다 공간을 통해 음다 공간의 유형과 음다 공간의 구성 요소의 조건 구비 및 활용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음다 공간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근 지역인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음다 공간과 전라남도에 위치한 두

---

359) 이이(李珣) 『율곡전서(栗谷全書)』 「栗谷先生全書卷之二十七」 擊蒙要訣, 한국문집총간.

“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只是爲父當慈, 爲子當孝, 爲臣當忠, 爲夫婦當別, 爲兄弟當友, 爲少者當敬長, 爲朋友當有信 皆於日用動靜之間 隨事各得其當而已 非馳心玄妙 希覲奇效者也 但不學之人 心地茅塞 識見茫昧 故必須讀書窮理 하여 以明當行之路然後 造詣得正而踐履得中矣 今人不知學問 在於日用 而妄意高遠難行 故推與別人 自安暴棄 豈不可哀也”

곳의 음다 공간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첫째,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음다 공간의 구성 요소의 조건 구비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전통 음다 공간에서 나타난 기능적 요인들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그 외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현대 음다 공간의 바람직한 형태와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치 및 상호	전남 1	광주	전남 2
음다공간의 유형	전통적 음다공간	현대적 음다공간	복합적 음다공간
공간 좌석 배치	좌식	입식	좌식·입식
주요 음료	녹차, 황차	다양한 차와 허브 음료 및 한방 음료	커피와 홍차, 허브 음료
다식	계절 식재료를 이용한 한국 떡류	상황에 따른 퓨전 음식	비스킷과 쿠키
공간 구성 요소	고가구, 그림, 시, 꽃, 벽난로, 책장, 차도구 장식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	커피 및 차에 관련 자료 미술 관련된 자료
공간 구성의 특징	전통적 농가를 활용한 음다 공간	현대적 상가로 판매 위주 상업적 음다 공간	현대적 음다 공간 갤러리와 공연장
공통점	차에 관련된 상품 구비	차에 관련된 상품 구비	차에 관련된 상품 구비
장점(특색)	도시를 벗어난 전원적 분위기	접근성과 다양한 물품구입 용이	예술품 감상과 공연 행사
단점	접근성 불편	상업적 인간관계	접근성 불편
기능적 요소	휴식 공간	소통 공간	문화 공간
주변 환경과 분위기	자연과 조화 전원적 분위기	도시 중심의 상가	자연과 부조화 현대적 분위기
선호 계층	중년 이상 층	다양한 층	젊은 층

<표2> 전통적·현대적·복합적 음다 공간

<표2>에서 나타난 음다 공간을 통해 살펴본바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다 공간은 거의 대부분 상업적 요소가 짙게 내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남 1의 경우 전통적 음다 공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 마을에 위치하여 전원적 분위기와 함께 전형적인 휴식을 위한 음다 공간이었다. 실내 공간의 장식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한국적 이미지와 함께 탈속세적 분위기를 즐기려는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이 선호하였다. 광주의 경우 전형적인 상업 위주의 음다 공간으로서 차에 관련된 물품들을 판매하는 장소로 부속적 개념의 음다 공간이었다.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격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공간으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전남 2는 문화적인 기능을 갖춘 음다 공간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농촌에 위치한 복합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간이었다. 요즘 유행을 반영하듯 차 종류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았고 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실내 분위기는 현대적 요소로 갖추었으며, 커다란 유리창을 이용하여 실외의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음다 공간은 상업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표본으로 선정한 음다 공간에서 교육적 측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위의 3 장소의 음다 공간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념의 현대 음다 공간을 모색해 본다면, 그 공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통적 음다 공간이 지니고 있는 휴식 공간의 요소 및 장점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현대적, 복합적 음다 공간에서 나타난 실용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 등 장점을 융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음다 공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전통적 음다 공간의 기능적 요소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문화와 함께 공존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물질중심주의와 생활의 기계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음다 공간은 휴식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폰 등의 사용으로 소통이 단절된 오늘날 음다 공간은 차를 통해 마음을 여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소통은 조화로우며 창출한다. 조화는 오늘날 이기적인 욕망 실현을 위해 타인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며 타

인의 인격을 배제하는 현상이 확산되는데서 나타나는 온갖 소외와 갈등 현상을 치유 할 수 있다.

음다 공간은 다양한 예술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는 공간으로 제공되었을 때 창작과 생산의 산실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의 기본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성교육이다. 하지만 이런 인성교육이 현대 교육에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인성교육은 인간이 타고난 성품을 발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다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귀함을 알게 하여 자존감을 갖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이는 자존감을 통해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하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인성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정화하고 감정을 조절해주는 교육이 차를 통해 음다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차 교육 특히 다사를 통해 인성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머릿속의 정보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성과 자존감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성질의 개념은 아니다. 이는 차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차문화의 활성화와 현대 음다 공간의 실용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차문화는 서구 물질문명에 밀려 특정 계층에서만 계승·향유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차문화는 우리 문화의 가치에 대한 자성과 재조명을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보급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차문화의 보급은 음다 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오늘날 상업적인 음다 공간은 음료뿐 아니라 식욕을 충족시키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복잡한 현대인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편안한 분위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 기관이나 기업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티타임(Teetime)을 이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때의 음다 공간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공간 구성과 친환경적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이미지 창출에 신경을 써야한다.<sup>360)</sup>

한편 음다 공간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계층이 많아짐에 따라 시·청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공간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공간의 역할과 자연환경에 역행하지 않는 공간 구성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변화에 의한 적절한 자극을 보여주는 전문성을 가미한 음다 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티타임을 이용한 짧은 시간에 그 목적에 맞는 간단한 소품들의 연출로 독특한 가치를 발휘하는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즉 새로운 감동과 체험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음다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표2> 전통적·현대적·복합적 음다 공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 음다 공간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현대 음다 공간	
목 적	사교, 교육, 문화, 예술, 산업 휴식, 치유 등
음다 공간 형태	복합적 음다 공간
공간 구성 요소	각종 음료, 차관련 물품, 차관련 자료 및 서적
음다 공간 활용도	① 다양한 음료의 종류 ② 정보·교류·사교·소통의 공간 ③ 식욕충족 ④ 갤러리 시(詩)·서(書)·화(畵)·화(花) ⑤ 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 ⑥ 세미나실 (각종 단체나 기관들의 세미나) ⑦ 네트워크 형성 ⑧ 인성교육과 차문화 교육 장소

<표3> 현대 음다 공간

360) 서정호, 「테이블 테커레이션 유형에 따른 화예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 석사학위논문, 2003, p.30.

<표3> 현대 음다 공간의 바람직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다 공간을 통한 차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

둘째, 음다 공간을 통한 소통과 교류 확대

셋째, 음다 공간을 통한 차문화 산업발전

넷째, 음다 공간을 통한 차문화 예술발전

다섯째, 음다 공간을 통한 인성교육함양

이러한 현대 음다 공간 구성요소들로 21세기를 채운다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삶의 충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3>의 음다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대 음다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킨다면 인간은 심신의 에너지를 얻어 정신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음다 공간의 구성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물질, 행위, 정신, 예술이 함축된 음다 공간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현대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만들어 내는 공존의 사회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제6장 결 론

음다 공간이란 차를 마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장소, 혹은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음다 공간은 다사를 행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익히며, 예술의 근간이 되는 종교·철학·도덕·예술 등을 포함하는 물질적·정신적 문화세계를 구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을 수련하는 장소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마음과 행실을 수양하는 곳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는 발판이 음다 공간인 썸이다.

한국의 전통적 음다 공간은 사대부계층이 주축을 이룬 공간으로 그 시대를 지배하던 정신과 사상이 반영된 공간이었다. 한국은 다사의 과정을 통해 정신수양을 중시하고 있었다. 다사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예를 익혀 덕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사대부들의 생활과 그 정신세계인 유학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사대부나 경화사족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 차를 즐기며 자연을 관조(觀照)하며 호연지기를 키웠고, 집안에 정원을 만들어 벗을 청해 다주시화(茶酒詩畵)로 정신적 즐거움을 도모했다. 또는 많은 사대부들이 정치적 원인으로 현실에 뜻을 두지 못하고 산림에 묻혀 은일할 때 음다 공간은 수신과 위안의 공간이요, 안분지족을 실천하는 공간이었다. 사대부들은 손수 다사를 실천하면서 자신들만의 음다 공간에서 조용히 자연의 소리와 접함으로써 휴식을 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음다 공간에서 사대부들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시와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하며 정신적 충만감을 각자의 기량에 맞게 흥과 풍류로 전환하였고, 이를 예술작품으로 구현하였다. 이처럼 전통사회에 나타난 음다 공간은 사대부들의 특별한 공간이었다.

중국의 음다 공간은 인문환경을 아주 중요시했고, 자연산수를 인공정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차경을 의경(意境)으로 확대시켜 음다 공간의 묘미를 즐겼다. 천인합일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여 자연 속으로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였다.

인문환경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고상한 인품과 시(詩)·사(詞)·부(賦)에 대한 능통, 독서·악기·그림·장기·화훼 등 다방면으로 교양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구나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기능성과 완상을 겸한 최고의 다구를 선택하여 음다 공간의 품격과 심미안을 높였다.

일본의 음다 공간은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었다. 이러한 사고에서 발전한 것이 샛케이(借景)였다. 이처럼 자연의 일부를 실제 생활공간에 축소화하여 절제된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본의 독특한 미로 승화시켰다. 이는 내면적 자기 형식의 한 형태로 응축된 풍류 공간을 표현하고자 함이었다.

한·중·일 삼국의 음다 공간 공통점은, 자연을 예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자연산수를 정원으로 꾸며나갔다는 점이다. 정원의 확산은 음다 공간의 등장을 촉진하고 차문화를 창출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삼국의 그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실외 음다 공간은 물이 흐르는 강가나 인공연못 주변에서 음다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시각적인 형태는 달라도 심층에 깔려있는 정신적인 사상은 서로 맞물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음다 공간 특징이 실천하는 다례로 승화되어 운치와 멋으로 표현되었다면, 중국의 음다 공간 특징은 아름다움을 예(藝)로 승격시켜 풍아로 표현하였고, 일본의 음다 공간의 특징은 간소함의 극치를 도로 심화시켜 다도라는 명분을 확립했다. 이처럼 음다 공간의 품격은 각국의 기질에 합당한 퍼포먼스로 음다 공간의 상이점으로 나타났지만, 삼국의 음다 공간은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중·일 삼국의 전통 음다 공간의 장점들을 응용하여 현대에 합당한 음다 공간을 재구성해보면, 전통적 음다 공간이 자연의 성정을 통한 단순하고 소박한 정신을 강조한 음다 공간이었다면, 현대의 음다 공간은 소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문화와 예술의 개념이 혼용된 음다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음다 공간의 3가지 주체인 자연·차·인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새로운 음다 공간 문화의 창출인데, 여기에는 첫째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 둘째 소통과 문화의 공간, 셋째 예술을 완상하는 공간 및 창작의

공간, 넷째 휴식과 치유의 공간, 다섯째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물질지상주의에서 인간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최첨단의 문명은 인간의 소통을 단절시켰으며, 가치관의 혼돈과 불신은 인간성마저 상실시켜버린 시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인간중심의 문예부흥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차문화와 음다 공간 활성화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일궈 낸 문화적 유산이었던 음다 공간을 살펴보고 다시 조명해 봄으로써 현대 음다 공간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통적·현대적·복합적 음다 공간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절충·보완하고 확장시킨 <표3>의 바람직한 현대 음다 공간을 제시하였다.

현대 음다 공간의 바람직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음다 공간을 통한 차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 둘째 음다 공간을 통한 소통과 교류 확대, 셋째 음다 공간을 통한 차문화 산업발전, 넷째 음다 공간을 통한 차문화 예술발전, 다섯째 음다 공간을 통한 인성교육함양 등이다.

전통과 현대가 조응하는 현대 음다 공간을 물질과 정신이 함께하는 음다 공간 문화로 전환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차문화와 음다 공간을 대중화·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부단한 연구와 실제적인 현실 참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가브리엘반 쉴랑(Gabriel Van Zuylen), 『세계의 정원』, (주)시공사, 2010.
- 강현숙, 『일본의 전다도』, 도서출판 조울, 2010.
- 강희안, 『양화소록』, 을유문화사, 2000.
- 계성(計成), 『園治』, 예경, 1993.
-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 지성사, 1996.
- 고세연, 『차의 미학』, 도서출판 초의, 1994.
- 고연희, 『그림, 문학에 취하다』, (주)아트북스, 2011.
- \_\_\_\_\_,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움 필묵의 정신사』, 도서출판 돌베개, 2011.
- 구태훈, 『일본문화사』, 재핀리서치21, 2011.
- 국립광주박물관,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의 200년』, 비에이디자인, 2008.
- 국사편찬위원회,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두산동아, 2007.
-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국제, 2008.
- 김대성, 『차문화 유적 답사기 상』, 사찰문화연구원, 2005.
- \_\_\_\_\_, 『초의선사 동다송』, 동아일보사, 2004.
- \_\_\_\_\_, 『차문화 유적답사기 중』, 사찰문화연구원, 2005.
- 김명배, 『일본의 다도』, 도서출판보림사, 1987.
- \_\_\_\_\_,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1999.
- \_\_\_\_\_, 『다도학』, 학문사, 2002.
- \_\_\_\_\_, 『중국의 다도』, 명문당, 2007.
- 김미란, 『일본문화』, 형설출판사, 1997.
- 김부식, 『삼국사기 1』,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1.
- \_\_\_\_\_, 『삼국사기 2』, (주) 도서출판 한길사, 2011.
-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 김운학, 『한국의 차문화』,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4.

- 김원중, 『唐詩』, (주)민음사, 2008.
- 김의숙, 『한국 민족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 김정현, 『중국인 이야기 1』, 도서출판 멜론, 2010.
- 김창배, 『차목화첩』, 인사동문화, 2006.
- 김철수,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6.
-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1995.
-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 청아출판사, 2007.
- 김희영, 『이야기 중국사 2』, 청아출판사, 2011.
- 나종면, 『조선시대의 예술론』, 한국학술정보(주), 2009.
- 나카무라 고이치(中村公一),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뿌리와  
이파리, 2004.
-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우아함의 탄생』, 민음사, 2009.
- 남희근, 『논어강의 上』,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02.
- 남희근, 『논어강의 下』,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2
- 노자, 『노자 도덕경』, 정우서적, 2010.
- 라오서(老舍), 『찾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러우칭씨, 『園林』, 도서출판 대가, 2009.
- 로미 롤링스(Romy Rawlings), 『정원과 건강』, (주)시그마프레스, 2003.
- 로버트 어윈, 『이슬람 미술』, 도서출판 예경, 2005.
-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上』,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7.
- \_\_\_\_\_, 『한국차문화사 下』,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7.
- \_\_\_\_\_, 『茶賦 註解』,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9.
- 린다 이 글레햄(Linda E. Graham), 『일반식물학 제 2판』, 월드사이언스,  
2008.
- 마리안네 보이헤르트, 『Flower & Tree』, (주)을유문화사, 2002.
- 마야자키 마사카즈, 『하룻밤에 읽는 중국사』, 랜덤하우스코리아(주), 2007.
-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초록뎡개』, 지호출판사, 2004.
- 메리 C. 밀러(Mary C. Miller), 『실내 건축의 색채』, 교문사, 1997.
- 박경자, 『조선시대 석가산 연구』, 학연문화사, 2008.

- \_\_\_\_\_, 『조선시대 정원』, 학연문화사, 2009.
- 박규태, 『일본정신의 풍경』,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9.
- 박석무,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0.
- 박영대, 『우리그림 백가지』, (주)현암사, 2007.
- 박은봉, 『한 권으로 보는 세계사 100장면』,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3.
- 박전열, 『남방록연구』, (사)한국차인연합회, 2012.
- 박종석, 『부러진 대나무』, 도서출판 개미사, 2003.
- 박철상, 『세한도』, (주)문학동네, 2010.
- 박희준, 『차 한 잔』, (주)계문사, 2003.
- 백기수, 『美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변성규, 『竹林七賢』, 문이재, 2002.
- 부국문화재단, 『완당과 완당바람』, 동산방, 2002.
- 비토 마사히데(尾藤正英), 『사상으로 보는 일본문화사』, 예문서원, 2003.
- 서궁(徐兢), 『고려도경』, 황소자리출판사, 2005.
- 석용운, 『한국다예』, 보림사, 1991.
- 스팀·에펠·라스무센(Steen·Eiler·Rasmussen), 『건축예술의체득』, 야정문화사, 2007.
- 식공간연구회, 『음료의 이해』, 교문사, 2006.
- 신은경, 『풍류』, 도서출판 보고서, 2006.
- 심복(沈復), 『부생육기』, 을유문화사, 2004.
- 송재소,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돌베개, 2009.
- \_\_\_\_\_, 『한국의 차문화 천년 3』, 돌베개, 2011.
- 쓰지노부오(辻惟雄), 『일본미술 이해이 길잡이』, (주)시공사·시공아트, 2006.
- 아키야마 데루카즈(秋山光和), 『일본회화사』, 소와당, 2010.
- 야나기 무네키(柳宗悅), 『다도와 일본의 美』, 도서출판 소화, 2010.
- 안형재, 『한국의 매화』, 북랜드, 2001.
- 양현지, 『낙양가람기』 놀와, 2001.
- 에비 헬러, 『색의 유혹 2』, 예담 출판사, 2002.
- 염 숙, 『다도학 개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_\_\_\_\_, 『다도학 입문서』, 국학자료원, 2011.
- 염 숙·염영옥, 『중국역사 속에 꽃피운 차문화』,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염정삼, 『설문해자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오원지 오연(吳阮之 吳然), 『茶悟人生』, 陝西人民出版社, 2008.
- 오주석,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그림』, (주)월간미술, 2010.
- 오카쿠라 텐신, 『차의 책』, 산지니, 2009.
- 왕충런, 『중국의 차문화』, 에디터, 2004.
- 우더신, 『한권으로 읽는 불교』, 산책자, 2008.
- 유재건, 『이향 견문록』, 글 향아리, 2008.
- 유중립, 『증보산림경제』, 농촌진흥청, 2003.
- 윤상인·박전열,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 도서출판 나무와 숲, 2011.
- 윤일이, 『한국의 사랑채』, 산지니, 2005.
- 이가림, 『미술과 문학의 만남』, (주)월간미술, 2000.
- 이광주, 『베네치아의 카페 플로리안으로가자』, 도서출판 다른 세상, 2001.
-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이마미치 도모노부(今道友信), 『동양의 미학』, 다홀미디어, 2005.
- 이목, 『이목의 차노래』, 두레미디어, 2001.
- 이미혜, 『공간디자인과 테이블 스타일링』, 기문당, 2007.
- 이상옥, 『禮記·中』, 명문당, 2003.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넥서스 BOOKS, 1999.
- \_\_\_\_\_,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2』, 넥스트BOOKS, 2004.
- \_\_\_\_\_,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3』, 넥스트 BOOKS, 2004.
- 이선옥, 『사군자』, 돌베개, 2011.
- 이성원,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8.
- 이블린 맥퀸(Evelyn B. McCune), 『한국의 병풍』, (주)보진제, 1997.
- 이어령,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주)문학사상사, 2003.
- \_\_\_\_\_, 『국화』,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2006.
- \_\_\_\_\_, 『난초』,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2006.
- \_\_\_\_\_, 『대나무』,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2006.

- \_\_\_\_\_, 『매화』,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2006.
- \_\_\_\_\_, 『소나무』, (주)도서출판 종이나라, 2006.
- \_\_\_\_\_, 『축소지향의 일본인』, (주)문학사상, 2010.
- 이용우, 『차와 다도』, 도서출판 삼보에드컴, 2003.
- 이원복, 『홀로 나귀를 타고 미술 숲을 거닐다』, 이가서, 2008.
- 이지선, 『일본의 전통문화』, 제이엔씨, 2008.
- 이진수, 『차의 이해』, (주)꼬레알레즘, 2006.
- \_\_\_\_\_, 『찾자리의 미학』, 도서출판 지영사, 2006.
- 이행렬·심우영, 『명청대 정원문화 누가 만들었을까』, 이담 Books, 2009.
- 일연, 『삼국유사』, (주)민음사, 2010.
- 장언푸(張恩富), 『한권으로 읽는 도교』, 산책자, 2008.
- 장지아지(張家驥), 『중국의 전통 조경문화』, 문운당, 2008.
- 장파(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 숲, 2009.
- 쟈크 브누아메상(Jaques Benoist-Méchin), 『정원의 역사』, 도서출판 르네상스, 2005.
- 쟈크 브로스(Jacques Brosse), 『식물의 역사와 신화』, 디자인 가필드, 2005.
- 전용신, 『完譯 日本書紀』, 일지사, 2010.
- 정동주, 『한국인과 茶』,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4.
- 정민, 『미쳐야 미친다』,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5.
- \_\_\_\_\_, 『꽃들의 웃음판』, (주)사계절 출판사, 2007.
- \_\_\_\_\_,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8.
- \_\_\_\_\_, 『한시미학 산책』,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 \_\_\_\_\_,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 정양모, 『너그러움과 해학』, 도서출판 학고재, 1998.
- 정영선, 『다도철학』, 도서출판 너럭바위, 1996.
- \_\_\_\_\_, 『한국차문화』, 도서출판 너럭바위, 2007.
- 정순희, 『일본인의 미의식과 정신』, 도서출판 보고사, 2007.
- 정옥자, 『우리선비』, (주)현암사, 2010.
- 정재훈, 『한국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 2010.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2007.
- 조기정, 이경희 『동서양의 차문화』, 금성정보출판사, 2003.
- \_\_\_\_\_, 『차와 인류의 동행』, 서우얼출판사, 2007.
- 조근대, 『中國茶詩』, 현암사, 1999.
- 조설근, 『홍루몽 3』, 청계출판사, 2007.
- 조은정, 『테이블 코디네이션』, 국제, 2010.
- 조명철·김보한·김문자·이재석, 『일본인의 선택』,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2.
- 존 로벨, 『침묵과 빛』, Spacetime, 2009.
-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1.
- \_\_\_\_\_, 『한국건축의 장』 개정판 일지사, 1985.
- \_\_\_\_\_, 『한국건축의 장』 제3판, 일지사, 1997.
- \_\_\_\_\_, 『한국주택건축』 개정판(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 주영하, 『그림 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 (주)사계절 출판사, 2009.
- 주철성,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예문서원, 1999.
- 지순임, 『중국화론으로 본 회화미학』, 미술문화, 2008.
- 지철근, 『조명원론』, 문운당, 2005.
- 진 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글방, 2007.
- 짱유화, 『차과학개론』, 보이세계, 2010.
- 창홍(常宏), 『미학 산책』, 시그마 북스, 2010.
- 천병식, 『역사 속의 우리다인』, 도서출판 이른 아침, 2004.
- 첸파핑(錢發平), 『한권으로 읽는 유교』, (주)웅진씽크빅, 2008.
- 초의선사, 『다신전』, 사회교육연구회, 2003.
- \_\_\_\_\_, 『초의선사의 동다송』, 동아일보사, 2004.
- 최계원, 『우리 차의 재조명』, 도서출판 차와 사람, 2007.
- 최범술, 『한국의 다도』, 보연각, 1975.
- 최병규, 『풍류정신으로 보는 중국문학사』, 예문서원, 1999.
- 최성현, 『조선상류주택이 내부 공간과 가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최종세, 『중국 시·서·화 풍류담』, 책이 있는 마을, 2002.

최현재,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치우지핑(裘紀平), 『다경도설』, 이른 아침, 2005.

크리스토퍼 루페뷔르(Christophe Lefébure),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톰 스탠디지(Tom Standage), 『역사 한 잔 하실까요?』, 세종서적(주), 2010.

파버·비렌(Faber Biren), 『색채의 영향』, (주)시공사, 2008.

폴 발리(Paul Varley), 『일본문화사』, 도서출판 경당, 2011.

풍우란, 『중국 철학사 상』, 까치글방, 2011.

허균, 『한정록 1』, 솔출판사, 2004.

\_\_\_\_\_, 『한정록 2』, 솔출판사, 2004.

허원중, 『지도로 보는 세계 사상사』, 시그마북스, 2009.

홍경모, 『사의당지, 우리집을 말하다』, 청아문화사, 2009.

홍대용, 『을병연행록 1』, 도서출판 경진, 2012.

홍만중, 『우리 신선을 찾아서』, 돌베개, 2010.

황견, 『고문진보 후집』, 을유문화사, 2007.

\_\_\_\_\_, 『고문진보 전집』, 을유문화사, 2010.

황지원, 『중국회화의 기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 2. 외국문헌

강전행삼(岡田幸三), 『岡田幸三 花の伝書』, 株式會社 神無書房, 2007.

관기시정(官崎市定). 『中國史 下』, 岩波書店, 1978.

교림삼(喬林森), 『茶席設計』, 上海文化出版社, 2007.

납옥가인(納屋嘉人), 『春夏秋冬 茶花づかい』, 株式會社 淡交社, 2002.

범증평(范增平), 『中華茶藝學』, 臺海出版社, 2000.

오원지 오연(吳阮之 吳然), 『茶悟人生』, 陝西人民出版社, 2008.

육항(陸杭), 『中國 傳統 藝術 圖鑑』, 東方出版社, 2010.

이신령(李新玲), 『詩化的品茶藝術』, 中國農業出版社出版, 2008.

- 이영매(李永梅), 『茶道 上』, 天津古籍出版社, 2007.
- 이영매(李永梅), 『茶道 下』, 天津古籍出版社, 2007.
- 여열(余悅), 『中國茶文化經典』, 光明日報出版社, 1999.
- 장소선주(庄昭選注), 『茶詩三百首』, 南方日報出版社, 2003.
- 진기록(陳奇祿), 『中國古典插花藝術』, 行政院新聞局 漢聲雜誌社, 1976.
- 촌송방언(村松邦彦), 『はじめての 茶花』, 株式會社 主婦の 友社, 2006.

### 3. 학위 논문

- 곽수정,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6.
- 구혜원, 「CAFE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3.
- 공귀옥, 「차생활이 청소년의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12.
- 김건우,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조성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태경, 「한국 茶筵花의 시대적 전개양상」, 대구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04.
- 노근숙, 「일본 초암차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차문화 구조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8.
- 박경준, 「꽃과 색 및 형태분석이 인체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삼육대 석사학위논문, 2007.
- 박현일, 「한국 색채문화의 사회미학적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서정호, 「테이블 데커레이션 유형에 따른 화예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송해경, 「초의의순의 茶道觀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양선규, 「조선시대 시·서·화의 정신과 사상 연구 : 원당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06.

- 염숙, 「寒齋 李穆의 도학정신과 다도사상」,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경희, 「한국 차문화 전승 연구」, 목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이미혜, 「중세 이케바나의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선아, 「한국차문화공간의 감성적 색채 전략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일희,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지연, 「벽오사를 통해서 본 조선말기 여항문인화 작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정서경, 「한국 차문화 기능의 전승에 관한 연구」, 목포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정은희, 「19세기 조선 사대부가 여성의 차문화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진정현,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차의 책(茶の本)』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 하보숙, 「조선조 차문화의 미의식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8.
- 하승애, 「동양의 화훼디자인 양식과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4.
- 홍윤주, 「현대 꽃장식 경향에 따른 꽃의 이미지 분석」, 서울여자대 박사학위논문, 2004.
- 홍정숙, 「차문화공간에 어울리는 茶花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4. 일반 논문

- 고연미, 「에도시대 바이사오 고유가이[賣茶翁 高遊外]의 賣茶의 의미와 형태」, 한국차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1.
- \_\_\_\_\_, 「일본중세 賣茶圖의 차집문화 고찰」 일본불교사연구, 제2호, 2010.

- 고연희, 「정약용의 花卉에 대한 관심과 花卉詩 고찰」, 동방학 제7집, 2001.
- 김명배, 「차문화연구지」, 한국차문화연구소, 1993.
- 김주연, 「실내공간에 있어 자연광에 의한 시지각적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 박윤수, 「홍현주의 음다생활 고찰」, 차문화연구지, 제12권, 2003.
- 송희경, 「19세기 碧梧社의 雅會;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五老會帖』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 2003.
- 안대회,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회, 영남대학교, 2002.
- 오병훈, 월간 『차의 세계』, 2011.
- 이경희, 「주거공간의 차문화 활용에 관한 고찰」, 비교민속학, 제32집, 2006.
- 정병만, 「蘭叔 禪僧의 酒茶論小考」, 제3회 국제차문화 학술세미나, 목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2006.
- 조기정, 「중국 茶道의 형성과 변천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8집, 2011.
- \_\_\_\_\_, 「喬覺의 茶詩 考察」, 한국차문화 제2집, (주)미스터페이퍼, 광주, 2011.
- \_\_\_\_\_, 「한국 차문화의 산업의 활로 모색-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차문화 제3집, (주)미스터페이퍼, 광주, 2012.
- 주남철, 「이조시대주택의 공간성」, 대한 건축학회지 13권 34호, 1969.
- 최성렬, 「불교문화와 차문화」, 제5기 조선대학교 국제 문화아카데미, 2011.
- 현영조, 「동양의 전통적 차문화 공간 연구」, 한국차학회지 제8권제3호, 2002.
- 홍정숙, 「17세기 네델란드의 차무역이 영국문화에 미친 영향」, 한국차학회지 제17권 제4권, 2011.

## 5.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국역승정원일기』

강희맹(姜希孟), 『동문선(東文選)』, 고전번역총서.  
 권별(權輿), 『해동잡록(海東雜錄)』, 고전번역총서.  
 기대승(奇大升), 『고봉집(高峯集)』, 고전번역총서.  
 김시습(金時習), 『매월당집(梅月堂集)』, 한국문집총간.  
 김정희(金正喜), 『완당집(阮堂集)』, 고전번역총서.  
 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고전번역총서.  
 노인(魯認), 『금계일기(錦溪日記)』, 고전번역총서.  
 서거정(徐居正), 『동문선(東文選)』, 고전번역총서.  
 \_\_\_\_\_, 『사가집(四佳集)』, 고전번역총서.  
 \_\_\_\_\_, 『목은집(牧隱集)』, 고전번역총서.  
 \_\_\_\_\_, 『해동역사(海東釋史)』, 고전번역총서.  
 성삼문(成三問), 『성근보집(成謹甫集)』, 한국문집총간.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고전번역총서.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고전번역총서.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 고전번역총서.  
 이덕무(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고전번역총서.  
 이색(李穡), 『목은집(牧隱集)』, 고전번역총서.  
 이승인(李崇仁), 『도은집(陶隱集)』, 고전번역총서.  
 이응희(李應禧), 『옥담시집(玉潭詩集)』, 우수고전번역서.  
 이체신(李濟臣), 『청강선생후칭쇄어(淸江先生鰾鯖瑣語)』, 고전번역총서.  
 이황(李滉), 『퇴계집(退溪集)』, 한국문집총간.  
 정도전(鄭道傳), 『삼봉집(三峯集)』 한국문집총간.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고전번역총서.  
 정희맹(丁希孟), 『선양정집(善養亭集)』, 한국문집총간.  
 최립(崔嵬), 『간이집(簡易集)』, 고전번역총서.  
 한치윤(韓致胤), 『해동역사(海東釋史)』, 고전번역총서.  
 황현(黃玹), 『매천집(梅泉集)』, 고전번역총서.

